



점 리움

향기로 피어나다

2016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그림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그 중 한 아이의 대답이 기억납니다. “그림 그릴 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림에선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동생도 웃고 있거든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만 같아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이 단순히 재미있어서, 좋아서가 아닌 그들의 진심이 담긴 세상을 작은 종이 위에 그려 넣고 있었습니다.

- 체험수기 중에서 -



병무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www.mma.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300000-000143-10



정림음

향기로 피어나다

2016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병무청



정림음

향기로 피어나다

2016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발 간 사

Congratulations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 모두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사회복무요원일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과 달리 편하게 군복무를 대신한다고 부정적 시선을 보내지만, 대부분은 수기집 내용에서처럼 지하철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 주기도 하고,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의 수호자이자 선생님이 되어 주기도 하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안정적으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들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하고,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떼떽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를 모아 발간하고 있는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가 널리 알려져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복무



요원의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요원들에게는
궁지를 갖게 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기집 제목처럼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뭉쳐진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젊음의 향기’가 진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길 기대합니다.

2016년 9월

병무청장

박창명



심 사 평

Congratulations

2016년도 사회복지요원 체험수기 모집에 응모한 작품 71편은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사연이 담겨 있었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정성을 기울인 노력 또한 남달랐다. 본격적으로 문학작품을 쓰겠다고 공부하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체험수기를 쓰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응모작 가운데는 아름다운 사연을 훌륭한 문장으로 담아 낸 작품들이 많아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사하는 데 매우 고심하게 했다. 우선 ‘감동 및 교훈성’ 25, ‘진실성’ 25, ‘홍보성’ 20, ‘문학성’ 15, ‘내용의 충실성’ 15, 이렇게 기준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했는데, 그 결과 입선작의 등위가 미세한 기준으로 엇갈려 심사위원들도 놀랐다. 이는 그만큼 글 쓰는 솜씨가 평균적으로 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우수상으로 뽑은 <남을 향한 첫걸음>은 ‘그림’을 모티프로 가져와 복무현장의 사연과 대비시킨 글 솜씨가 탁월했다. ‘나는 여태 무얼 그려왔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첫 문장에서 평소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을 반추하고, 이를 도덕적 기준으로 삼고 사회복지요원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잘 끌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그림은 곧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제가 된다. 짧은 글이지만 글을 구성하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우수상 <Two Years of Service, Lifetime of Inspiration>는 제목에서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외국에서 공부하여 석사과정을 마치고



26살에 군복무를 선택한 청년이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서툰 법한데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주어진 기간에 의무적인 복무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진솔하고 감동적이다. 사회에 나가서도 영원한 ‘사회복무요원’이 될 것이라는 마무리에서 글의 진성성이 돋보였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는 특수학교에서 지체부자유 학생들의 배변을 돌보는 등 굵은일을 하면서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봉사하는 정신이 귀감을 샀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친구가 혼자 힘으로 걷는 것을 보고 ‘저 친구가 스스로 걷게 될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반성은 글쓴이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메시지다.

장려상 <걱정에서 기대로, 기대는 현실로>, <누리보듬>, <등대를 부탁해>도 독특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입선작품 24편도 모두 나름대로 참신하고 훌륭한 글들이었다. 다만 몇 군데의 흠결로 인해 미세한 차이로 등위가 결정되었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입선되지 못한 작품들도 나름대로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입선한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입선작에 오르지 못한 분들께도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심사위원 **이 광 복** (소설가·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김 호 윤 (소설가·한국문인협회 이사)

목 차

Contents

최우수상	남을 향한 첫걸음 이병철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8
-------------	------------------------------	---

우 수 상	Two Years of Service, Lifetime of Inspiration 김재우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14
--------------	---	----

저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이환희 경주경희학교	21
--------------	--------------	----

장 려 상	걱정에서 기대로, 기대는 곧 현실로! 김세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28
	누리보듬 김범수 속초한우리공동체	35
	등대를 부탁해 김상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항로표지관리소	43

입 선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김영현 서울메트로(삼성역)	51
	해바라기를 찍는 사진가 박시문 제주시청(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58
	행복은 바로 옆에 있다 허태근 부산중구청(광복동 주민센터)	65
	날아라 병아리 강민우 제주시청(빛과소금 지역아동센터)	72
	마음을 나르고 정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준혁 서귀포시청(동부종합사회복지관)	80
	관심을 주세요 조용빈 금당지역아동센터	87
	하은, 경은이에게 배웁니다 신하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은학교)	94
	그 길에 그 얼굴들 손병훈 수서종합사회복지관	104

입 선	천원짜리 다섯 장 이승엽 통도사자비원양로시설	112
	친절한 주차사업팀 배건희입니다 배건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19
	보이지 않는 영웅 사회복지무요원 빈경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26
	멋쟁이 찍사 한민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132
	이용자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가족으로 김정호 부천시사랑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138
	숲을 이루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풀 김상훈 부산광역시교육청	144
	20초의 기적 오종희 진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	151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회복지무요원이다 이승빈 부산금정소방서	158
	사회복지무요원의 다양한 직무, 어느 직무든 보람칠 수 있다 홍성협 충북대학교 재무과	163
	내 나이 스물셋, 중학교에 다니다 강현구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168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 사회복지무요원 권익현 한국철도공사대구본부(포항역)	175
	마음먹는 대로 김건호 대구도시철도공사 3고객센터(제4관리역)	183
	열을 주고, 천을 얻은 나의 사회복지무요원생활 김호진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진명학교	188
	그 어려운걸 자꾸 해냅니다. 제가 한니엘 풍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94
	복무지 밖에서 찾은 자부심 임정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배울초등학교)	202
	걱정을 깎아드립니다 정근욱 참사랑노인요양원	210

최우수상

남을 향한 첫걸음

이 병 철 |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나에게 ‘그림’이란

‘나는 여태 무얼 그려왔는가?’ 사회복지무를 하며 든 생각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엔 선생님에게 칭찬받을만한 그림을 그렸고, 대학에 들어선 교수님을 만족시킬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좋은 그림은 남을 위한 그림이라 배웠고, 그래서인지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그림 그리는 수많은 날 동안 저의 그림은 낮은 평가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하고 있거나 저의 그림이 틀렸다’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무를 하면서 저에게 그림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저에게 ‘그림’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 ‘그림’ 속의 따뜻함

저는 어느 누구와 어색함이 있는 그 순간을 싫어합니다. 싫다기보다는 그런 기분이 찝찝하고 괴롭습니다. 처음에 낯도 많이 가리고 말주변도 없는 편인 저는 이럴 때면 저만의 비장의 무기인 ‘그림’을 꺼내곤 합니다. 재미있는 캐릭터들을 그려주며 처음에 만난 동기와 어색함을 깨뜨렸고, 기관 직원분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며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했던 저의 사회복무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 아이 두 명이 기관에 찾아왔습니다. 치료 받으러 온 10살 여자아이와 동생인 8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치료는 여자아이만 받지만 혼자 있기가 싫어 누나를 따라 기관에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여자아이는 치료를 받으러 들어갔고, 남자아이와 저는 놀이방에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침묵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친조카도 없었던 나로서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항상 어색하고 귀찮기만 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놀이방 한쪽에서 종이와 색연필을 발견했고, 저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뜻 아이에게 뭘 가장 좋아하냐 물었을 때, 아이는 공룡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흰 종이에 공룡을 똑딱 그려 넣었습니다. 처음엔 그 아이도 어려워했지만 금방 얼굴이 미소가 번지며 좋아하였고, 또래 아이처럼 장난기 많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어느새 시간이 흘러 아이의 누나가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무사히 아이를 돌봤다는 것이 뿌듯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번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흰 종이 위에 그려 넣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제가 아이와 놀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 ‘그림’ 밖의 참혹함

하루는 간사님 업무 보조 차원에서 처음으로 직접 현장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근무시간에 기관 밖을 나선다고 생각하니 들뜬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렘과도 비슷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간사님은 저에게 “생각보다 힘들 거야.”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살짝 떨떠름했지만, 그때까지 설레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드디어 사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보이는 짜늘한 풍경과 분위기, 말없이 한동안 쳐다보시는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것들이 간사님 옆에 있던 저를 점점 뒤쪽으로 물리나게 했습니다. 사례 아동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간사님은 멍뭉한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의 긴장감이 아무렇지 않은 간사님을 긴장한 모습으로 보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뒤에 현관문이 열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들이 펼쳐졌습니다. 집 안은 매우 지저분했고, 기분 나쁜 냄새들이 코를 찔렀습니다. 간사님이 아동의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동안 지적 장애인인 어머니는 혼자서 소리를 지르시고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기관에서 함께 그림 그리며 놀던 아이를 이유 없이 어두운 얼굴을 가진 아이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같은 20분이 흐르고, 차를 타고 도망치듯 주공 아파트에 빠져나왔습니다.

저의 설레는 마음은 단 몇 분 동안의 풍경과 분위기, 시선, 냄새에 의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 남을 위한 ‘그림’

그 후로 치료를 위해 기관에 찾아오는 아이들과 그림 그리며 놀 때마다 ‘이 아이도 지금은 웃고 있지만 상처가 많겠지’라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그럴 때면 내가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낙서에 불과한 그림 이외엔 무얼 했는지, 무얼 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여태 ‘그림’만 그려왔고, ‘그림’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무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우연찮게 디자인대학 학생으로 다니던 때에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러브하우스’는 실내디자인과 학생들이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벽지부터 장판까지 새것으로 바꿔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경험 갖고 있는 저는 아이들이 치료받기에는 딱딱하고, 차가운 치료실 공간을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따듯한 공간으로 꾸며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대상자는 다르지만 제가 하고자하는 의지와 의도는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연 관리자님과 센터장님이 허락해 주실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지만, 감사하게도 모두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센터장님은 저와 함께 여러 계획안을 평가해주시고 고민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수정을 통해 결정안을 뽑고, 그에 필요한 페인트, 붓, 스티커, 선반 등등 필요한 도구들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틈도 없이 사회복지무원 동기의 도움을 받아 치료실 안에 있는 가구와 짐들을 정리하고, 먼지들을 제거하는 등 준비 작업하였습니다. 준비 작업을 마치고 흰 벽에 첫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첫 페인트칠을 하는 그 순간의 걱정과 설렘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옷에 페인트를 묻히고, 먼지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도중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들이 새로워진 치료실을 보며 좋아하고, 친근한 치료실이 되어 아이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설레고 기대될 뿐이었습니다. 페인트칠하고, 스티커와 폼브릭을 붙이고, 선반을 다는 등 약 2주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치료실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장님과 간사님들은 저의 작품에 감탄하셨고, 아이들 또한 변화된 치료실을 보며 신기해하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선 이제 어색한 공간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될 거란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상처받은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길 바랄 뿐입니다.

▶ 아이들에게 ‘그림’이란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그림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그 중

한아이의 대답이 기억납니다.

“그림 그릴 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림에선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동생도 웃고 있거든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만 같아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이 단순히 재미있어서, 좋아서가 아닌 그들의 진심이 담긴 세상을 작은 종이 위에 그려 넣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태 무얼 그려왔지?’ 그 순간 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여태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좋은 그림이란 남을 위한 그림이었지만, 나의 윗사람, 선생님, 교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림들만 그렸습니다. 정작 그림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순간만큼이라도 다른 세상으로 느낄 법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을 위한 그림을 배워왔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지만 단지 나를 위한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그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좋은 그림을 그리리라 약속합니다.



우수상

Two Years of Service, Lifetime of Inspiration

- 사회복지에서 나의 미래와 자긍심을 얻다 -



김 재 우 |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 한국생활이 두려웠던 나, 보통의 남들과 다른 나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을 제외하곤 미국과 필리핀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생활이나 문화가 많이 낯설고 서툰니다. 고등학교 때 운동 중 사고로 다쳐서 신체검사에서 4급 사회복지무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인턴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벌써 26살이 되었고 그만큼 군복무를 남들보다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복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과 다른 점이 많은 만큼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사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사회복지무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중요한, 많은 것을 얻었는지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 편견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자

“보잘 것 없는 일을 한다는 사회복지무원 가치에 대한 편견이
남들로 부터가 아닌 저 자신으로부터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일이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짐 옮기는 일, 서류 정리, 복사업무 등 지루한 작업들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무원 이니까 단순 업무만 시키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일을 하기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복무 자체에 대한 불만이었고, 지루하다는 것은 사실 핑계였나 봅니다. 보잘 것 없는 일을 한다는 사회복지무원 가치에 대한 편견이 남들로 부터가 아닌 저 자신으로 부터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이 제 복무생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잘못된 사회복지무원의 이미지에 굳이 저 자신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2년의 복무기간 동안, 복지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일에, 그 아무리 소소한 일이 어도, 제 정성이 묻어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 그때부터는 제게 주어지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정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간단한 복사작업부터 복잡한 엑셀 작업까지 눈치껏 적적 알아서 배워가는 습관을 기르며 반복적인 일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았고,

작업이 일찍 끝나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직접 찾아가 도움을 건네며 선생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곧 복지관 선생님들이 저를 자주 찾고 필요하게 되었고, 업무의 폭이 넓어지면서 저의 다른 능력들도 발휘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에 대해서 배우다

“한국말을 더듬어가면서 겨우 마친
첫 한 시간의 수업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지관에는 실버대학 수업이 많습니다. 영어수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기초문법교실부터 팝송교실까지 다양한 수업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원어민에게 배우는 수업은 없었습니다. 영어를 잘 할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문화에 익숙한 저였기에 저만의 독특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런 야무진 생각으로 수업을 시작했으나, 영어를 한국말로 가르친 경험이 거의 없어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한국말을 더듬어가면서 겨우 마친 첫 한 시간의 수업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군인이 아닌 선생님이로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힘이 되어 복지관의 다른 영어수업들을 찾아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반에서는 다루지 않는 회화용어들, 회화 연습, 그리고 외국 문화 등을 바탕으로 저만의 교육내용을 구성해가며 자신감을 쌓았고, 저만의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저는 수업시간 때는 최대한 영어로 수업합니다. 그리고 듣기/말하기 연습을 위해서 영어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께 미국과 필리핀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때문에 수업 중에 제가 어르신들에게 가르치는 양보다 오히려 제가 배우는 양이 더 많은 채 수업을 마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미국의 문화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웃고 놀라고 신기해하는 매 순간들이 수업시간을 값지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20개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했던 어르신들이 복도에서 저와 마주치면 자신 있게 영어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청합니다. 처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던 저도 이제 편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입담도 많이 늘었다고들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저와 어르신들이 서로를 도와가며 발전할 수 있어서 더더욱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와 성장을 매일 느끼고 볼 수 있어서 저 자신, 그리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안 생길수가 없었습니다.

▼ 커리어가 중단되었던 나, 생각 치 못한 곳에서 불꽃이 피다

“여느 때와 같이 쌀가마를 들고 언덕위에 어르신들 집에 배달하던 날,
집밖에 먼지 쌓인 무언가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외근업무에 같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근업무 중에 독거노인들께 생필품, 옷, 쌀

등을 배달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어르신들께 주는 도움 그리고 돌아오는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과분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쌀가마를 들고 언덕위에 어르신들 집에 배달하던 날, 집밖에 먼지 쌓인 무언가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제공해드리는 워커(성인용보행기)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기에 왜 안 쓰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외근업무를 나갈 때마다 유심히 관찰하고 어르신들께 여쭙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쓰기 너무 어려워서 못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지에는 유용한 워커지만, 해운대구 재송동처럼 언덕이 많은 곳에서는 쓰기 불편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어렵게 어르신들께 제공해드린 워커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기계공학 전공인 저는 이 문제를 잊을 수 없었고, 워커디자인을 비롯한 거동불편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저는 미국에서 뇌졸중 재활 연구(post stroke rehabilitation research)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정확한 연구 분야와는 살짝 다르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거동불편과 그에 대한 재활연구는 몇 번 접한 분야였습니다. 워커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목격한 이후에 집에 돌아와 시간 날 때마다 관련된 책과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고 신체학, 기계공학 등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거동불편의 기술적 해결이라는 과제가 새롭고 신선한 동기로 부여되었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소집

해제 후 박사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개월의 준비 끝에 박사과정 원서를 내게 되었고, 금년 3월에 미국의 미시건대학교 공과대학(University of Michigan)에서 4년 전액 장학금(학비와 생활비)을 받고 박사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커리어를 중단해놓고 군복무를 위해서 귀국한 저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두 가지나 찾았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생기는 자부심, 그리고 제가 즐기는 일로 인해 남을 도울 때 느끼는 열정. 모든 경험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임하며 복무생활을 하다 보니 더 좋은 기회가 다가왔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 “재우씨 소집해제하지 말아요”

저는 보통의 한국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서 지냈지만, 오늘의 저는 제 경험, 즉 그동안 제가 무엇을 하였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는지로 대부분 설명됩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사회에 도움을 줌으로서 비로소 제가 했던 경험들이 결실을 맺게 되고 그 최상의 결과는 제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게 사회복무는 정말 멋진 경험이었고 중요한 기회이자 저의 내면세계에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요즘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많이 듣는 말입니다; “재우씨 소집해제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계속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까요? 하긴 제가 소집해제하면 엑셀작업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라고 농담 삼아 말합니다. 복무 초반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소집해제를 앞둔 요즘은 마냥 기쁘지 만은 않습니다. 복무하면서 제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잘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훨씬 더 당당하게 제 미래를 개척해나가고 있기에, 복무를 끝내면 섭섭하기도 할 것입니다.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여러 경험을 받아들이고 좀 더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저는 저희 복지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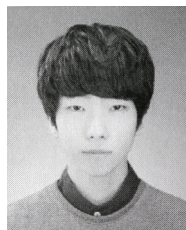
올 8월 저는 24개월의 사회복무를 끝마치고 소집해제 하게 됩니다. 복무를 그만큼 열심히 했기에, 그만큼 보람 있게 해나갔기에, 소집해제를 앞두고 그다음 여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2개월 동안 해운대 재송동 어진샘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그리고 소집해제 후 사회에 나가서도 영원한 사회복무요원일 것입니다.



우수상

저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 사회복무를 통해 바뀌어 가는 나의 삶 -



이 환 희 | 경주경희학교

예전에 봉사를 다니던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를
경희학교에서 다시 봤을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그 친구는
혼자 힘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가 스스로 걷게 될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지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 사회복무를 만나기 전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아주 왜소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것도 체중미달 때문이었습니다. 깡마른 외모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이 없었고 초등학교 때는 덩치 큰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소한 체구 때문에 잘하는 운동 하나 없었고,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도 그다지 특별한 재능이 없었습니다. 머리도 좋지 않은 편이라 고등학교

때 성적은 항상 바닥이었고 대학도 요즘 젊은 세대가 말하는 ‘지잡대’ (지방에 소재하는 잡스러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 보니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방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 동기들은 쉬러 가는 공장 시간에 밥도 못 먹은 채로 교내근로를 하러 가야 했고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몸이 왜소한 탓에 일거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구한 일을 나가면 현장 아저씨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거기에서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쁜 머리를 가지고 장학금까지 받아야 했으므로 일을 마친 후에도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쪽잠을 자고 학교에 가야할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인지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은 나같이 ‘지잡대’에 다니는 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괜찮은 회사에 원서조차 내밀어 보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피로에 절어 만성피로와 편두통만 얻은 채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남은 방세를 메꾸기 위해 건설 현장을 전전하다가 2016년 2월 15일 도망치듯이 훈련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 경희학교를 선택한 이유

저는 지금 경주지역 특수학교인 경희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지를 경희학교로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많은 만류가 있었습니다. 행정보조 일을 하는 기관으로 가게 되면 편한 일을 할 수 있고 특히나 특수교육기관은 일이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희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방학 때 처음으로 가본 제대로 된 봉사활동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통합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봉사시간을 핑계로 설렁설렁 시간만 때우던 이전의 봉사와는 달리 처음으로 제대로 된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기왕에 해야 되는 2년 동안의 사회복지라면 ‘다른 곳보다는 일이 힘들지라도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지를 선택하자’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경희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5명의 지원자를 뽑는 경희학교는 다행히 다른 기관에 비하여 경쟁률이 낮았고 저는 바로 경희학교로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 첫 출근

힘들었던 4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친 후, 그간 쌓인 피로를 잠시 쉼 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경희학교가 특수학교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어디에 있는 어떤 학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하자마자 사회복지무원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부터 간략한 교육을 받은 후 바로 학급으로 배정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에 봉사를 갔던 유치원에서도 나름 중증인 아이들을 맡았었는데 여기 학생들을 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배정된 반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수업하는 것이 힘들다고 소문난 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심한 학생들과 그동안 들어온 특수학교 사회복지가 힘들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을지에 걱정과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맡은 일은 배변처리가 어려운 학생들의 배변을 도와주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이 이동수업을 할 때 이동을 도와주고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는 학생이 발작을 일으킬 때를 대비하여 항상 옆에 같이 동행하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배변을 도와주는 일이 무척 비위가 상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손에 소변이나 대변이 조금 묻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의 강도가 세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학생들을 지켜보아야 하였으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일에 적응이 되면서 부터는 긴장감 대신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 장애에 대한 편견

저는 장애가 없습니다. 몸이 좀 왜소하긴 하지만 그것이 장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애란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생각해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희학교에서 사회복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그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 온 내 시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이것이 그동안 내가 장애인에게 가져온 시각의 전부였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학생들을 그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를 시작한 몇 달이 지난 지금 얻게 된 생각은 결국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특히 지적장애인들도 이곳에서의 교육으로 충분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었습니다. 또, 복무를 하면서 장애인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경험하다 보니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의 인식도 바뀔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동참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내가 선생님?!

사회에서 사회복지요원이라 하면 일단 ‘공익요원’이라는 말과 함께 부정적인 인식과 심하면 거의 경멸에 가까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무요원 근무지에서 직원들이 사회복지무요원을 지칭할 때 ‘어이, 공익’ 혹은 ‘어이, 아무개군’이라 하기도 하고, 간혹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심하게는 ‘어이, 똥방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평소에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 사회복지무요원 판정을 받았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무를 시작하니 그런 걱정은 기우(杞憂)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무하는 곳은 학교라서 그런지 우리 사회복지무요원들에게도 모두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앞서 소개했듯 저는 정말 평범하다 못해 보잘 것 없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가끔씩 교수님을 실수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익숙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선생님이란 소리를 듣게 되니 어색하기도 하고 그 호칭의 무게감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진짜 교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비록 내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 부름이라는 명목 하에 타의로 이 학교에 온 것이지만, 고작 십오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저를 이토록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은 애국심이나 사회공익을 위한 헌신 같은 것이 아닌 그저 “선생님”이라는 이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 주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 저는 사회복지복무요원입니다.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이후 쏠살같이 흘러 벌써 제가 사회복지복무요원 생활을 한 지도 석 달이나 다 되어 갑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현역으로 입대한 친구들이 하나 둘 백일휴가를 나오는 것을 보니 저도 군대로 치자면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넘어가는 시기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복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많은 일을 경험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항상 매사에 비관적이었고 바쁜 일상의 피로감에 절어있던 제 자신도 복무를 하면서 점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비록 대학 1학년 때의 힘들었던 삶의 후유증으로 얻은 만성 피로와 편두통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는 증거이자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성숙을 하고 육체적으로도 그동안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왜소한 몸이라는 콤플렉스도 사회복지복무요원만의 장점인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꾸준한 운동으로 극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건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사회복지복무요원의 생활은 저의 이 인생 마라톤에서 시원한 바람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무를 마치게 되는 2년 후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보람찬 사회복지복무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에서 기대로,
기대는 곧 현실로!



김 세 환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걱정 반, 기대 반의 첫 출근과 적응기

2016년 2월 4일에 훈련소를 입소하여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대망의 3월 4일, 나는 ‘구의 아리수 정수센터’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아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으며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조우해야한다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들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처음 뵈 팀장님은 아버지처럼 따뜻하신 분이셨고 먼저 정수센터에서 복무하고 있던 선임 사회복지무원들 역시 친근하고 밝은 친구들이었다.

사실 업무의 강도보다도 대인관계 때문에 더 걱정이 앞섰었는데 다행히도 너무나 좋은 분들만 계셔서 한 시름 놓고 복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구의 아리수 정수센터의 경우는 주 5일 주간에만 근무하는 일근직과 주/야 교대로 근무하는 교대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나는 일근직에 배치를 받게 되었다. 내가 주로 해야 할 일은 행정 보조 업무였고 환경 감시/보호 역할이 주를 이루는 교대직에 지원을 내려가는 업무도 병행해야 했다. 이 곳 구의 아리수 정수센터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가장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인사’였다. 앞으로 23개월간 나의 근무지가 될 곳인데 직원 분들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되도록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의 첫 인상을 남기고 싶었기에 보다 활기차고,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십니까?”를 외치기 시작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지 않았던가? 역시나 내가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니, 직원 분들께서도 밝은 얼굴로 화답해주셨으며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대부분의 직원 분들의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그 결과 나는 내 나름대로 구의 아리수 정수센터에 첫 출발을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첫 발을 좋은 방향으로 내딛게 되니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것은 당연지사였으며 사회복무를 시작하기 전보다 내 자신이 조금 더 밝아진 느낌도 들었다.

▼ 지원 근무를 통해 느낀 Social Service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제도'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복지무를 영어 단어로 접근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 'Social Service' 즉, 단어 그 자체의 의미 그대로 사회 봉사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일근직으로 복무중이지만 교대직으로 지원 근무를 내려가기도 한다. 지원 근무를 내려가게 되면 주로 정문에서 근무를 서게 되는데, 이 때 사회복지무(Social Service)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곤 한다. 정문에서 근무를 서게 되면 주로 외부 출입 차량 통제 및 외부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는 이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된다. 차량 출입 통제의 경우 우선적으로 차량을 멈추게 한 이후에 어디서 오셨으며 어떠한 업무를 보러 오셨는지를 여쭙어 보고 이를 청원 경찰 반장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 센터 내부의 세부적인 위치로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센터 내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업무를 보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역지사지로 내가 아리수 센터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낯선 느낌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없애드리려고 노력하다보니 센터를 찾아오시는 손님들께서 굉장히 흡족해하시는 모습이 자연스레 보였다. 또, 가끔 가다보면 아리수 센터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견학을 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다. 이 분들을 해당 장소로 인솔 및 안내를 해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최대한 도와

드리니 ‘밝은 모습이 좋다’라며 칭찬을 듣기도 했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드리거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 별 거 아닌 일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행동하니 상대방이 만족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

▼ 환경 보호 및 감시의 임무를 다하다

아리수 센터는 기본적으로 국가 중요 보안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센터의 외곽에 쪽 경계 울타리가 쳐져 있다. 그리고 센터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단순히 아스팔트와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꽃 등 자연 환경이 센터 내부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아리수 센터 사회복지무요원은 정확히 말하자면 환경 보호 및 감시 역할이다. 즉, 아리수 센터 내부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당연히 나의 업무이다. 경계 울타리를 따라서 순찰 업무를 보기도 하는데 이 때 외부에서 날아 들어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은 기본이다. 순찰을 돌다보면 쓰레기가 눈에 띄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깨끗이 처리하고 경계 울타리를 타고 자라나는 덩굴이나 잡초 등을 제거하는 것도 나의 역할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쓰레기를 줍는 일에 짜증이 나기도 했다. 쓰레기를 줍는 일을 누가 좋아하는가? 나 역시 마찬가지

였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땅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일이 결코 행복한 일은 아니었다. 심지어 아리수 센터는 수돗물을 생수해 내는 곳 이므로 덩굴이나 잡초를 제거할 때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고 일일이 전지가위를 사용해서 제거하고 낫이나 호미 등으로 파내야 하는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더러웠던 주변 환경들을 깨끗하게 청소 및 정리하고 난 뒤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과 내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꼈다. 참 신기한 현상이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아리수 센터는 내 생각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봄으로써 나오는 나의 미소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 환경을 관리해야하고 아름답게 유지시키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 내가 그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를 함으로써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잠깐 동안의 고생은 자연스레 별 거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고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좀 더 나아가 내가 아리수 센터를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어느새 내 안의 작은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훈련소를 제외하고 내가 본격적인 사회복지무를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100여일이 지나갔다. 100일의 시간은 분명 긴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사회복지무를 하면서 느낀 100일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내 자신에게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킨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무요원 제도가 일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심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만 매스컴에 보도되다 보니 누군가는 사회복지무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으며 현역 입영 대상자들과 비교를 하며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은 걱정과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딪혀보자 라는 마인드로 자신감 있게 시작한 인사를 시발점으로 나의 크고 작은 행동에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밝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2016년 2월의 내 모습과 2016년 6월의 내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변화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로 인해 나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과 상황까지 변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다. 근무지에서 잘 지낼 수 있을는지, 사고는 치지 않을는지... 그러나 요새는 부모님께서 전혀 걱정도 하지 않으시고 나의 근무지에 대해 별다른 말씀도 없으시다. 그래서 왜 요즘에는 제 근무지에 대해 말씀이 없으시냐고 여쭙어보니, 내 얼굴이 이전보다 밝아진 것이 눈에 보이셔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아채셨다고 말씀하셨다.

사회복무를 시작한 뒤의 나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단순히 내 자신의 발전보다는 남들과 내 주변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더 나아진 ‘나’를 만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사회복지무를 해 온 시간보다 앞으로 해야 할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았다. 그러나 결코 지겹거나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회복지무라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만 같아서 행복하고, 사회복지무가 끝날 때 즈음에 내가 얼마만큼 변해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한 가지 확실한건, 나는 앞으로도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사회복지무에 임할 것이다. 괜히 Social Service가 아니다. 그저 병역의 의무를 위한 복무 기간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구의 아리수 센터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항상 가볍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도움 및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걱정에서 시작한 나의 사회복지무는 어느새

‘오늘은 또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될까?’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이 기대감은 매일 점점 더 나아지는 내 모습을 재발견하는 현실을
나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의 시작이 사회복지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진다.

누 리 보 드

김 범 수 | 속초한우리공동체

▼ “안녕하십니까” 다한 사회복지요원입니다!

복무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울고 웃는 일들 때로는 힘들지만 뒤돌아보면 웃음 짓는 일들 없어서는 안 될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수기를 작성 하기 전 전국 각지에서 복무중인 사회복지복무요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등잔밑이 어둡다

저는 강원도 속초시에서도 설악산과 가까운 『한우리공동체에서』 복무중인 김범수 사회복지복무요원입니다. 제가 복무중인 곳은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복무를 시작하기 전 저는 해외봉사와 재외동포 모국 연수라는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를 오래하고 있었고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봉사로

많이 하고 했는데 무엇이든 못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며 장애인시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에 다녀와 처음으로 복무지에 발을 들인 저는 그 순간 “내가 원하던 건 이런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외국인들과 하는 봉사 누군가가 알아주는 봉사 그냥 남에게 비춰지는 그런 봉사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정말 많은데 단지 남들에게 비춰지는 가식적인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결심했습니다.

2년간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의 돈을 지불하고도 배울 수 없는
경험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많은 배움을 얻어가는 시간을 만들자라고 다짐하며
지금까지 복무중에 있습니다.

24개월의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금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배웠지”하며 웃음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 하늘의 별 따기

제가 복무하는 한우리 공동체에는 총 열분의 식구들이 생활하고 계십

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사연이 많은 분들이고 쉽사리 처음부터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기에 햄버거를 좋아한다는 원장님 말씀에 복무한지 2주가 지나고는 M사 햄버거 세트를 가져가 식사를 대신한 적도 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멀리서 조금씩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식구들 성함과 생년월일을 휴대폰에 메모하고 아주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여 손과 발이 되어 드렸고 복무한지 몇 개월이 지날 때쯤에는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열어준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제가 오기를 기다려주는 친구도 밖에서 기다려주는 아저씨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친숙하게 대해주셨고 살면서 “이렇게 문밖에 나와서 날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정말 감사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무 첫 날 저에게 소리를 치시던 종필이 아저씨의 마음을 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종필이 아저씨께서는 소변을 잘 보지 못하십니다. 옆에서 누군가 보조를 해드려야 합니다. 매번 소변 보실때마다 옆에서 보조를 해드리고 또 주기적으로 샤워를 도와드리고 웃으며 하루하루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아저씨를 볼 수 있었고 어느덧 아저씨께서는 말을 제대로 하실 수는 없지만 저에게 “봉수야 병수야”라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진 않았지만 그때의 벅차오르는 감정은 기쁨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식으로 다가가는것이 아닌 먼저 손을 내밀며 함께 말하며 소통한다는 것이 꼭 말로 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후로는 정말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과 보람찬 나날을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번 병원가실 때마다 저와

함께 가자고 하는 아저씨를 보면 어렵게 얻은 인연이 더욱 애틋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난 인연 이지만 먼저 다가가며 “틀린게 아니구나 사람마다 다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며 『동정과 위로』가 아닌 『존중과 배려심』으로 다가간다면 복무하는 시간동안 더욱 많은 기억과 추억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나는 그대들의 어벤저스

매년 4월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많습니다. 평소에도 바쁘지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면 사회에서는 많은 행사를 지원하여 주고 또 주최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뜻 깊고 동행하며 나눌 수 있는 행사가 하나있습니다. 『오뎅이 마라톤대회』입니다. 비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속초 영랑호 호수를 함께하며 약 4km정도를 같이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1년전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삼촌과 한 팀이 되어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함께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밀며 뛰고 구간마다 올리는 힘찬 응원소리와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함께 달리기에 서로 의지하며 달릴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단지 비장애인분들의 더욱 활발한 참석과 얼굴만 보여주고 가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전해져 진행되어 진다면 좀더 의미있고 보람이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가 근무하는 공동체에는 3명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중 두명의 친구는 공부에 흥미가 많아 항상 오후에 학교에 돌아와서는 숙제 그리고 하루 중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곤 합니다. 아이들중에 가장 궁금함이 많은 성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친구는 동식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적부터 동식물에 관심이 많아 공감대 형성도 빠르고 하루는 성혁이가 “선생님 사슴벌레 본적 있어요?” 라고 물어본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면 기억에 많이 남겠구나 싶어 그날 퇴근하기 전 참나무에 사과잼을 발라 채집을 해보자 하고 가보았지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3일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출근하는길에 둘러보니 장수풍뎅이 2마리를 볼수 있었고 성혁이에게 “사슴벌레 보여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성혁아 그대신 장수풍뎅이 보여줄게”라며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잘 날려보내 주었습니다. 설악산 인방이 아니었다면, 성혁이 같이 흥미를 가진 아이가 없었다면 어릴적으로 돌아가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사슴벌레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 어릴적 향수를 불러일으켜준 친구에게 정말 아직도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봄에 같이 해바라기를 심으며 “형 해바라기는요 여름이 되면 형 키보다 더 클거예요”라고 말하는 그 친구를 보며 하루하루 궁금한게 너무 많은 아이지만 근무하는 저에게 웃음짓는 일을 만들어주는 순수한 이 친구들에게 저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한우리공동체에서의 든든한 친구이자 제자들입니다.

▼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낀다

저는 여름이 기다려집니다. 매년 여름 세계각지에 흩어져있는 재외 동포친구들을 만날수있기 때문입니다. 세계48개국에 흩어져있는 친구들이 여름을 맞이하여 모국에 들어와 한국의 문화, 예절등을 알고 우리나라에 대해 알며 또 많은 일정등을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쌓고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매년 참가해 왔지만 “복무를 하는 중에는 참가할수 없겠지” 조금의 기대감을 안고 병무청에 문의해본 결과 사회복무요원도 봉사활동등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게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서류준비 끝에 봉사를 다녀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각지의 아이들과 언어 문화의 제약을 많이 받지만 한국인의 핏줄이 섞인 재외동포 친구들과 언어를 뛰어넘어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으로 참여할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더욱더 보람찬 봉사활동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온 같은 나이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중국어만 구사할수 있어 의사소통은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저렇게 다른 일과 시간에는 도화지에 저를 만들어 주었던 게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저와 같은 나이 여서 다른친구들 보다 더욱더 정이 갔었고 가기 하루 전 이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중국어로 “워창창훤이시양니” 처음에는 뜻을 몰랐지만 중국 통역친구에게 “저말이 뭐야?”라고 물어보았고 “많이 보고 싶을거야 라고 전해달래”라는걸 듣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휴가써서 온거야 많이 아깝지않아?”라고들 물어보았지만 사람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르듯이 힘들고 지치지만 저에

게는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기고 잊을 수 없는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뿌듯함을 느낄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무를 하던 중 어느날은 공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안보교육에 모범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되어 강원도 고성군을 지나 통일전망대 북한과 연결되어있는 “재진역”에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저 기찻길을 이용하여 갈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통일전망대를 둘러보며 날씨가 흐려 잘보이지는 않지만 금강산과 앞으로는 해금강이 보입니다. 훗날 통일이 되어지면 비무장지대(DMZ)의 엄청난 자원과 함께 발전할 남과북의 통일을 염원하여 봅니다.

▼ 492일 간의 배움, 나를 바꾸어준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배움을 받고 주며 함께 생활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슨일이 있을지 또 무슨 도움을 받고 드릴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 “사회복무요원”은 어느 분야든 장애인, 노인복지, 아동 등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많이 배워가는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에게 남겨진 시간은 다르지만 개개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복무하는 헌신적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을때

“그 시간은 나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었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지”

라고 생각할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전국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열심히 맡은바를 열심히 수행하여주시는 사회복지무요원 분들! 남은
복무기간도 무사히 건강하게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려상

등대를 부탁해

김 상 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항로표지관리소



▽ 긍정의 등대오름길, 새로운 각오

이곳으로 출근을 하고 가족같은 직원분들을 만난지 어느덧 두 달이 접어들었다. 이곳은 매일 새로운 분위기로 하루의 시작길을 열어준다. 잠에서 깬 다양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소나무와 살구나무를 이리 저리 헤집고 다니는 청설모들의 환영을 먼저 받는다. 가파른 오름길로 내딛는 매 순간순간 바닷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들이마시며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깨끗한 자연이랑 어우러진 묘한 운치를 물씬 풍긴다. 정상에 오르면 광대한 하늘아래 탁 트인 수평선과 함께 백색의 궁전같은 건물하나가 있다. 이곳이 바로 지난 두달동안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리고 우리지역의 대표관광지 지킴이로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속초등대전망대’라는 곳

이다. 출근길의 모습을 자랑하듯이 말했는데 이유가 있다. 깨끗하고 맑은 자연과 함께 하는 이곳은 하루의 시작부터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싸악 정화시켜주고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라 말하는게 이해하기 쉬울거 같다. 출근하는 길이 즐거운 근무지가 얼마나 있을까? 나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월요일 따위 없는 한 주를 시작하게 된다.

지난 3월. 또래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훈련소부터 군생활을 시작한 나는 입대직전까지만 해도 걸어 다니는 종합 병원이었다. 특히나 나에겐 ‘기흉’이라는 질병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숨이 차는 운동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소홀히 해왔다. 그러나 이곳에 첫 출근하는 날부터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원래 공기맑고 물좋은 동네로 유명하지만 등대로 가는 오르막길엔 차도 지나 다니지 않고 소나무들이 우거져있어 삼림욕이 따로 필요없다. 가족이랑 다툼 날에 와도 맘 속이 뻥~하고 뚫려 기분이 우울할 여지조차 없다. 그래서 난 출근하고 나서도 순찰코스로도 잘 이용하고 있다. 기분이 좋아 올라오는 관광객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건넨다. 그러면 오르막길에 힘들어하던 사람도 “안녕하세요”라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주고받기도 한다. 저절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날마다 오르며 건강이 좋아진다는 암시를 건다.

그랬더니 효과가 나타났다.

나도 모르는 새에 긍정적인 마음이 빛을 발한 것이다.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등대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좀 뭔가 특이한 느낌이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환경에 공무원들과 한 사무실에서 일해야 할 생각에 걱정이 많았었다. 행동도 너무 느리고 어리바리해서 시키는 일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폐만 끼칠까봐 시작 전 부터 겁이 나기도 했다. 그런 맘으로 처음 출근해서 배운 것은 기온과 바닷물의 온도와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다. 혹여 온도 재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미심쩍을 수 있다. 나도 물론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다. 초등학교 과학시간에만 보았던 일이다. 컴퓨터를 켜서 기상을 확인하고 바닷물까지 떠서 비중계를 담갔다가 수온계를 담갔다가 하는 작업이 인수인계 받을 때는 흥미있어 보이고 신기했다. 보기엔 쉽고 잘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 다음날부터 직접 해보았다. 그치만 생각보다 바닷물을 떠올리는게 쉬운 게 아니었고 번거로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가파른 계단길을 오르내리며 도구를 챙겨서 바닷가로 가야하고 측정 할 때는 몸을 숙이고 봐야하는 짧은 침묵의 시간이 있는데 아침부터 태양이 작정하고 작열하는 날이면.. 그 순간만큼은 바위에 붙어 말라비틀어진 불가사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언젠는 더 잘해보려다가 어설픈 파도에 놀라 미끄러져 하마터면 물귀신 될 뻔한 사연도 있다. 방법만 알지 몸이 안따라줘서 처음이니까 봐줄 수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다가도 같은 실수 연발에 내가 극심하게 한심할 때도 있었다. 머릿속으로 “이런거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어디다 쓰겠냐”고 질책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그 목소리는 엄해보이셨던 소장님의 목소리였다. 언젠가 시크하신 소장님께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떻게 도움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보았다. 소장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아침마다 측정하고 있던 모든 자료들은 해양수산연구원에 보고되어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고 한다. 특히 양식업,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에게는 치어 방류와 그날의 어획량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맡겨놓은 거니까 오차없이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고 하셨다. 카리스마 넘치는 소장님이 그렇게 정확하라는 말을 강조하시는걸 보니 덜컥 겁도 나기도 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새겨들었다. 비록 내가 몸이 아파서? 단지 나라에서 여기로 가거라해서 오게 된 것이지만 지금 나의 이 미약한 일들이 국가에는 큰 이바지가 되고 있다는 것에 큰 사명감을 얻고 2년동안 대충하자는 생각은 접고 훌륭하게 해내고 말 것이라고 말이다. 누군가가 나중에 군인때 뭐했냐 물을 때 당당히 사회복지요원으로 등대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고 우쭐할 수 있을때까지..!

평소에 성격도 소심한데다가 현역으로 전역한 친구들한테서 약간 소침해 진 적이 많았는데 이를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국가에서 내려준 책임이 있고 나 하나의 작은 일이 작게는 지역의 어부들에게, 크게는 국가의 해양수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명감이 더 뚜렷해지자 내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게 소속감을 느끼는 거구나 싶었다. 등대 공무원분들이 하는 업무들을 눈여겨 보면서 방식을 터득하기도 한다. 공구를 들고 다니면서 울타리 같은 안정장치를 정비하고 날씨를 살펴 전망대를 통제시키고 전망대 시설 전반을 관찰하고 환경정리까지의 행동

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나열해놓고 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다. 하지만 혼자서라도 먼저 해보고 배워보고 시간이 흐르자 반 전문가가 된 듯 하다. 첨엔 그렇게 두려워했더니만 지금은 잘했다고 칭찬도 자주 받는다. 그 순간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황스러워하던 내 모습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바뀐 지금 모습에서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되어 감회가 새로웠다.

▼ 만남의 광장에 서다

‘만남의 광장’은 이곳 속초등대전망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 말이다.

전국 곳곳의 관광객들을 넘어 외국인들이 속초에 오면 꼭 방문한다는 관광명소인 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정겨운 공간이라는 것이 나의 또다른 즐거움이다. 가끔은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부터 해서 각 지역의 관광모임 등에서 등대해설 신청이 들어온다. 등대해설은 박물관으로 치자면 도슨트 프로그램 같은 것이다. 단체관람객들이 오는 이런 날에는 우리 등대의 공무원이 아닌 해설사님이랑 함께 관광객들과 등대 주변을 동행하게 된다. 이때 내 역할은 주로 통제나 관광지 코스 안내를 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같은 경우, 자유분방한 어린이들을 통제하는건 소홀하면 이곳에서는 위험한 사고도 날 수 있어 집중을 잘 해야한다. 어린 초등학생들을 통제하는 게 제일 어렵지만 가끔 어린 학생들이 내가 제복을 입고 등장하면 “경찰같다~”, “멋지다”라고 말해주는 예쁜 어린이도 있다. 내가 아닌 사회복지무원 제복이 멋있다고 말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말을 듣고 괜히 아이들한테 당당하고 자신있어

보이게 위해 어깨를 짚 펴고 걷게된다. 나는 맨뒤에서 따라다니며 해설사님이 손짓으로 전경을 가리키면서 진행하시는 속초 등대와 속초의 역사이야기를 청강하면서 나도 몰랐던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아 뜻밖에 공부가 되고 관광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일석 이조의 뜻깊은 보람을 느낀다.

다시 업무 얘기로 돌아와 해설사님과 전망대 안의 영상관, 홍보관도 소개를 해준다. 마지막 해설코스인 전망대 꼭대기에서 사방으로 뿔린 속초의 장관을 바라보면서 안내를 하면 아래에서 설명을 들으며 지루해 하던 어떤 누구도 여기선 매우 신나서 이것저것 질문이 쏟아진다. 그럼 나도 활기찬 반응에 부응해서 핸드폰에서 찾아보면서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그럼 사람들도 고맙다고 화답도 오고 등대의 전망이 좋다는 말이 왜 내 칭찬으로 들리는 걸까. 그냥 나도 모르는 뿌듯함에 히죽거리게 된다. 예전엔 나도 어디 관광을 가게 되면 안내를 받았는데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된 이후부터는 내가 직접 관광 온 여러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 느낌도 새롭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그중에서도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일은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해설여행이 끝나고 관광객들이 떠난 자리에는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야하는것도 나의 임무이다. 물론 쓰레기를 흘리고 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엔 흔적이 많이 남기 마련이다. 이제는

순찰하거나 화장실 가는 족족 쓰레기를 보면 바로 가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아주 좋은 습관이 생긴 것이다. 물론 복무중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도 쓰레기를 줍거나 하진 않지만 적어도 쓰레기를 절대로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는 버리지 않게 되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내 생각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도 이곳에서의 또 하나의 보람인 것이다.

▼ 아낌없이 교훈 주는 이름 ‘사회복무요원’

얼마 전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이 있어서 다녀왔다. 그곳엔 자신도 몸이 아파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지만 자신보다 더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이나 노인분들을 돕는 복지센터나 소방서같이 위급한 상황도 항상 맞서야 하는 그런 복무요원들도 있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느낀 것은 존경스럽다, 대단하다가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시간동안 복무하면서 몸이 고되게 고생하면서 그만큼 정신도 지금의 나보다 훨씬 성숙해지지 않을까 싶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들 눈에는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내가 맡은 일도 충분히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이니 다른 복무요원들만큼 헌신적 봉사를 하게 되는 기회가 적더라도 지금 비중과 수운을 체크하는 일과 관광객들 안내하는 일, 그리고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이런 사소한 일들 모두 작은 노력들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복무기간동안 청렴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회복무요원, 속초의 등대지기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아직 2개월차지만 지금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관심이 없었던 바닷가 바위 언덕배기의 등대라는 곳에 지금 내가 오게 된것도, 지금 같이 한 사무실 안에서 가족같이 대해주시는 공무원분들과 해설사님을 만난 것도 소중한 인연이고 사회복지요원이 된 것도, 제복을 딱 입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주어진 업무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처음으로 대견하게 느껴졌다. 앞으로도 등대의 소속감을 갖고 충실하게 복무하여 2년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을 내 모습을 고대하며 직원분들한테도, 관광객들한테도 기억에 남는 그런 모범 사회복지요원이 되고싶다...나는 할 수 있다!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김 영 현 | 서울메트로(삼성역)

▶ “삼성역 사회복무요원 김영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코엑스(COEX), 무역센터(WTC), 즐비한 초고층 빌딩들, 그 외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한 이 곳. 가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삼성역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았다. 막막한 게 사실이었다. 역무실은 내 인생 23년 동안 한 번도 발을 디뎀 본 적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천만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메트로가, 내 일상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지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이나 역무원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졌다. 근무지 특성상 야간근무가 존재하는 우리는 밤낮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예로

역무실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민원(유실물 찾기, 교통카드 에러, T-머니 서비스)을 척척 해결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강장, 게이트, 역사(驛舍) 시설물들을 매일 점검하고, CCTV 감시, 응급환자 대처, 시각장애인 안내, 휠체어 리프트 케어 등등, 사회복지요원이 단지 2년의 대체복무를 위해 그저 복무기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잉여자원이 아닌, 해당 복무기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맡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난·안전·관리 분야 사회복지요원으로서의 자긍심, 복무기관에 대한 소속감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 겨울에 놀러 오는 동생

지하철 사회복지요원은 야간근무가 있다. 모든 열차가 운행 종료될 때에 우리 역에는 주박열차(삼성역이 종착역인 열차)가 도착하는데, 새벽 한시가 조금 넘는 이 시간에는 열차 내에 남아있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귀가시키는 업무를 한다. 때는 초겨울은 되었을 작년 어느 날. 그 날도 나는 주박열차를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순찰하고 역무실에 복귀했다. 유독 취객들이 많고 헤어진 남녀가 싸우는 등 아비규환의 날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역무실에는 역무원들 이외에 이제 갓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내 또래에 아이가 앉아있었다. ‘이 친구는 아직 안 나갔네?’라고 생각했을 무렵 이 친구의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유치원생으로 보였다. 지적장애우 승객이 우리 역 주박열차에 남아있던 것이다. 역무원들과 나는 “집이 어디니? 어디서 왔어?” 몇 가지를 물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OO교회에 가야 한다는 대답과 함께 연신

울먹이는 친구의 모습뿐이었다. ‘교회가 집일까?’ 그때 친구가 메고 있는 가방이 보였고, “미안해, 형이 가방 좀 볼게.” 가방을 조심스레 뒤적이니 OO교회라는 공책과 몇 개의 연락처들이 보였다.

희망을 품고 교회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모님 연락처로 보이는 번호로 걸어보아도 받지 않으셨다. ‘아뿔싸...’ 침착하자. “부역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112에 신고하고 영현 씨가 잘 달래고 있어 봐”그날따라 유독 취객들도 많았던 탓에 이 친구는 전적으로 내가 맡게 되었다. 일단 경찰에 인계를 위해 신고를 하였고 이제 이 친구를 달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친구야, 형이 집에 데려다줄 게 얌전히 있자!” 나는 사회복지무원이기 이전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이다. 과거에 특수학생 지도에 관한 수많은 이론을 책으로 공부했다. 그렇다. 책으로 ‘만’ 공부했다. 현재는 실전이다. 친구를 달래기 위해 이리저리 여러 방법을 강구했다. “뭐 좋아해? 가위바위보 할까?”, “뚝! 여기는 얌전히 있어야 돼. 곧 집에 갈 거야” 선생님 마냥 다그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여러 방법 끝에 친구는 울음을 그치고 이내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은 채 놓아주질 않았다. “형아 쉬아.” “그래 형이랑 가자.” 말을 하면서도 옆에 수화기는 어디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어머님께 걸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분 되십니까? 삼성역 사회복지무원 김영현입니다. 아드님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잘 인계하겠습니다.” 어머님과 연락이 닿았다. 어머님은 감사하다 하셨고, 경찰에 인계해달라고 부탁하셨다. 지적장애우 동생과 나는 금세 형 동생 사이가 되어있었다. ‘이제 곧 헤어질 시간이 오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두 분이 오셨다. 아쉽지만 금세 정든 동생을 떠나보낸다.

동생은 가지 않으려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고 차장님과 나에게 손을 뻗어 울었다. “형아...! 아저씨...!” 역이 떠나갈 듯 울며 멀어져서 갔고, 나와 차장님은 집에 가는 거라며 조심히 가라고 동생을 떠나보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네요. 차장님. 저리도 순수한 친구가 또 있을까요...?” “추워지는 겨울에 가끔 오는 친구야...” 비록 한 시간 남짓한 만남이었지만, 마음 한 켠이 뭉클했다. 마치 잠깐에 동생과의 만남이 나의 조금은 얼어붙은 지하철 근무를 사르르 녹이는 따뜻한 초겨울의 햇살일 수도, 나의 지친 어깨에 내려앉은 초겨울의 눈꽃이라 생각했다. 이번 겨울에 다시 동생을 마주치게 된다면 먼저 반갑게 말을 걸고 싶다.

“OO아 또 왔어? 오늘은 형이랑 뭐 하고 놀까?”

▼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근무하는 삼성역은 지역 특성상 외국인 민원 또한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평소 영어 실력이라곤 수능영어에 맞춰진 문법 위주 영어뿐이었다. 현장은 실전이다. 훈련소를 수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당시, 역무실에 근무하며 민원업무를 보기 시작했을 때는 외국인이 문을 열고 역무실에 들어오는 동시에 나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조용히 탄짓을 하기 일쑤였고, 역사 순회 중에 지도를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곤경에 빠진 외국인을 그냥 지나치기도 했다.

얼마 전이었을까? 발매기를 통해 낯선 외국인의 간절한 도움의 목소리가 들렸고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Just a Moment”를 외쳐놓곤 호출한 장소로 뛰어간다. ‘이번엔 또 어떤 문제로 내 회화 실력이 늘어

날까...?’ 주인공은 젊은 외국인이었다. “Can I exchange money?” 표를 사려는데 이 친구는 달러뿐이었다. 달러를 환전할 은행을 찾기도, 직접 어느 정도 사비로 환전하기에도 모호한 상황이었다. 젊은 친구를 우선 역무실로 데려오곤 골똘히 생각해보았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주말에 환전할 곳은 명동에 즐비한 가판대나 인천공항 은행이라는 답밖에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당장 명동까지 갈 차비도 없을뿐더러 강남구 삼성동에서 명동까지는 택시로도 꽤 요금이 나올 것이다. 나로선 한참 실망스러운 오답을 내어 외국인 나그네에게 전해주려던 순간, ‘공항...? 우리 삼성역에도 도심공항이 있지 않았는가?’ ‘유레카!’ 곧바로 도심공항 환전을 검색해보았고 역시나 도심공항 은행을 통해 주말에도 환전할 수 있었다. 또한 코엑스몰에 위치한 7 LuckCasino 카지노를 통해서도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 냈고, 기쁜 마음으로 정답을 내어 외국인 나그네에게 손짓, 발짓 동원하여 전달해주었다. 애쓰는 한국 친구를 보니 감동한 듯 그 나그네는 연신 “Thank you. Bro.”라며 어깨를 두드려주었고 악수를 몇 번이나 했다. 소나기처럼 지나갔던 스쳐 간 대화를 통해 젊은 외국인 친구는 주말동안 멋진 여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에피소드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외국인들과의 스쳐 간 이야기를 통해 마치 목을 축 이듯 영어 울렁증이 달아나게 되었고, 사회복지무를 통해 영어 회화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놀라움의 연속뿐 이었다. 또한 지금의 나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듯 역사(驛舍)를 방랑하는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 안내한다.

“May I help you?”

▶ 안전한 지하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행복나눔천사

안전! 이상 무! 2016년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안전’이라 할 수 있다. 승객 안전을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밤낮으로 노력하는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이 있기에 오늘도 열차는 달린다. 실제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CCTV 감시나 승강장 순회 등 직접적으로 손에 닿는 거리에 위치한 안전과 직결되어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을 통해 근무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숙지한다. 특히 응급상황이 많으면 1주에 한 번꼴로 생기는 지하철 환경이기에 귀 기울여 숙지했고, 실제로 근무 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영향은 지대하다.

출퇴근길 우리는 답장 속에 걸어 들어간다. 열차 내가 냉방장치가 가동되어 쾌적한 환경을 지향하고 있다지만, 앞뒤로 밀려오는 불쾌한 기운은 지우기 힘들다. 또한, 혼잡도가 상당하고 단기간의 늘어난 이산화탄소는 빈혈 환자를 발생시키기에 적임이다.

두려웠다. 언제 어디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근무지이고, 또 내게 맡은 역할이 솔직히 쇠고랑을 찬 듯 무거웠고 막중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선 담담해야 했다. 첫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날이 아직도 뇌리가 박혀 강렬히 기억한다. 열차 내에 응급환자였다. 항상 역무원에게 교육받는 상황이기에 능숙하게 행동해야 한다. 재빠르게 승강장에 도착했고, 응급환자로 인해 정차되어 있는 열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한 건 아닐까...?’ 그러나 환자 위치 전달에 혼선이 있어, 열차 객실을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외쳤다. ‘응급환자 어디 계세요?’,

‘응급환자 어딥니까?’ 이윽고, 다른 승객의 부축을 받으며 쓰러져있는 환자를 발견했다. 침착하게 교육받은 대로 행동했다. 119에 신고를 하고,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현재 나의 1년 남짓 근무 기간 동안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적은 없지만, 지하철에서의 CPR을 통해 골든타임 내에 고비를 넘긴 소식들을 빈번하게 접하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안전 의식을 고취해야 하고, 한시의 끈도 놓칠 수 없다. 다행히 이 환자분은 의식이 있었고, 자신의 지병이 부정맥 환자라 답답한 상황에 자주 쓰러지신다고 하셨다. 오히려 나보다 환자분이 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환자분께 물 한잔 드리고 119에 인계를 하여 상황은 마무리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내가 이 복무기관에 구성원으로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준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마지막 열차가 지나간 뒤에는, 영업 종료를 위해 셔터를 내리기도 하고 혹시 남아있는 승객이 있는지 역사 순찰을 하기도 한다. 이후 당직 근무를 하고 이른 새벽 4:40분쯤이 되어 셔터를 올리고 아침 근무 준비를 하다 보면 역사 내에 역사 방송이 들려온다.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메트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해요 서울 메트로’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시점이 아닐까 하며 생각한다.

‘행복을 나르는 사회복무요원,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하는 사회복무요원...’

해바라기를 찍는 사진가

-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회상하며 -



박 시 문 | 제주시청(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이전과는 다른 느낌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더운 여름에 꽃을 피우는 해바라기도 강한 태양아래 곳곳이 서있다. 후덥지근했던 2년 전 여름만 해도 나에게 두 번이라는 여름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이젠 나의 생활을 차차 정리해보는 시간이 온 거 같다. 나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지난 2년간 나는 카메라를 꾸준히 들고 다니며 내가 만났던 해바라기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담아두었기 때문이다.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해바라기들의 사진을 보았을 때 확연히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사진 속 해바라기들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 해바라기와의 만남

근무지를 정할 때 어디서 근무를 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다. 수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곳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였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등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특히, 지역의 조손·편부모가정처럼 방과 후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처음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갔을 때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라는 문구였다. 혼자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갈 수 있다는 외국속담이 문득 떠올랐다. 요즘처럼 빠른 속도를 지향하는 시대에는 ‘함께’라는 배려와 존중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가지만, 느리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가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은 서서히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해바라기 아이들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센터선생님과 함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정서 캠프에 참여했다. 그 캠프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만났다. 그 때를 회상해보면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어.’라는 무심코 지나간 생각이 미안해진 시간이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가면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해 생긴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조금씩 열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 각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아픔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아이들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들춰보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하며 대해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그저 타이름의 대상이 아니라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체로서 마땅히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캠프에서 아이들과 만나며 부모의 부재, 가정폭력 등 깨어진 가정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캠프를 계기로 해바라기 아이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반성해야할 점들을 남겨주었다.

▶ 해바라기 친구들

작년 추석에 친척집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근처에 지미오름까지 자전거 하이킹을 갔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덩치가 나가는 친구 한 명이 숨을 거칠게 몰아 쉬는게 보였다.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겼다. “선생님 포기 할래요.”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할 수 있어, 같이 가자!”라고 수없이 타일렀다. “이제 거의 다 왔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한 것 같다. 앞서간 친구들도 조금씩 기다려주었다. 포기하겠다는 아이의 만류에도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느낌을 꼭 아이에게 느끼게 도와주고 싶었다. 마침내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속이 훤히 트이는 정상에 도착했다. 보통대로라면 1시간 3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를 3시간을 걸려서 다녀왔다. 우리는 그 친구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하기로 결정했고 기다리며 그 친구를 응원할 수 있었다.

한 명이 나오되어 올라가지 못하면 다함께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아이들도 느낀 것 같다. 가끔씩 축구하자고 전화 오는 친구들, 자전거를 타자고 약속을 잡는 친구들이 내미는 손이 이제는 참 고맙다. 그렇게 나는 아이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아이들과의 만남이 나의 삶에 소중한 의미로 다가왔다. 이처럼 2년에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몸소 배웠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알아간 사실은 주위에 상처 입은 가정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하게 드러나는 제주의 아픔이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이혼처럼 가정으로부터 겪어온 아픔이 너무 당연시되다보니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당연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그럴 용기를 잃은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양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게 됐다. 나 또한 아이들처럼 나름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구순구개열이라는 선천성 안면장애로 인해 초등학생 때 외모에 관한 놀림을 참 많이 받아 자존감이 낮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때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아이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아이들 조금씩 아이들과 깊이 소통해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비교적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 우리들의 사진이야기 사진반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꾸준히 해온 것이 무엇이였을까를 떠올려보면 나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카메라를 늘 들고 다니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모습을 찍어보았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사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카메라를 피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쉽게 비교당하고 알게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다. 평소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 또한 이주 열기로 빠르게 변해버리는 우리 마을, 우리 주위의 소중한 가치를 카메라에 담아보자는 취지에서 ‘우리들의 사진이야기’ 사진반을 시작했다. 처음엔 카메라를 거부했던 아이들조차도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의 모습, 표정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아이들은 깨닫고 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마을의 아름다운 오름과 바다를 거닐면서 우리 사진반은 함께 ‘우리다운’ 작품을 만들어보았다. 잘 나온 사진은 반드시 인화해 액자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선물해주었다. 지난봄에 있었던 사진반캠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함께 웃으며 한바탕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사진반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며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쉽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여전히 소중한 우리자신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해바라기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이라는 프레임 안에 그대로 옮겨놓을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또 아이들에게 큰 축복이었다.

▼ 해바라기 사진가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 없이 보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아이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받은 것, 아이들로부터 배운 것들이 더 많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리지만 이 친구들도 똑같이 존중하고 마주해야할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아야함을 진심으로 느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안목이 조금씩 넓어진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나도 모르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소중한 마음이 생겼다. 함께 사는 세상에서 작은 소수자이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연대하며 목소리를 내며 함께 꿈꾸면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직접 경험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라나는 해바라기였고
나는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찍는 사진사였다.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대상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다. 정해진 대상을 계속해서 찍다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나는 해바라기 아이들의 성장을 관찰하며

때로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여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아보았다. 기억이 희미한 나의 초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 좀 더 또렷이 기억할 수 있는 사진을 선물해보았다. 이곳에 와서 한 명의 선생님으로서의 생활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크다. 선생님으로서 ‘나는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지만 늘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씩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려는 마음만큼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다.

나중에 나의 2년을 되돌아보면 아마 참 즐겁고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 또한 사회복지요원으로서의 시간은 앞으로 사회에 나갈 때 지니고 있어야 할 소중한 가치와 환대의 마음을 선물해 주었다. 이 시간의 교훈을 발판삼아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앞으로 나의 진로를 생각할 때도 늘 ‘어린이’가 따라 다닌다.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큰 비전이 생겼다. 앞으로는 세계의 굶주려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계속 노력해나갈 생각이다. 처음에 “선생님 똥 닦아주세요.”라고 말했던 유치원아이의 말에 당황했던 내가 어느덧 2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다. 앞에서도 아이들에게 받은 게 많다고 표현했는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주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기를 자처하는 멋진 해바라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해바라기들을 축복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카메라 프레임에 담아가고 있는 해바라기의 사진가다.

행복은 바로 옆에 있다



허 태 군 | 부산중구청(광복동 주민센터)

▶ 나눔을 주는 것이 바로 나눔을 받는 것이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힘들고, 짜증났다.

몸이 불편하신 어떤 분의 기부를 계기로, 과연 ‘무엇이 행복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복무에 임하는 태도를 바꾸어 보았다.

나 자신의 편안함만 생각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복무에 임했을 때, 더 이상 힘들지 않았다.

나의 조그만 수고로 줄 수 있는 나눔은 그 무엇보다 보람찼다.

나눔을 통해 나는 보람과 행복이라는 또 다른 나눔을 받았다.

어떤 마음으로 ‘사회복무’에 임하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 패잔병

어둠 밖에 보이지 않았다.

사회복무를 시작하기 전, 나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다. 20대의 전부를 사법시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패배자라는 딱지를 붙였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릴 정도로, 정신이 황폐화된 상태였다. 우울이라는 매듭에 묶인 채로, 그렇게 복무를 시작했다. 전쟁에 패한 패잔병처럼, 세상 모든 절망이 나의 것인 양, 생기 없는 얼굴로 광복동 주민센터에 첫발을 디뎠다.

▶ 나와 상관없다는 착각 속에서

일을 시작한 후에도 우울의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표정 없는 얼굴로 출근했다가, 정확히 시키는 일만 하고 집에 가기를 반복했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사회복지보조’였지만, 솔직히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다. 나의 관심사는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수많은 ‘나’안에 갇혀 주민센터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제 3자의 태도로 방관하며 복무에 임했다. 힘들고, 짜증나고, 외로웠다. 어떠한 소속감도, 보람도 느낄 수 없었다. 당연했다.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에 금을 크게 그어놓고, ‘나’ 아닌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나눠주는 일에 언제나 시큰둥했다.

그 날도 그랬다.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늦겨울 어느 날의

오후였다. 몸이 불편해 보이는 어떤 남자 한 분이 주민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녹음해놓은 오디오 파일을 튼 것처럼 기계적으로 응대했다.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저... 저...”

언어 소통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다. 그 분은 조용히 5만원 지폐를 꺼내며 내게 주었다. 그리고는 간신히, 힘겨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이 돈을... 어려운 분들께... 기부해주세요...”

“네?”

잘못들은 줄 알았다. 내 상식으로는, 나의 인생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여쭙어보았다.

“기부를 하신다구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꼭’이라는 말을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아주 얇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떠나셨다.

▼ 웃음을 되찾은 시간

충격이었다. ‘왜?’, ‘무엇을 위해서?’ 라는 질문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건드려진 것은 분명했다. 나는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후 나의 복무태도가 바뀌었다. 사회복지보조 업무를 하며 기초수급자 분들의 가정에 지원물품을 가지고 가면서도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던 내가,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달해드렸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나의 조그만 수고로 그 짐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마음을 냈다. 마음을 바꿔먹은 후, 광복동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분들께 연탄 나르기를 할 때도, 무거운 쌀 포대를 들고 나를 때도 힘들지 않았다. 기초수급자 분들이 지원물품을 가지러 방문하셨을 때도, 거동이 힘들어보이셔서 직접 들고 가져다 드렸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을 하셔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해서였다.

주어진 업무로든, 내 의지로든 도움을 드리는 분들은 다양했다. 그 모든 분들이, 지팡이의 도움으로 겨우 걸으시는 할머니께서도, 일어나기 힘들셔서 누운 상태로 사회복지사님과 나를 맞으시던 할아버지께서도, 휠체어를 타시면서 제 시간에 약을 드시지 않으면 몸에 마비 증세가 온다는 할머니께서도, 적은 수고로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 정말 셀 수 없이 똑같은 한 마디를 하셨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한 마디였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웠다. 나는 거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나는 옅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행여나 감사하다는 말이 들리지 않았을까봐, 표정으로라도 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 바로 옆에 있었던 답

“모든 것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작가 박범신이 한 TV프로에 출연했을 때 한 말이었다. 많은 시간을 바쳤던 사법시험에 실패한 후, 끝없이 추락한 자존감, 그 후유증으로 왔던 우울감과 좌절감, 패배의식,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기까지 했던 그 시간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곳에서 사회복지무를 시작하며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기 전까지, ‘나눔’을 실천하기 전까지 그랬다.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행복이 혼자만 소유할 수 있는 ‘이기적인 행복’이었다면,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행복은 ‘나눌 수 있는 행복’이었다. 오로지 혼자만 소유할 수 있는 ‘이기적인 행복’은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졌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것을 잡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지만 그것을 쫓는 과정에서 나의 몸과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갔다. 마침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 거대한 벽에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이곳에 길이 있었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지금 이 곳에서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있지 않았더라면, 소유가 아닌 나눔을 통해 함께 행복한 것이 더 충만한 울림을 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하는 그 분이 없었다면
여전히 앞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벽을 보며 절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분이 계셨기에 비로소 나는 옆을 바라볼 수 있었다.

고개를 돌리니 비로소 ‘나눔’과 ‘행복’이 보였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회복지’라고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겨우 사회복지무요원이라거나, 사회복지 ‘보조’ 업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광복동 주민센터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며, 나 스스로가 사회복지사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 일하다 보면 복지 관련 일뿐만이 아니라, 동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한다. 팩스 민원이나 서류 정리를 도와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관광에 특화된 광복동의 특성상, 유모차 대여 및 무거운 물품을 보관해드리고, 미관을 위해 꽃 심기 및 거리 청소를 하는 일에도 함께 참여한다. 나의 편안함만을 생각했을 때 ‘내가 왜?’라는 생각과 함께 짜증부터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광복동의 아름다움에, 주민들과 관광객 분들의 안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지금 이 곳에는 완전한 봄이 왔다. 거리에는 우리가 심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미소를 짓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많은 분들과 내가 함께 가꾼 이 아름다운 거리를 보며 나 또한 미소 짓게 된다. 나는 밝아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주 웃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랄 정도다.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금보다 더 살아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따뜻한 봄기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예전의 나 자신이, 비로소 ‘희망’이라는 빛을 보게 된 지금의 나에게 묻는다.

‘왜?’

‘무엇을 위해서?’

나는 대답한다.

“더 행복하니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한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도, 성실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앞만 바라봤을 때는 알 수 없었다. 옆을 돌아봤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그곳에 행복이 있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과 함께이기에 ‘나’로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조직을,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할 때 비로소 빛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유가 아닐까?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 자신이다. 보람과 행복이라는 더 큰 가치를 그 많은 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니까.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도움을 드린 모든 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날아라 병아리

강 민 우 | 제주시청(빛과소금 지역아동센터)



▶ 선생님의 꿈

“굿바이 알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신 선생님이 있다. 그 선생님은 우리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래를 틀어 주셨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바로 ‘날아라 병아리’이다. 이 노래와 열정적인 선생님과 추억으로 인해 나는 초등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다. 이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여 나는 초등음악교육을 전공하였고 2014년 초등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다. 그리고 그해 5월 발령이 났다.

▶ 병아리와 만남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학교라서 내가 기대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미술 시간에 재즈 음악을 틀어주었고, 하교 시간에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곡을 같이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마치 병아리 같아 보였다.

하지만 모든 학교생활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학생이 있었다. ADHD 판정을 받은 아이 A.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집중 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 처음에는 혼을 냈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A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닌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 A와 대화를 나누며 처음 들어보았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 너무 궁금해 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국방의 의무를 시작해야 하는 2015년이 되었다. 모집 기관 목록을 살펴보던 중 ‘빛과소금 지역아동센터’를 보게 되었다. A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생각이 났고 나는 바로 지역아동센터에 신청을 하였다. 도대체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 핸드벨, 동영상, 성공적

지역 아동 센터에서 근무해보니 A가 왜 학교보다 센터에서 행복한지 알 수 있었다. 학교에 근무했을 때 작은 학교라 업무가 많아서 아이들에게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줄 수 있었다. 학습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1:1로 도와 주었고,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뛰어놀았다. 수요일에는 나가서 아이들과 티볼을 했다. 아이들과 팝콘을 먹으며 영화도 보았다. 방학에는 아이들과 전통놀이를 배우기도 했다. 이런 일을 교사도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일이 많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지 못한 내가 한심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발표회를 준비했을 때다. 우리 센터에서는 매해 12월 센터에서 배웠던 곡이나 아동들이 따로 연습을 해서 발표회를 연다.

어느 날 센터장님이 발표회 회의를 하시다 한숨을 쉬셨다. 매해 발표회를 보면 음악을 잘 하는 아동들은 곡을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즐거워한다. 하지만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거나 음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발표회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걱정이라고 하셨다. 모두 고민하고 있던 차에 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던 요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찾았다.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핸드벨을 하는 것은 어떨까? 바로 계획을 만들어서 몇 명을 뽑았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아이들과 핸드벨을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힘들어 했다. 게이름이 써진 악보를 나누어 주었으나 어려워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좋은 생각이 났다! 게이름에 색을 입혀 아이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은 어떨까? 센터에 있는 핸드벨은 도는 빨간색, 레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게이름마다 색이 다르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악보에 표기된 게이름을 여러 가지 색으로 써서 보여주었다. 도는 빨간색으로 칠해서 주었고 레는 초록색으로 칠해서 주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훨씬 이해를 잘했다. 피아노 반주도 연습을 했는데 피아노

반주하는 학생이 없을 때에는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었다. 피아노 반주를 하며 아이들과 곡을 맞추어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내가 꿈에 그리던 생활이었다. 내가 5학년 시절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음악을 하는 일.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악기를 하지 않는 모든 학생을 핸드벨을 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아이들과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북극곰아’라는 곡을 정해서 아이들과 동영상을 만들었다. 노래 가사에 맞는 그림을 아이들이 그리면 그 그림으로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유튜브에 많은 예시가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했고 센터에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여 영상을 만들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아이들은 쉬운 가사를 주어 그리게 했다.

그렇게 발표회가 다가왔다. 발표회에 악기 연주로 참가하지 못한 아동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은 달랐다. 아이들이 만든 동영상이 발표회에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음악을 못해도 아름다운 발표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것이다! 아이들이 만든 동영상을 발표회 마지막에 틀어주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다. 자신들이 만든 그림이 들어간 영상을 보니 너무 좋아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다. 2016년 발표회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

▶ 탐라에서 고려를 보다

겨울방학에 센터장님이 제주 지역에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연합을

하여 사업 하나를 진행하였다. 탐라에서 고려를 보다. 바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통해 아이들이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는 캠프이다. 제주에는 삼별초와 관련된 장소가 많이 있다. 이곳에서 아동들이 탐라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이 캠프의 목적이었다. 나도 아이들에게 방학동안 고려사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동들도 있지만 역사에 관심이 없는 아동들이 더 많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림을 통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고려에 관한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주려고 노력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정말 좋아했다. 역사에 관심이 없었지만 스토리텔링이라 좋아하는 아동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를 재미없어 하는 아동이 많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스토리텔링도 좋지만 다른 활동도 생각을 해야겠다. 정적인 역사 수업이 아닌 동적인 역사 수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겨울이었다.

▶ 또 다른 병아리

센터에 익숙해질 때 쯤 중학생 B를 알게 되었다. 중학생이라 그런지 센터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 중학생이라 센터에 오기 싫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B는 12월 초부터 센터에 나와 기타연습을 했다. 도대체 B는 어떤 아이일까?

B는 동생 4명과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게임에 빠져서 살았다고 한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늦게 자서 학교에 가다보니 센터에 올 시간에는 거의 눈이 풀려있었다.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센터에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B의 눈이 반짝일 때가 있다. 바로 기타를 연주할 때이다.

▶ 병아리의 꿈

발표회 이후 B와 이야기를 해 보았다. 2016년 올해, B는 중학교 3학년이다. 중학교 3학년이 되니 공부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욕을 보일 때는 공부가 아니라 기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였다. B의 꿈이 궁금했다. B의 꿈은 무엇일까? B는 꿈이 없다고 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타였다. 기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했다. 확실한 꿈은 없었지만 기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했다. 대견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이 너무 대견했다. 도와주고 싶었다. 밴드를 하고 있기에 나는 이 아이에게 기타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대화를 계기로 B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이 아이가 진짜로 연주하고 싶은 것은 일렉트릭 기타이다. 하지만 센터에 있는 것은 어쿠스틱 기타였다. 저번 발표회도 어쿠스틱 기타로 했다. 센터장님이 이곳저곳 찾아보시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이라는 곳을 알아오셨다. 다음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개인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곳이다. 이곳에 나는 B의 상황과 함께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써서 올렸다. 그리고 2016년 4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으로부터 기타와 앰프를 받게 되었다. B는 요즘 공부도 하고 기타도 연습하기 위해 센터에 자주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일주일에 1번 나오던 아이가 이제는 일주일에 1번 정도 빼고 다 나오고 있다. 아직 B의 눈이 초롱초롱하지는 않지만 곧 눈에서 생기가 돌기를 기대한다.

▶ 날아라 병아리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다면 A도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 서도 행복했을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기 전 나는 아이들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교사의 입장에서 교실의 규칙을 어기는 아이들이 답답하고 화가 났다. 하지만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이런 아동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말이 없게 만들었을까? 왜 이 아이는 선생님에게 반항할까? 왜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을 못살게 굴까?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는 지금 나는 대학을 다닐 때 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한다. 대학에서의 4년보다 사회복지원으로 있는 지금이 나의 교육 철학과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날아라 병아리’곡에서 병아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죽은 뒤의 일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꿈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한 병아리들이 살아있을 때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내 병아리들이 커서 꿈을 펼치며 하늘을 날 수 있게.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이 체험 수기를 쓰고 있다. 아이들이 빨리 학교를 마치고 센터에 왔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



마음을 나르고 정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 준 혁 | 서귀포시청(동부종합사회복지관)

▶ 같은 곳에서

어느 순간 당연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순간이 있다. 나는 사회복지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전 윤리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다. 항상 공부도 열심히, 학생들을 자주 접하기 위해 교육봉사도 자주 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나의 삶과 나의 미래에 대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나 스스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같은 곳에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나의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사회복지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고 나는 매일 보던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아닌 동네 어르신들의 신문을 보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나지막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

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한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매일 복지관으로 찾아온다.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 매주 반복되는 일과는 자연스레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월~화요일에는 지역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목욕봉사를 갔고, 수요일에는 제주의 반 바퀴를 돌면서 200가구가 넘는 곳에 식사를 배달했다. 목요일에는 수거한 도시락을 세척하고, 금요일에는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루를 보냈다.

몸에 익어서 너무 쉬운 일도,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서 하기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정말 사람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때때로 날카로운 어르신들을 만나 모난 말쑤에 상처를 받기도하고, 어느 날은 마음씨 좋은 어르신이 웃으며 달래주셨기에 나는 일이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한걸음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 보고 싶은 그 사람

나는 배달이 좋았다. 아름다운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배달을 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오후 해가 뉘엿뉘엿 할 때까지 해안도로를 달리며 배달을 하곤 했다. 나도 배달 지리에 익숙해져 갈 즈음 지역의 어르신들도 나를 귀여운 강아지처럼 예뻐해 주셨다. 어느 할머니는 비가와도 항상 문 앞에 나와 반겨주시고 춥지 않느냐며 누군지도 모르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셨다. 매번 나를 아껴주시는 할머니가 나도 너무나 좋았고, 복무요원을 하면서 정말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한 경험이었다. 추운 날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생각에 몇 번이나 다시 끓이고 있던 커피포트에서 타주시는 할머니의 커피는 힘든 업무도 잊게 만들었다. 잠시동안 복지관의 사정으로 몇 주간 봉사자가 바뀌어서 아주 오랜만에 할머니를 찾아 뵈었을 때 할머니는 반가움보다 아쉬웠던 얼굴로 말씀하셨다.

“무사 안와시냐! 다른 사람들은 큰큰하고 막 무서워 얼굴도 곱져부렸져!” 왜 오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 문도 열지 않았으며 손에 꼭 쥐고 계시던 음료수캔 하나를 주셨다. 할머니는 이제 한번이라도 더 보아서 뵈었다며 늙은이가 이제 살면서 기억에 안고 갈 예쁜 손주가 생겼다고 고맙다 말씀하셨다. “할머니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식사 잘하시고 계시죠?”라고 말하면서도 어디선가 나오는 뭉클함이 나를 두근두근하게 했다.

나를 기다리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토록 눈물이 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번 외진 곳까지 찾아오는 어린 손주 같은 모습이 더 중요한 마음배달이라는 것을 알았다. “보고 싶었다.”는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값진 말인지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마음을 배달하는 사람이 분명할 것이다. 꾸준해지고 싶었다. 기다리는 분들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음을 알기에 비가와도 눈이 와도 항상 내가 찾아뵙고 싶었다. 이렇게 꾸준함을 배우고 있었다.

▶ 가지마세요. 여기에 남아주세요

마음이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집집마다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좋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혼자 지내시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온 분들을 만날 때는 나도 조심스러워 진다. 대상자인 할아버지는 전에는 좋은 집에서 멋진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배달을 갈 때는 항상 소리를 지르고 내가 싫다며 배달도 원치 않으신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감정소모가 심한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어느 날은 입구에 도시락만 두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나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마음이 많이 아팠다.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집을 떠나 병원으로 가셨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많이 아프셨고, 혼자서 끼니도 거르며 사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먹지 않아 상해버린 도시락 통을 수거하고 돌아가면서 무거운 몸과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부담스러웠다. 어쩌면 내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한번이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나를 싫어한다고 소리치던 그 모습이 고독에 힘들어하는 할아버지가 내는 마지막 목소리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아프다고 소리치기 전에 나는 알아챌 수도 있었다. 그 이후에 나는 모든 분들께 한 번 더 이야기를 건넸고, 그렇게 나는 잠시나마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배웠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가지마세요. 이곳에 오래도록 남아주세요.

▶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

조금씩 사회복지무원으로서 나는 어르신들의 정을 느끼고 그 깊은 연륜에서 오는 마음을 전달받고 있었다. 목욕을 도와주는 한 번의 손길,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반찬 내가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마음을 주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나는 마음으로 일하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매일 같은 과업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왜 해야 하는가 보다는 일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다. 점차 내가 느끼는 나의 세상도 변화하고 있었다.

새로운 만남은 신선한 충격을 주듯이 ‘이동 경로식당’을 하는 일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했다. 매주 마을 단위로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식당 사업 진행을 도우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다. 마을마다 도와주시는 많은 봉사자가 있었고, 그분들을 돕는 다른 지역의 단체와, 봉사를 원하는 많은 기관이 모여서 매주 하나의 팀이 이루어졌다. 아침 일찍 마을 경로당으로 어르신을 모시러 가는 자동차, 어르신이 도착하면 안내하는 직원들, 대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혈압, 당뇨를 체크해주는 보건소까지 매주 많은 분들이 마을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어르신 분들은 매주 와주어 너무 고맙다며 우리를 반겨주셨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모두 감사하다. 고맙다며 우리가 해온 일들보다 너무나 과분한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들이 너무나 많다.

“밥은 집에서 대충 먹을 수 있지, 하지만 여기는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먹으러 오는거야. 대화를 먹는거야”

나는 몰랐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식사보다 사람이 고프고, 쌀보다 대화가 필요한 것을. 어린 나이지만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이라고 깊게 느낀 경험들이었다.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너무나 길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끝나고 나서는 뿌듯하고 스스로 대견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사회복지요원으로서의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한 봉사라고 느껴졌고 나는 봉사의 대가보다 더욱 값진 경험을 선물로 받고 있었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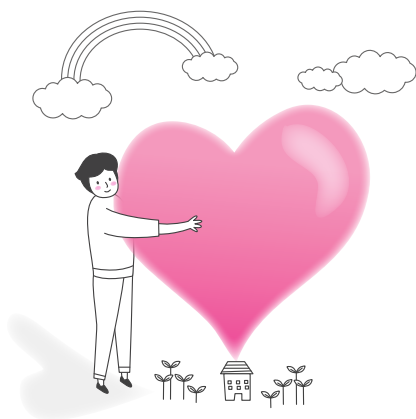
▶ 사랑을 나누는 학생이 되거라

그리고 꿈이 생겼다. 많은 것이 변했다 나는 미래의 교사로서 항상 같은 그림을 그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 수업에 충실하고 아이들의 진로를 굳게 잡아줄 수 있는 교사를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윤리인지, 가까이 다가가서는 어떤 것이 도덕인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항상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마음 따듯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짧지만 깊은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다. 사람이 가장 뿌듯한 때는 자신이 쓸모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일 때 가장 행복하고 힘이 솟음을 느낀다. 아이들에게 내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겪어온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꼭 봉사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고 싶다.

다른 방식으로 군에 복무하는 2년의 기간은 모든 사회복지요원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나에게 있어서 미래의 길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해답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자신만이 중요한 것보다 주위의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배웠다. 내가 봉사하는 이곳에서 나는 언제나 ‘예쁘고 착한 도시락 학생’일 것이고 이 경험이 나를 이끌어 주었을 때 ‘마음을 나누고 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게 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싶다.

“항상 사랑을 나누는 학생이 되거라.”



관심을 주세요

조 용 빈 | 금당지역아동센터

▶ 아이들과 지내며 알게 된 두 글자 ‘관심’

대한민국 남성들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금 나는 대한민국 사회복무요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고등학교 때 ‘기흉’이라는 수술로 인해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고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복무로 지내고 있다. 2014년 9월 1일 한 달 간의 훈련소를 마치고 근무할 금당지역아동센터를 갈 때 모습과 긴장감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두세 번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과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첫 출근을 하여 처음 만나는 선생님들과 인사를 한 후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업무 및 규칙들을 설명 받았다. 아동센터에서의 주 업무는 아이들 학습보조와 다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관찰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생님들과의 이야기를 마친 후 드디어 첫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아동센터로 왔다. 처음 본 내 모습을 보고 낯설어 하며 인사를 하던 그 아이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희수(가명)는 가방을 두고 나에게 다가와 “선생님, 저랑 이거 해요.”라고 하며 보드게임을 건넸다. 희수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는 희수의 모습을 보니 참 아이들은 천진난만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게임을 하며 하나 둘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다. 아이들 모두 나를 신기해하고 낯설게 쳐다보며 “누구세요? 선생님 어디서 왔어요?” 호기심 가득한 말 뿐 이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계층 등 각자 집안 사정이 있는 아이들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집안사정이다. 이런 집안사정보다 아이들을 지켜보며 아이들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이들을 향한 ‘관심’이었다.

집안사정이 어떨든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든 아이들을 향한 관심이
그 아이의 성격과 행동을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는 동안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배운 ‘관심’이라는 두 글자는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한 교훈이었다.

▼ “왜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루하루 아이들과 지내는 생활이 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선생님, OO이가 놀려요, 때려요”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그럴 때 일수록 최대한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아이들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으로 다짐한다. 어릴 때 누구누구 같이 장난을 쳐도

선생님이 이따하는 아이는 적게 혼나고 다른 아이는 많이 혼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아이들에게 사건이 터졌을 때 항상 두 아이의 입장을 통해 누구를 혼낼 것인지 판단한다. 이러한 나날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몇 번 씩 일어나는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수진(가명)이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선생님 수진이가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제 물건을 가져가요”, “수진이가 놀리고 때려요” 하루 몇 번 씩 등장하는 이름이다. 항상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도 수진의의 잘못이 컸다. 수진은는 항상 혼나도 같은 짓을 되풀이 하고 자기가 조금만 불리 하거나 아이들이 단체로 비난을 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처음 수진을을 혼낼 때도 갑자기 눈물을 흘려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내 면역력이 생겨 수진이가 울어도 나는 끝까지 혼을 냈다. 수진의의 이런 행동이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괴롭히면 친구들이 너를 싫어하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지만 수진은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차별 없이 아이들을 돌보자’라는 나의 생각이 점점 무뎌져 항상 수진이에게만 차별하듯이 더욱 혼을 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크게 사건이 터져버렸다. 수진이가 센터에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지 않고 혼자 다른 짓을 하며 눈에 띄었다. “너는 왜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니?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듣는 태도가 그게 뭐니” 나는 다짜고짜 수진이에게 화를 냈다. 그런데 갑자기 수진이가 울기 시작하며 “선생님은 항상 제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혼내기만 하세요. 오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속상한데 여기서도 저는 선생님한테 혼나고 대체 저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수진이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수진이는 어린 아기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고모네 집에서 자랐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 때부터 고모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와 수진이는 사랑이 부족했다. 그래서 사랑을 원하고 관심 받기를 위해 말썽꾸러기처럼 친구들에게 장난을 쳤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몰라서 항상 심술궂게 행동을 하였다. 그런 수진이에게 나는 관심이 아닌 야단으로 혼을 냈던 것이다. 수진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을 가졌더라면 수진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아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자’라는 다짐을 어긴 것이다. 그 후로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수진이가 오면 “오늘 학교에서 점심은 뭐 먹었니?” 먼저 이야기를 하며 수진이에게 다가갔다. 수진이는 항상 나의 질문에 짜증이 아닌 환한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이처럼 아이를 울음에서 웃음으로 만들고 조금씩 변화시키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조금의 ‘관심’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 후 아이들이 올 때 마다 먼저 다가가 물어본다. “오늘 학교에서 뭐했어?”

▼ 관심을 보이고 다가가면 돌아오는 더 큰 관심

“너 군대 어디로 가?” 20살 때 친구들과의 주된 이야기 중 하나였다. 그럴 때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이야기 하는 내가 마치 죄를 지은 듯 당당하지 못하였다. 그저 남들과 다른 신체적, 정신적 차이일 뿐인데 그것이 틀린 것 마냥 인식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또한

자주 보이는 사회복지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사건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모든 사회복지무원들이 그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군대 안가고 편하게 지내는 사회복지무원이라는 이미지,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어차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 실제로 해이한 마음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원들. 나는 이게 너무나 싫었다. 그래서 나는 보여주고 싶었다. 2년이란 시간동안 나의 행동으로 내 주위 사람들만이라도 사회복지무원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남들과 똑같이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맡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내가 일하는 곳에서의 사람들과 화합이 잘 되도록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무원인 친구들에게서 듣는 이야기 중 자주 들리는 것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인지 친구들은 자신의 일에 소홀하고 더더욱 사이는 좋아질 수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맡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분명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나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했다. 다행히 선생님들은 사회복지무원이라는 인식이 아닌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나를 대해주고 때로는 아들처럼 잘 챙겨주셨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그에 맞는 근무 환경을 제공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도 감사했다. 그래서 나는 소양교육에서도 표창장을 받으며 열심히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해 아동센터이름을 한 번 더 알려서 선생님들도 기뻐했다. 그리고 아동센터장님은 나에게 항상 “사회복지무원으로 있는 2년간 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다보면 변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라며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현재 한국사 및 컴퓨터 자격증과 헌혈표창장, 봉사

등 여러 가지를 이뤘다. 이러한 내 모습을 본 주위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함부로 사회복지무요원들의 나쁜 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먼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다가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배려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배웠다.

▼ 우물 밖 개구리로 나아가는 2년간의 시간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일하며 실제 사회로 나가기 전 작은 사회를 경험하듯 너무나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로 다시 한 번 내 마음가짐을 되돌아본다.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따지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고 행동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아이들을 대한다. 또한 선생님과 지내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 준 시간을 통해 성장해 가는 내 모습을 보았다. 약 2년간의 사회복지무요원은 남에게 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경험하지 않은 그 사람들 생각이다. 사회복지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곳이다. 내가 일하는 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근무지들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과 장애인, 그리고 사람들의 민원을 돕는 곳이다. 어느 한 곳이라도 쓸모없는 곳이 아닌 우리 사회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롭다. 얼마든지 내가 사회복지무요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부끄러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다짐한 마음가짐을 실천하면 분명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사회복지무요원이 끝나더라도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에 ‘관심’을 가지면 분명 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배웠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남에게 관심을 주고 나에게 관심을 주는 ‘관심을 주세요.’라는 이 한 문장은 2년 간 배운 값진 경험이자 나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큰 사랑이라는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나는 아동센터에 출근을 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무요원이다.



하은, 경은이에게 배웁니다

- 경은학교가 내게 가르쳐 주는 것 -



신 하 은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은학교)

경은이가 누구냐구요?

경은이는 제가 복무하고 있는 경은학교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마치 여자 친구처럼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저는 경은학교에서 많은 경은이를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경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대학교를 휴학했지만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이는 “오, 요즘 사회복지요원 근무하면서 공부도 하나?”라 말하며 대체 복무를 이행 하면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모범 대학생이라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오 짜식, 학교에서 근무하는거야~? 편한 꼴 근무지네~”라 말한다. 그렇다 눈치 챌겠지만 나는 학교에서 근무 하는 사회복지요원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면 좋은 점이 예쁜 선생님들과 함께 화사하게 근무하면서 예쁜 학생들과 오순도순 둘러 앉아 책보며, 바쁜 업무 속 가끔은 점심시간에 예쁜 학생들이 ‘ 쌤 멋있어요!’라며 사다준 달콤 짭짤한 아메리카노를 한손에 든 채, 따사로운 햇살과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 가득한 교정을 천천히 거닐면서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건지, 여유를 마시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행복함에 만족하는 나날을 보낼 수 있다. 라고 인터넷에서 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의 근무지에 대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경은학교에도 있는 예쁜 선생님들과 함께 비록 수업시간, 쉬는 시간 구분 없이 바쁘게 근무하면서 예쁜 학생들과 오순도순 둘러앉아, 책을 찢는 자폐성향을 가진 예쁜 학생의 손을 찢지 못하게 옆에서 꼭 잡아준다. 그리곤 매일 바쁜 업무 속 가끔은 점심시간에 예쁜 부장선생님께서 “고생 이 참 많아~”라며 사다주신 달콤 짭짤한 아메리카노를 한손에 들고 얼른 따사로운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화장실에 가, 한 손으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아메리카노가 쓴 건지 너무 많이 싸 밍지만 귀여운 똥 기저귀가 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기저귀가 발명된 것에 감사하는 나날을 보낼 수 있다.

▶ 경은이를 처음 만난 날

아, 이제 우스갯소리는 그만하고 정식으로 내가 근무하는 학교를 소개 하겠다.

나는 경기도에 위치한 공립특수학교인 경은학교에서 근무한다.

2015년 1월,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2월6일 경은학교로 배정 받는 그 첫날을 잊지 못한다.

영화 해리포터를 보면 주인공들이 극 중 ‘호그와트마법학교’에 입학해 기숙사를 배정받는 장면이 나온다. 말을 하는 요상한 마법의 고깔모자를 쓰면 그 모자가 각 인물에게 어울리는 기숙사의 이름을 외친다.

주인공 해리는 모자를 쓰고 배치를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기숙사를 계속 주문한다. 이윽고 마법 고깔모자는 말한다.

“음..... 해리는..... 그리핀도르~!”(그리핀도르 : 마법기숙사의 한 종류)

그렇게 해리는 원하던 곳으로 간다.

마치 영화 속 이 장면처럼 그날 지역 교육청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모여 기대감과 궁금함으로 각각 일선 학교로의 배치를 기다린다.

난 마음속으로 “경은학교만 아니면 돼”라 마법을 걸고 있었다.

경은학교는 경은초등학교도, 경은중학교도, 경은고등학교도 아닌 경은학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성인 취업반인 전공과 과정 까지 다 있는 종합학교인 경은학교는 우리 지역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로서 전교생이 다 장애 학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곳으로

소문나 다들 기피 대상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곳에 가야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나다.

나는 그렇게 그날 경은학교로 가게 됐다.

▶ 처음 만난 경은이

첫날 내가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 즈음이었다. 학교를 여기저기 돌며 정신없이 인사를 하고 경은학교에서의 첫 점심을 먹기 위해 교내식당에 들어갔다.

그 식당에서 난, 보통 학교 식당에서 잘 듣지 못하는 소리와 잘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마주했다.

편식이 하고 싶어 ‘으양’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먹기 싫은 고집을 표현하면서 ‘짹’하고 식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소리, ‘쿵’하고 책상에 머리를 박는 폭력적 행동의 소리, 심한 섭식 장애로 음식물을 ‘튀~’하고 뱉어내는 소리, 교출 행동으로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다다다’ 밖으로 달려 나가는 소리, 선생님들이 씹는 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가위손’이 되어 반찬을 잘게 자르는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 이 광경들을 보며 놀라 내가 작은 눈을 크게 뜨고 있을 때 째름 선임이 다가와 내 귀에 속삭였다.

“오늘은 점심 식사 지원 배정을 안 받아서 혼자 먹지만... 내일부터는 다 내가 먹여주고, 지원해 줘야 할 아이들이야 잘 봐둬..

나는 그날 집에 와 심각한 표정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근무지 옮기는 법’을 검색 해봤다.

▶ 그렇게 3월에 만난 두 경은이

그렇게 마주한 경은학교에서 2월 동안 매일 새롭고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듣고 선임들과 선생님들에게 배우며 경은학교에 대해 점점 알아갔다.

그리고 다가온 3월, 3월은 아이들도 설레고 나도 설레고 모두가 설레는 새 학기다. 나도 학생지원 일과표를 받아 본격 나의 경은학교 복무가 시작되었다.

나의 하루는 무겁게 시작된다. 나는 아침 통학버스에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들어서 내려 휠체어에 태워 교실로 데려다 준다. 아이들을 들 때 무거워서 힘들다. 그리고 하교할 때 역시 버스로 태워주는 일을 반복한다.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을 도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주로 학생들이 심한 자폐증, 지적장애, 뇌병변, 과잉행동장애 등 증상도 제각각 심하다 보니 때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이해 할 수 없는 표현들과 폭력적인 행동들을 받아주다 보면 내 정신도 없고, 선생님께서 진도 나갈 시간도 없다. 그럴 때면 특수학교는 보육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의 신변처리를 한다. 신변처리는 학생들이 대소변 실수를 할 때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는 일이다. 나는 이일이 유독 힘들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시각적으로나 청각적

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적나라한 더러움이 나를 힘들게 했다.

또 점심시간에는 손이 아플 정도로 잘게 여러 번 가위질을 하며, 안 먹는 아이, 못 먹는 아이를 일일이 먹여주면서 동시에 내 밥도 먹어야 해 바쁘고, 또 내가 나쁜 편식 습관을 고치기 위해 골고루 먹이는 씨름을 하는 것이 골고루 건강한 똥을 싸버리는 나의 신변처리 업무로 이어져 버리니 먹이기 싫은 나쁜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다.

나는 그날 집에 와 오랜만에 심각한 표정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근무지 옮기는 법’을 또 검색해 봤다. 그 해 3월에 만난 경은은 바쁘고 여전히 적응이 잘 안되는 3월의 첫 번째 경은이었다.

그렇게 가장 바쁜 3월, 그 3월의 어느 날 나는 내생에 가장 아픈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정확히는 3월16일, 그날 나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새로운 경은을 만난 지 이제 갓 2주가 지났을 때였다.

그리고 그렇게 그 가장 아픈 때에 내 곁에 다가온 두 번째 경은을 잊을 수 없다. 사회생활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한 외동아들 상주의 작은 장례식장에 경은학교 선생님들이 따뜻한 위로를 많이 채워주셨다.

아직 훈련소 뽀빠머리 스타일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이제 갓 경은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지 한 달 좀 넘은, 쉽게 말해 아직 그리 친해지지도 (?) 않은 사회복무요원의 슬픔에 정말 많은 경은학교 교직원 선생님들이 위로를 보내주셨다. 심지어 교장선생님까지... 그렇게 많은 경은의 선생님들이 왔다 가시고,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내 가슴속 깊게 와 닿는다.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어찌 그렇게 마음씨들이 고올까.. 가장 졸병을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그렇게 3월, 나에게 힘들고 적응 안 되는 업무로 다가온 경은과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의 위로라는 두 개의 경은이 다가왔다.

‘나는 그저 말단 졸병 사회복지무원인데.. 경은학교를 피하고 싶었던 사회복지무원인데..’

내가 경은을 생각했던 것에 비해 경은이 나에게 보여준 그 과분한 정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날 나는 경은학교 선생님들이 채워주고 간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배웠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래 경은을 사랑하자’

▶ 경은이가 가르쳐 준 것

선생님들의 마음을 느끼니, 경은의 멋진 선생님들이 보였다.

그동안 내 주어진 업무만 보느라 미처 보지 못했었다. 사랑스러운 제자인 장애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니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챙기며, 사회복지무원들을 아들처럼 동생처럼 챙겨주시고, 제자들을 위해 교재와 교구를 연구하고, 수업을 고민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는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나는 처음에 장애 학생들을 그저 내 업무의 대상으로, 동정과 연민의 편견의 눈으로 봤다. 부족하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했다. 못 걸으니까 같이 안가도 되고, 못 먹으니까

덜먹어도 되고,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소통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달랐다.

못 걸으니까 걷는 법을 함께 천천히 걸으며 가르쳐 주고, 못 먹으니까
더 잘게 잘라주고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손짓, 몸짓으로 소통했다.

그런 선생님들을 보고 나니 이제 나도 내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보였다.
비록 나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지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어렴풋이 경은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그 참된 진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아침에 무겁게만 느껴졌던 아이들에게서 표정이 보였다. 통학
버스에서 이른 아침부터 가만히 앉아서 오다보니 다들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다.

그 아이들을 웃기고 싶었다. 통학버스에서 내려줄 때 아이들에게
‘송~’하면서 마치 비행기 태우듯이 휠체어에 내려줬다.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

수업지원 때 날 때리려고 손을 뻗치는 학생의 손을 그저 피하고, 못
피하면 아파서 짜증났었다. 그런데 그 손에 하이파이브를 해봤다.

“ 짹 ” 두 손이 마주 하니 박수 소리가 났다. 그 경쾌하고 맑은 소리에
날 때리려는 폭력적인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와 여러 손장난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그 학생이 좋아
하는 행동을 따라 해줬다. 이제 그 학생과 나의 인사는 하이파이브다.

날 보면 인사해주러 달려와 주는 그 모습이 참 예쁘다. 점심지원 때 ‘아~’하고 입을 벌리게끔 하면 내 입도 텅달아 ‘아~’하고 벌어진다.

맛있게 골고루 먹는 걸 도와주고 나면 신변처리 지원 때 맛있게 먹은걸 골고루 찐다. 그럼 시원하게 싸고 나오면 더 가벼워지니까 더 높게 안아 줄 수 있다. 높은 곳에서 활짝 핀 웃음꽃이 더 예쁘다. 장애학생들, 나의 경은이들은 이제 더 이상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아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이라는 텃밭에 심어져 활짝 꽃 필 소중한 씨앗들이다.

이제야 보인다. 경은학교에서 제일 어리고 귀여운 막내

유치원 경은이에서 이제 제일 어리지는 않지만

제일 예쁜 초등학교 경은이, 중2병보다 의학적으로 더 힘든 병일 지라도

씩씩한 중학교 경은이, 이제 경은에서 제일 의젓한 고등학교 경은이,

멋진 사회로 나아갈 자립을 꿈꾸는 희망찬 전공과 경은이까지 !

▼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의 진짜 의미

나는 사회복무를 하기 위해 대학교를 휴학했지만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아니, 학교에서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렇다 처음의 나는 학생들이 장애인이라서, 잘못 걸어서, 말을 잘 못 해서, 많이 도와줘야 되서,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과잉행동이 있어서, 힘들어 했었다.

그러나 정작 나를 힘들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장애인이라

는 편견을 가진 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나의 업무로만 느껴서 힘들었던 것이다.

그 업무와, 복무, 그리고 의무라는 그 수동적인 것에서 경은이 가르쳐준 사랑을 배웠더니 내가 수행해야 할 멋진 능동적인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나는 공부하고 있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곳은 바로 경은이다.



그 길에 그 얼굴들

- 가까이 다가선 지역사회의 모습 -



손 병 훈 | 수서종합사회복지관

▶ 파면 (波面)

눈이 내려 길이 조금씩 희게 바래지던 1월의 어느 날이었다. 새까만 조끼며 코트로 몸을 싸매고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러 나오자, 어느새 쌓인 눈 때문인지 집 앞의 포장된 개울 길은 조금은 자박거리며 내 발을 살며시 끌어 당겼다. 아마도 내가 겨울 내내 꿈꾸듯 침잠해있던 것도 그러한, 눈이 조금 내렸다가 옷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그저 잠이 부족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소한 까닭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잡념으로 뒤숭숭한 채 멍하니 발을 놀리다보면 어느새 수서역에 내려, 6단지 아파트를 지나서 구립문화센터에 도착한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를 비우고 조금 마른 숨을 내쉰 뒤 독서실에 들어간다. 그것이 내 근

몇 년간의 일상이었고 분명 그날도 그랬어야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사회복무소집일자는 2월 5일 9시입니다.”

당시 나는 휴학 중이었다. 꿈 때문인지 변덕 때문인지 목표하는 학과만 세 번을 바꿀 정도로 오락가락 하던 때도 있었지만 한 번 과를 정해 들어와 공부를 시작하자, 초심자다운 즐거움과 함께 신의칙이니 선풍기니(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다.) 죄형법정주의니 하는 온갖 배움에 깊이 빠져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열의도 한 때요, 풍파와 같은 배움이 조금씩 익숙해지자 마침내 어머니의 가사와 별이와 우리의 빛... 애써 눈 돌리던 내 삶의 무게들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그리고 배움을 살려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깨달았다. 어영부영, 갈팡질팡 살아온 내 인생도 마침내 그저 시대의 물결에 올라탄 것이리라고. 그저 그 뿐일 것이라며 텅텅히 순응하고, 침잠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문자 한 통은 비로소 나를 수면에서 끄집어내, 폭 잠겨있던 몸을 계절에 걸맞은 세찬 바람으로 깨우는 것이었다.

▶ 꿈꾸며 걸었던 길

내가 근무지로 출근해야하는 날은 마침 설 연휴 이후였기에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떡국을 챙겨먹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 핸드폰으로 길을 찾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내가 타던 버스에 탔다. ‘우연일까?’ 내가 내리던 정류장에 내렸다. ‘환승역이라 그럴 것이다.’ 내가 다니던 길로 들어섰다. ‘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 그리고 길 사이에

복지관이 있었다. 바로 그 곳이었다. 가까운 곳이라 잘 되었다는 친지들의 말보다도 먼저 내게 다가온 것은, 아마도 내가 다니던 길을 무력함과 우울함, 짜증만을 지니고 다녔기에 느꼈을 미약한 당혹감이었다. 혹시 어르신들이 나를 알아보시는 것은 아닐까. 아닐 것이다. 나도 어르신들을 알아보지 못 하기에.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옆으로 문득 문득 보이는 하얀 얼굴들, 우울해 보이는 얼굴들. 가끔 길을 건널 때라든지, 물건을 들 때라든지 나의 도움을 청하실 때 무심히 예, 하고 도와드리면 내 눈에 그대로 돌아온 무심한 감사와 공허한 얼굴들. 그러니 어르신들 역시 그러하시리라. 잔가지를 무수히 뺀 나무들, 그리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길과 고즈넉한 의자들. 그 의자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며 길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딘가 불안한 걸음으로, 우울한 얼굴로 그저 스쳐지나가는 한 청년. 가끔 내가 발의 문제로 비틀거리거나 기우뚱 발을 뺄 때면 그저 나의 생장과 건강에 의구심을 품으셨을 뿐인 (최대한 긍정적인 서술이다.) 그러한 관계. 그렇게 꿈속인 냥 알았던 길과 그 길 위의 사람들을 전혀 다른 입장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 깨어나 둘러보기

일을 시작하기 전 업무를 대강 들을 때까지만 해도 난 꽤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서툰 손놀림 때문에 일을 망치진 않을까,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혹여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을 제대로 못하진 않을까 등등. 하지만 보통 이런 고민들이 늘 그렇듯 일이 시작되자 모두 기우로 돌아갔다.

첫 시작은 주방에서였다. 모든 업무를 겪어보면 앞으로 편할 거라

생각하신 영양사 선생님은 첫날부터 내게 모든 주방 일을 맡기는 특혜를 베풀셨고, 지금 와서 보면 그 생각은 꽤나 정확했다. 어찌되었건 그 첫날은 서술하기 힘든 하루였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설거지라곤 라면 냄비며 접시 정도 해본 것이 고작이었는데 어르신 수백 분 식판의 잔반을 비우고 닦고 씻었으며, 어르신께 전할 아침식사를 포장하고 아파트 몇 개동의 십수 개 호에 날라 배달하고 또 나온 잔반을 분리했다. 오후엔 반찬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께 날랐으며 남은 시간엔 어르신들 프로그램 위해 책걸상을 옮겼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을 땐 문서 정리와 편철을 도왔는데 이 부분은 대학생행정연수로 꽤 오래 해본 부분이라 그나마 나았던 듯싶다.... 지금은 꽤나 담담히 적고 또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 날 하루는, 아니 며칠간은 정말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들에 쌓여있었던 것 같다. 피곤과 함께 집에 와 잠든 후 일어나 출근하는 걸 반복하며 정말 아무런 생각도 못 하고 시간이 홀러팅 사라졌던 것 같다. 어르신, 복지관이며, 나 자신이며 따위를 딱히 생각을 할 만한 여유조차 없었던 듯하다.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이 아련하고 가늠하기 힘들었던 꿈속을 떠나, 사람들이 실재하는 사회로 돌아온 것이었다.

▶ 걸어서 다가가기

근 한 달쯤 지나 일이 익숙해지자 나 자신과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되었다. 천막 치는 법이며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쌓는 법이며 트럭 줄을 묶는 법 등 평상시 해볼 일이 없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던 일들도 배웠으며,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알던 것들을 나만 모르는 것에

충격을 받기도 했다. 배움이 있는가 하면 만남도 있었다. 반찬이며 식사를 배달할 때면 이제 자주 된 어르신께 안부를 전하는 일도 있었고, 오가며 얼굴을 익힌 어르신들이 내게 수고한다며 말을 건네시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다. 아침 식사를 배달해드리러 갔는데 요양보호사분이 내 얼굴을 보시곤 안절부절못하며 말씀하시길, 어르신 집의 옷걸이가 무너져 옷들이 쏟아졌다는 것이었다. 의아해하며 들어섰더니 대단한 수라장이 보였다. 천장까지 연결하는 3단 옷걸이가 통째로 주저앉아 쇠로된 골격들이 사방에 주저앉아있었고, 바닥엔 바지며 코트며 옷들 수십여 벌이 우르르 흩뿌려져 침대와 방의 바닥이 보이질 않았다. 순간 아찔하여 ‘저런 안타깝네요. 안녕히 계세요.’하고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다. 망설이는 와중 무언가 조금 다른 것을 본 느낌이 들었다. 찬찬히 방을 다시 살피다가 침대의 이불 속을 보니 아무런 기척도 없이 어르신이 누워계셨다. 치매가 오셨다는 요양사분의 말을 들으며 어르신을, 이불 속에 숨어있던 얼굴을 바라보니 초점을 잃을 듯 말 듯 흐릿한 시선이 보였다. 그 시선은 잠시 나를, 요양사분을 이리저리 따라 헤매더니 어느 샌가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상실과, 그 배경에 널브러져 있는, 언젠가 어르신이 정정하셨을 적 그 몸을 감싸고 멋스럽게 보듬었을 하얀 코트들, 색이 바래 버린 검은 코트들, 알록달록한 옷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무척 갑작스럽게도 내 마음 어딘가를 아프게 한 것 같았다. 내 자신이 감성적이라 여기지도 않았고, 봉사에 큰 관심을 둔 적도 없었기에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어느 이름 모를 감정이 그 순간 내게서 피어났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여 남은 집에 마저 배달을 마친 뒤 돌아와 의자를 바치고 올라가

옷걸이를 다시 세우고 또 연결하고, 천장에 고정시킨 뒤 옷들을 함께 모아 하나 둘 올리고 가끔 엉뚱하게 꽃은 바지 집게나 거꾸로 뒤집힌 옷 따위에 요양사분과 피식 웃고 그러다 어르신 얼굴을 쳐다보고 다시 옷을 올리고…. 그러다보니 어느 사이엔가 정리는 끝나있었다. 말끔해진 시트 위에 편안히 누우신 어르신의 시선이 나만의 느낌뿐일지라도 더 편안해보였다. 한 번 그런 마음을 느끼자 줄곧 무관심하게 보내던 나의 일상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내게 다가왔다. 식판을 가져다주는 어르신의 손길이 전보다 더 위태로워 보여 다가서게 되었고, 반찬을 받으시는 어르신의 얼굴이 조금 더 밝아 보여 나도 마주 웃을 수 있었다. 흘려들었던 어르신의 중얼거림이 감사의 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전하고 행하는 것들이 비록 커다란 보탬이 될 순 없더라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소박한 편안함과 이로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 아마도 이것이 지금껏, 그저 두루뭉술하게 흐르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던 삶에선 영원히 알 수 없었을 진정한 보람임을 알았다. 그렇다고 많은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을 나를 때면 속으로 온갖 불평을 하곤 했고, 바자회가 다가와 후원 물품을 받아오고 수십 개의 상자를 옮기고 천막을 가져오는 등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된 때도 있었고, 구석에 박혀 설거지를 할 때면 묘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어르신을 만나거나 도시락이며 반찬을 배달해드릴 때, 바자회 당일, 내가 짊어왔던 새 옷이며 새 모자 따위를 내가 지금껏 어렴풋이만 알았던 그 얼굴들에 입혀드릴 때면 보람과 함께 무언가 뿌듯함과 정겨움 같은 것들이 생겨나 나를 늘 북돋아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잠에 취한 듯 보내온 시간이 얼마나 얇은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시간 역시 내겐 분명 커다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그마한 깨달음이 있는 후의 시간이 더욱 깊이 있는 듯 느껴졌다. 내가 평상시 겪었을 일주일이 현재의 하루에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그저 살아 갔다면 내가 아마도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을 세상이 달음박질하여 내 눈앞에 와선 자신을 알려주었고, 나도 조금씩 걸어 다가갈 수 있었다.

▼ 그 길에 그 얼굴들

아파트로 들어가 승강기에 오른다. 연락받은 집으로 가 낙상한 어르신을 요양사분들과 함께 침대로 올려드린다. 어르신이 웃으며 고맙다 말하신다. 반찬을, 도시락 통을 가득 짊어지고 아파트를 오른다. 찬을 받은 어르신이 내 명찰을 보시곤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신다.

“고맙소.”

내가 다가서자 그들도 가까워졌다. 나무 아래 벤치에서,
눈들이 가라앉은 길에서, 아스팔트에서 그저 스쳐지나갈 때와는
다르게 서로 마주 보며 웃고 인사한다.

삶속에서 스쳐지나갈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얼굴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들이 그저 꺼리고 멀어지고 싶었던 병역을 통해 의미를 갖고 다가왔다. 봉사하며 스스로 다가서는 것이어떤 힘을 가졌는지 이제 알고 있다. 잠깐 숨을 돌리며 아파트 15층의 창밖을 바라본다. 내가 몇 년간 침잠했던 희뿌연던 거리가 이제 색색깔의 옷을 입은 어르신들과

그 뒤를 줄줄 따르는 강아지들, 벽돌 사이를 뚫고 자라난 풀들로 알록달록해 보인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다. 잔가지를 무수히 뺀 나무들, 그리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길과 그 곳의 고즈넉한 의자들. 그 길에 그 얼굴들. 천천히 걸으며 자박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풀잎들을, 고르게 깔린 길들을, 그리고 그들을 바라본다. 입 꼬리가 스스 올라가고 눈이 흰다. 웃는다. 따라 웃는다.



천원짜리 다섯 장

- 양로원에서 느끼는 따뜻한 순간들 -



이 승 엽 | 통도사자비원양로시설

나의 하루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눈도장을 찍는 일로 시작이 된다.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 나보다 더 반갑게 나를 맞아주시는 분들.

아침밥을 먹었는지 꼭 물어보신다.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은 항상 반복되는 일이다.

그러나 나의 하루가 매일 특별한 이유는 가끔은 웃음을

가끔은 감동을 주는 여러 에피소드 때문일 것이다.

늘 적다고 소리치는 할아버지, 여자 친구에게 샘내는 할머니,

돌돌 말아진 신문지를 건네었던 할머니의 모습들은

모두 내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남겨질 것이다.

▼ 반복되었던 일상

어렸을 때 대퇴부 탈골 때문에 큰 수술을 하여 4급을 받아, 집에서 가까운 양로시설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럽고 화가 많이 났다. 자연스럽게 현역군인과 비교를 당하고 무시를 받는 일이 종종 있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무기관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처음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인지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 챙겨드리기, 청소하기, 목욕시켜드리기, 텃밭일구기 등 모든 일은 그저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처음의 내 생각과 달리 지금 나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신문지 속 빵 한 조각

하루는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할머니께서 조용히 나를 부르셨다. 할머니를 따라가니 신문지로 싸여진 무언가를 나에게 건네주셨다. 폭신폭신했던 느낌이었다. “할머니 저 이런 거 받으면 안돼요.”라고 말씀드리니 할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주려고 놔뒀던 빵이니깐 맛있게 먹어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한 후 자리를 떠난 뒤 신문지 속의 빵을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낱자.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며칠 전에 받았던 빵을 주말동안 드시지 않고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그 빵은 먹지 못했지만 나는 다시 찾아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 할머니가 준 빵이라 더 맛있어요.”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본 나는 너무나 뿌듯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나를 생각해주시는 마음 보다 더 큰 사랑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밥이 적다!”

나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의 밥을 미리 떠 놓는다. 우리 층에는 중풍이 온 할아버지 한분이 계시는데 항상 할아버지께서는 식판을 보지도 않고 소리치신다. “적다!”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너무나도 우렁차다. 할아버지의 소리침에 항상 밥을 더 드리지만 엄청나게 많이 남기신다. 며칠을 지켜 본 후 안 되겠다 싶어서, 식판을 다시 들고 갔다가 더 담은 척을 하고 드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손을 흔드시며 아주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그걸 보고 느꼈다. 할아버지는 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 후 나는 할아버지께 더욱 더 자주 말을 걸어 드린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들은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의 몸을 씻겨드리고, 발톱을 깎아드릴 때 내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는 내게 충분한 대답이 된다.

▼ 우울증 치료약, 다름 아닌 사랑

나를 항상 손자 같이 생각해주시는 할머니 한분이 계신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나를 조용한 곳으로 부르셨다. 할머니의 표정은 조금 심각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도청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시고는 자꾸 핸드폰을 나에게 주며 확인을 해달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혹시나 싶어 핸드폰을 확인해봤다. 이상이 없었다. 할머니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왜 그러실까 궁금했었다. 그 날 밤 할머니의 확고하신 표정이 생각이 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나와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그걸 알고 난 후 나는 할머니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도록 더 자주 할머니 옆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며 옆에 있는 시간을 늘렸다. 그 후로는 할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물론 나의 처방이 정확한 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신한다. 내가 조금만 더 손자 같이 할머니들께 다가가면 할머니들께서 더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 있는 동안 나의 목표는 하나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귀엽고 듬직한 손자가 되어드리자!’

▶ “네 섹시한테 사달라고 해라.”

먹을 걸 좋아하시고 남자에게 관심이 많으신 한 할머니가 계신다. 할머니께서는 남자 봉사자들이 오시면 꼭 선생님들께 “저 사람 장가는 갔는가?”라고 물어보신다. 선생님들이 웃으며 “왜요?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으시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응. 마음에 들어”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처음 왔을 때도 장가를 갔냐고 물어보셨다. 그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이 재밌고 할머니가 정말로 귀엽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나에게 또 장가를 갔냐고 물어 보시길래 “장가는 안 갔지만 여자친구는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 후로 할머니의 태도가 약간 바뀌었다. 내가 쳐다보면 눈을 피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옆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나한테 빠져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주셨다. 나는 할머니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할머니가 로션을 바르고 계실 때 “할머니 나도 조금 주세요.”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때 할머니께서 로션을 숨기며 말씀하셨다. “네 색시한테 사달라고 해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너무 귀여우시다는 생각이 들어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먹먹해졌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며 외형이 늙어가지만 생각은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계셔서 조금 울적해졌다. 항상 아침이면 옆에 누워계시는 우리 할머니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그 할머니를 보면 우리 할머니가 많이 생각이 난다. 더욱 더 우리 할머니처럼 대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는 선복무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먼저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훈련소를 들어가야 했다. 이곳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지낸 지 아홉 달이 지났을

무렵 병무청에서 훈련소를 가야한다고 연락이 왔다. 기분이 조금 상승
생겼다. 연락을 받자마자 할머니들께 말씀을 드렸다. 훈련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처음 말씀드렸을 땐 별 반응이
없어보였다. 그렇게 훈련소로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머리를 민 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출근을 했다. 할머니들께서는 내게 어디 가냐고,
훈련 받으러 가냐고 연거푸 물어보셨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 내일부터
한달동안 훈련 받으러가서 여기 못 나와요”라고 말씀드렸다. 나랑 친한
할머니 몇 분은 눈물을 보이시면서 “우리 이군, 그리 오랫동안 못 보면
쉽잖아서 어떡하노?”라고하며 내 등의 어루만져 주셨다. 나도 몇 달
동안 봤던 분들을 한달동안 못 본다고 생각하니 섭섭했다. 그렇게 슬픔에
젖어 있을 때 할머니 한분께서 거의 찢어져가는 봉투를 나에게 주려고
하셨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라고 여쭙보니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하지
말고 받아.”라고 말씀하셨다. 봉투를 열어보니 천원 5장이 들어가 있었다.
그걸 보고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 감정은 정말 설명
할 수 없었다. 슬픔뿐만이 아니었다. 조금 후 마음을 가다듬고 할머니께
봉투를 건네 드리며 “할머니 저 다시 오니깐 그때 오면 맛있는 거 사주
세요.”라고 말씀드렸다. 할머니께서는 웃으시며 “그럼 꼭 건강히 잘
갔다가와야한대이. 오면 하드먹자.”라고 말씀하셨다. 나라에서 기초수급
을 받아가며 생활하시는 할머니께 오천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할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절실히 느껴졌었다.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 것 밖에 없었다. 그런데
할머니들께서는 더 큰 마음으로 내게 보답을 해주신다.

처음에 사회복지무요원이라는 소식을 들은 내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며 조롱하는 듯한 말을 자주 했다. 그러한 주위의 시선은 나를 계속해서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난 현역 군인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내가 이곳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한다. 사회복지무요원에 보내는 시선에 대해 실망하기보다는 내 존재에 대해 더욱 당당해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이다.

고민을 자신감으로 바꾸고 걱정을 행동으로 바꾼다면

더 멋있고 떳떳한 사회복지무요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오늘도 나는 오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께 신나게 인사를 하며 눈도장을 찍는다.

“우리 이군 없으면 어찌할꼬.”라고 말씀해주시는 우리 할머니들은 나를 송중기만큼이나 멋있는 손자라고 생각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뿌듯함이 가득하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이 되어, 지금보다 더 멋있는 손자가 되리라 결심한다.

친절한 주차사업팀 배건희입니다



배 건 희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프롤로그

2015년 1월 훈련소에 입대하기 전, 사회복지무요원으로 배정 받게 된 나는 마음 한 구석이 찢찢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 같다.

2014년 9월에 뛰었던 농구 시합 중 어깨가 탈골되어 재검을 받았고 결국 4급 판정을 받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카투사에 지원하고 공군을 알아보고 있다가 한 순간에 4급 판정을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웠다. 현역으로 가는 친구들에 비해 고생은 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면서도 사회에서 바라 볼 시선이 걱정되기도 하였다. 또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하는 군 생활을 해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있었다.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까지 위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다. 이런 저런 생각 속에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약간 정신없이 훈련소에 입소하였다.

4주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사전에 지원하였던 종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첫 출근을 하였다. 같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배정 받은 사회복지복무요원이라도 공단 내에서 하는 업무가 워낙 다양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었다. 결국 나는 주차사업팀으로 오게 되었다.

▶ 주차사업팀 업무의 시작

첫 한 달 동안은 이곳에 적응하는데 집중하였다. 다행히 내가 2월 달에 왔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크게 바쁘지 않았었다. 거주자우선주차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이해하고 우리 주차사업팀에서 어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차차 알아보면서 점점 주차사업팀 일원으로 녹아들어갔다. 첫 한 달 동안 주차사업팀에 있으면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 특히 종로구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편이라서 거주자 중에서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 이러한 종로구내의 주차 문제 때문인지 직원 분들의 전화기 너머에서는 종종 언성을 높이며 화가 나있던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곤 했다.

한 달 동안 적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업무는 전화 응대였다. 첫 멘트는 ‘친절한 주차사업팀 ○○○입니다.’로 시작했다. 목소리를 높이며 화가 나있는 그 민원인들을 내가 상대해야한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사실 처음에 내가 전화 받으면서 하는 일은 그냥 직원 분들께

전화를 돌려드리는 일 정도였지만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됐다.

▶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기간, 주차는 전쟁이다.

주차난이 심한 종로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기간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한다. 1년에 2번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기간 동안 사무실에 서는 끊임없이 전화벨이 울리고 신청기간 첫 날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다. 현재는 총 3번의 신청 기간을 겪었는데 첫 번째 신청기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었다.

먼저 신청 기간이 되면 수많은 검증 서류들이 몰려온다. 팩스는 쉴 틈 없이 밀려오고 민원인들은 자신의 서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길 원한다. 예를 들어 차량번호 뒷자리 1234 차량이라고 한다면 몇 천장이 넘는 서류 더미에서 1234 네 글자만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서류더미를 찾기 시작한다.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서류를 한 방에 찾았을 때는 모래사장에서 진주라도 찾은 것처럼 기뻐다. 그렇게 나의 첫 번째 신청기간은 서류 찾기에서 시작해서 서류 찾기로 끝났다.

이후 정신없었던 신청기간이 끝나고 점차 주차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먼저 민원인들을 상대하기가 두려웠던 나는 점차 민원 응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민원 응대를 점차 하면 할수록 민원인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민원인분들은 문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안내해드리면 기분 좋게 전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문제는 단속에

결린 민원인 분들이었다.

일단 그 분들은 전화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화가 나 있으셨다. 우선 자신의 차량을 왜 단속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내가 이 앞 식당에서 잠깐 식사하려고 주차했는데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처리해주세요.” “아니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인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봐주세요.” 등 대부분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원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나는 더 단호하게 “이곳은 거주자만 주차하는 구역이니 주차할 수 없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곤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너무 내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시점이 있었다. 오히려 단호하게 제도적인 입장만 했을 때 민원인들은 더 화를 내실 때가 많았었다. 그래서 내가 응대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 전화를 돌린 적도 몇 번 있었다. 그러면서 점차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한 번은 송인동 쪽에서 단속이 된 한 50대 후반정도 되는 민원인 분이 전화를 하셨다. 이 분 역시 굉장히 화가 나있는 상황이었고 예전 같으면 그냥 직원 분께 전화를 돌려드려야 했겠지만 이번에는 직접 응대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 때가 사회복지무요원 소양교육이 끝난 시점이었다.

소양교육에서 갈등에 대해서 배웠었다. 강사님이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해주셔서 크게 와 닿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소양 교육에서
복무상황뿐만 아니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었다.

소양 교육에서 배운 그 갈등 해결 방법을 복무상황에 적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 먼저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좀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다. 그 분께서는 자신이 배정받은 자리인데 꼭 정해진 차량만 주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다. 예전의 나라면 제도적인 입장만 단호하게 말하고 넘어가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구획 자체가 자신에게 배정된 것인데 왜 배정된 차량만 주차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그 분께 왜 배정된 차량만 주차를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다.

“선생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만약에 지정된 차량이 아닌 구획을 배정해드리게 되면 사업자들은 그 구획을 발렛파킹 등,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선생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차량이 이용을 원할 경우 주차커플제 또는 함께 쓰기 주차권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망설이시더니 결국 그 민원인 분께서는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시기로 하셨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내 입장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분들 입장에서 좀 더 납득이 갈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 친절한 주차사업팀 배견희입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시는 이유는 단속 등, 불편사항에 대해 건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들다. 특히 신청기간이

끝나고 자리를 다 배정해드린 다음에는 배정에서 탈락한 민원인들이 화가 난 상태로 전화를 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따뜻한 분들이 계셔서 근무하는데 힘이 났었다.

한번은 전화 응대를 하면서 평소처럼 구획 안내를 해드렸었다. 안내가 끝난 후 전화를 마치려는 순간 아주머니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 날 하루는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 더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난다.

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친절했던 나였지만
점차 민원인들과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는 “친절한 주차사업팀 배건희입니다.”
라고 좀 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나도 사회의 일원, 국가의 일원이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주차사업팀에서 복무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

민원인들을 응대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또한 내가 사회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종로구 내의 주차문제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차문제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생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주차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는 주민분도 있었고 주차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보았다.

이러한 주차문제에 관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듣고 응대하면서 직접 민원인들과 접해보니 내가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의 톱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복무요원은 비록 사회에서 빛나는 존재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럴 것이다. 예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사회가 바라 볼 시선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가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사회복무요원인 내 자신이 자랑스롭다.



보이지 않는 영웅 사회복무요원



빈 경 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다. 그때마다 누구는 육군이니, 해군이니, 등등 이야기를 하고나서 나에게 물으면, “나는 공익인테?”라고 말하고 나면 친구들의 반응이 영 시원찮다. “에이 그게 무슨 군인이냐?”, “이 자식 진짜 꿀 빠네.” 등등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때마다 차마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있을 때가 많다. 내가 생각해도 공익은 다른 군인들보다는 편한 위치에 놓여있다. 근데 정작 출근하고 나서는 우리는 병역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참 이거 군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민간인라고 하기도 뭐한 존재인 것 같다. 이 느낌은 마치 청소년 시절 어린이도 아니지만 어른이라고 하기도 뭐한 존재

그런 느낌이다. 결국 방황하게 되고 “그냥 대충 2년 끝내고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걸까?

▶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존재

그저 무료하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배트맨 :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보았던 인물들이 있었다. 그것은 알프레드와 루시어스다. 그들은 배트맨을 도왔지만 그 누구 앞에서 “나는 배트맨을 돕는 사람이다”라고 외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수고가 배트맨에게 돌아가게끔 하고 있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영화에 주연이 아니기에 배트맨보다 더 뛰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단했던 것은 그들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 뿐만이 아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 옆에는 악보를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라는 존재가 있고, 의사의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라는 존재가 있다. 즉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줌으로써 서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지 터너’든, ‘간호사’든 언제나 그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간호사’나 ‘페이지터너’가 ‘나는 어차피 이도저도 아닌 존재인데’라며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한다면, 병원의 환자들은 치료되기 힘들 것이며, 피아노 연주회는 엉망이 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위치가 애매한 것이 아닌 보이지 않을 뿐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공무원 옆에 우리 사회복지무요원이

없으면 업무가 상당히 밀리게 된다. 실제로 언제 한번 내가 몸담고 있는 운영지원과에 사회복지무요원이 한명도 없었을 때가 있었다. 그 결과로과는 운영은 되지만 상당히 느려지고 업무 효율도 느려졌다. 이 일로 사회복지무요원은 이도 저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나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뒤로 나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나는 드러나지도 않지만 그들에게는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그 뒤로 뭐든 열심히 하게 되었다.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중, 우리 청에 감사원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감사실을 세팅하고 있을 때였다. 그 일은 혼자서는 힘들기에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다른 사회복지무요원들과 같이 일을 마치고 주임님께 검사를 맡을 때였다. 그리고 감사실 세팅을 마치고 난 뒤의 모습을 보신 주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다. “진짜 내 맘에 쏙 든다. 진짜 잘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칭찬인 것 같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엄청난 느낌으로 와 닿았다. ‘아, 나의 수고가 노력이 인정을 받는구나.’ 이 느낌은 마치 아무리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더라도 언젠간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랬다. 사실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해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은 주임님들이 더욱 자세히 알고 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안하고 있으면 오해하기 마련이다. ‘아 저 사람은 열심히 안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을 보면 분명 공무원 한명 한명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들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진짜 세금낭비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나 또한 그랬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또한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간 밝히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야 하는 법이다.

▶ 웃으면서 일하는 삶

우리는 한 달에 한번 교육이 있다. 그래서 모일 때 자주 이런 말이 나온다. “청에 있으면서 주임님들에게만 인사를 잘하지 말고, 민원인들에게도 잘해라. 인사가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확실히 인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이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행위중 하나라고 본다. 하지만 왜 우리는 민원인에게 까지 인사를 잘해야 하는 걸까? 이 궁금증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인사를 잘하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들어온 민원인들에게 인사한 적이 있다. 그것도 웃으면서! 그랬더니 빨쭈한지 인사를 받아주고 가는데, 나는 보았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결국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화가 난

만원인도 일단 마음이 수그러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첫 단추라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꿈과 연결고리가 되었다. 실제로 나는 소양교육때든지 처음 들어와서 나의 꿈 이라는 글을 쓸 때도 항상 적는 것이 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 세상에는 악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며, 전쟁과 기아 등등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이 중학교 때부터 이어온 나의 꿈이며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이것의 첫 번째 단추는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키포인트는 웃는 것이다. 만약 오만인상을 쓰며 인사를 하면 과연 누가 기분이 좋을까? 그러나 웃으면서 인사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준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거울효과이다. 인사뿐만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웃음을 유지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일을 시킨 사람이든 기분이 좋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일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바뀐 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다. 그저 무료하고 지루한 삶을 살고 있던 나는 우울증마저 앓고 있었다. 근데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실제로 우울증 약을 4알에서 지금은 2알로 줄어든 상태이다. 내가 기분이 좋으니 우울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변의 시선이다. 우중충한 기분으로 침울하게 일을 하면 언제나 주변에서도 일 시켜놓고 짜증 낼 때가 많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웃으면서 일하고 난 뒤

로는 주변에서 짜증내기는커녕 내가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주고 같이 웃어주기도 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을 잘한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사실 이건 거짓말이다. 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인재는 아니다. 하지만 나의 세상은 바뀐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또 누가 중요하겠는가?

나의 세상이 바뀌면 나의 기분이 바뀌고
결국 주변 환경 또한 바뀌게 된다.

▶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

우리는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군인이자 민간인인 것이다. 우리는 두 군데 모두 속해있다. 비록 군인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없다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게된다. 사회복무요원이 없으면 공무원의 업무에 불편이 생기고, 그럼 업무효율이 늦어지니, 결국 민원도 처리하기 힘들어지고, 민원인들은 불편을 느끼게 된다. 그 불편은 공무원뿐만이 아닌 ‘국가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라며 국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된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많은 사람이 편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애매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국가의 민주주의 사상을 지키며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나 것이다.

멋쟁이 짝사



한 민 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이제 사회복지무 소집해제일이 다가오니 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자 입가에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온다. 처음 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배정받을 때 궁금함과 설레는 마음에 어떠한 곳인지 찾아 보았다. 보훈원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과 다양한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는 곳이었다. 보훈원은 정말 따뜻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그때에 나에게는 불편한 장소였다. 가장 큰 이유는 어르신들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었다. 처음의 나는 어르신들에 대해 어리숙한 생각들로 가득했었다. 보훈원에서 의미가 없는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다. 이런 나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나의일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일에 관심이 생겼다. 관심을 갖고 주변을 보니 바뀐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관심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대우와 내 삶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긴 나는 오늘 하루 사진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찍어왔던 많은 사진들을 처음부터 정리하다가 한 할머니의 첫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도 더 잘 지내실 거라 생각한다. 우리 할머니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 따뜻한 겨울에

2014년 추운 겨울에 같은 일을 반복하며 무료한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아침에 편지 온 것을 정리 한 뒤 배부하는 도중에 故강순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가벼운 아침인사와 함께 지나가려는 저를 차디찬 손으로 붙잡고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학생 나 부탁이 있는데... 나 신체 좀 기부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결결하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선뜻 나서서하기 부담스럽고 무서운 일이기에 사무실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일을 미루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저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아주대학교 병원에 사체기증 센터에 전화해보았고 몇 가지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보니 보호자 서명이 필요했다. 나는 할머니께 설명해 드리고 보호자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시도했지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만 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부모님의 시신을 연구에 사용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 달간의 전화와 할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했다.

할머니는 다음해 봄에 꽃을 보시지 못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동시에 죄송한 마음과 부족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죄책감이 있는 것처럼 생전에 같이 웃고 즐길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해드리지 못했던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르신께 무언가를 먼저 도와드리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니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했다.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그 중에서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사진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 흔들리는 마음

처음 사진 공부를 시작한 날은 막막했다. 마땅히 DSLR 카메라에 대해 배울 곳도 없고 인터넷에 검색해봤자 까막눈이었다.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사회복지무요원 관리를 해주시는 명경철 대리님께서 면담시간에 고민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나는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다. 그때 이후로 명경철 대리님께 도움을 받아 사진 찍는 자세, 방법, 사진기의 기능, 초점 맞추는 방법 등 다양하게 배움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순조롭게 배우고 사진을 혼자 찍고 있을 무렵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는 사진을 찍을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끄러운 느낌이었다. 사진이 더욱더 못나오는 것이었다. 인물은 흐리게 나오고 기울어지는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고민과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사진 공부를 했던 것은 헛된 일이었나? 내가 지금 더 해서 나아질까?’라는

말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었다. 그러던 도중에 찍은 못난 사진들을 정리하는데 사진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한 소녀와 같은 그 순간이 얼마나 즐거워보이는지 마음에 와 닿았다. 머릿속에 든 생각이 정리가 되었다.

‘내가 사진을 멋있게 찍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집착을 했던 걸까? 단지 나는 예쁜 추억 사진한 장
찍어드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 건데’라는 생각이었다.

사진을 인화해 사진을 갖고 할머니께 달려가는 내 모습은 마치 사탕 받으러 가는 어린아이 같았다. 할머니께 바로 사진을 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하회탈을 쓰신 것처럼 “어구메 이쁘네”라는 말씀을 하시고 박수 한번 치시면서 고맙다고 우유한잔 먹고 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싫던 우유가 그 순간 어떻게 그렇게 시원하고 고소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잡고 사진 공부를 다시 하니 이제는 여름이 시작하고 있었다.

▶ 행복한 별명

행복한 추억을 남겨드리기 위해 시작했던 사진 공부의 마무리 된 단계에 본격적인 첫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 가을 효도관광 행사에 카메라를 들고 나가게 되었다. 카메라를 들고 버스에서 내려 다니는데 여기저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학생 사진 한 장만

찍어줘” 기대에 부푼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찍으면서 같이 웃고 즐기는 그 순간 나이 차이를 잊고 같이 웃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인화를 주문해서 한분씩 갖다 드렸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웃음과 추억을 선물해 드리는 순간 나는 육상선수처럼 쉬지 않고 달려갔다.

이렇게 1년이 지나가니 나에게는 별명이 생겼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우리 민호 찍사님 오셨나?” 라고 아침에 손을 번쩍 드시더니 먼저 인사해 주신다. 장난도 함께 치시면서 아침마다 기분 좋은 인사와 함께 시작하는 마음이 즐겁다. 이제는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가 아닌 한 가족으로 같이 생활하는 기분이 든다.

▼ 사진 마지막장

벌써 사진 정리가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진을 통해 그 추억을 간직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뿌듯하다. 나에게는 작은 일이었지만 받으신 분들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던 것이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임하면서 가장 큰 보람된 일이었다. 오늘 오후에도 사진기를 들고 나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 나는 멋쟁이다.

과연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나는 다시 한번 멋쟁이 찍사가 된다.

이렇게 보니 영원할 것 같은 사진첩에 남은 장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사진첩에는 사회복지무요원이 아닌 멧쟁이 보훈원 가족으로 어르신과 함께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 마지막에는 가족사진으로 장식하고 그동안의 정들을 추억의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다. 한 가족으로서 보낸 2년의 시간 행복했습니다.



이용자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가족으로

- 이용자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들 -



김 정 호 | 부천사랑터장애훈련주간보호센터

▶ 이용자들 - 낯설기만 했던 그들과의 첫 만남

한창 가수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곡이 길거리를 메울 때, 내 머릿속은 걱정밖에 없었다. 막 훈련소에서 나와 처음 가보는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일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걱정과 설렘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곳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는 사실에 설렘 보다는 걱정이 훨씬 앞섰다. ‘일반인들도 대하기 힘든 세상에 장애인들을 상대로 2년 동안 근무해야한다니.....’ 월요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근무일이 다가

왔다. 거의 해탈한 채로 센터까지 힘없이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할 사회복지요원 김정호라고 합니다.” 인사와 함께 들어선 나에게 복지사님들은 웃으며 환영해 주셨다. 웃으며 따라 들어갔지만 좋은 첫인상을 위해 웃었지 마음속은 걱정을 넘어서 두려웠다. 센터에 조금있으면 이용자들이 도착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복도에 발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울리는 발소리와 함께 심장도 올랐다. “안녕하세요!” 불완전한 발음과 한눈에 봐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이용자가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내주었다. 어색한 눈인사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에 응했다. 1호차에서 온 이용자분들은 모두 내가 상상하던 분들과 다름이 없는 아니 상상이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았다. 2호차에서 내리신 이용자분들도 다를 바 없었다. 낮은 정신연령을 가지고 계신 이용자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설령 말을 하신다 해도 정확한 발음을 기대하고 듣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더 이질감이 들었던 것 같다. 늘 보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어렵고 무섭고 걱정됐다. 다만, 갓 훈련소에서 나온 머리 짧은 청년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실은 센터에서 먹는 점심밥이 정말 맛있다는 것이었다.

▶ 친구들 -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서로 친해져가는 우리

3주 정도 점심생각만 하며 근무를 했을 뿐인데 어느새 이용자분들의 이름을 다 외우게 되었다. ‘처음에 적응하는게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만

더 적응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어색함과 불안함이 늘 마음속에 존재했다. 그런데 그 어색함과 불안함을 한 번에 없애준 사건이 있다. 점심을 먹고 센터 내에서 하는 체육 수업 시간이었다. 남자 복지사 선생님이 하시는 맨손체조 동작을 이용자분들이 따라하시게끔 도와드리면 됐다. 대부분 수업을 못 따라오시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를 잡고 도와드렸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A씨의 손을 잡고 도와드리고 있을 때였다. “에잇”하며 A씨가 손등에 뽀뽀를 해주었다. 깜짝 놀랐다. ‘뭘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복지사님이 A씨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뽀뽀를 해준다고 말해주셨다. 처음에는 ‘왜 내가 마음에 들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후에는 A씨가 이용자분들을 대하기 힘들어 하는 나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생각에 정말 고마움을 느꼈다. 동시에 여태까지 먼저 마음을 열어보려고 시도조차 안 해 본 자신이 한심해 보였다. A씨의 뽀뽀와 함께 어색함과 불안함이 이미 멀리 달아났고 어색함과 불안함이 달아난 자리에 ‘이용자분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보자’라는 각오가 들어섰다.

각오와 함께 생각해 낸 방법은 큰 일이 아닌

평소에 친구들과 자주하는 ‘하이파이브’였다.

그냥 손뼉 맞추기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 짹!” 소리와 함께

조금씩 유대감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실이 되었다. A씨에게 뽀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센터에 들어오는 이용자분들께 “안녕하세요. OO씨”하고 이름을 부르며

손을 맞췄다. ‘손 맞춤’이 일주일이 되자 굳이 말을 안 해도 손만 들고 있으면 다들 손을 맞춰주셨고 ‘김정호선생님’이라 불러주기 시작했다. ‘이제 막 친구가 된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A씨의 뽀뽀 한번이 고무적이었다. 이후로 ‘이용자’라는 딱딱하고 벽있는 단어는 마음속에서 사라졌다. 센터에 있는 모두가 내친구로 느껴졌다. 물론 친구라고 해서 예의없게 굴거나 하진 않았다. 여전히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었고 돕는 과정이 나와 그들의 유대감 안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유연해졌을 뿐 이었다. 처음에 겁먹었던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쉬웠다. 한번 벽이 허물어지고 나니 그 다음은 내가 하기 나름이었다. 봄꽃 구경을 갈 때에도 친구들과 쉽게 손잡고 이야기 할 수 있었고, 매주 있는 음악수업에서도 같이 마주보면 노래할 수 있었다. 마음을 열고 다가서니 이용자와 선생님보다는 친구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게 된 우리였다. 막연히 친해진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통해 배우고 있는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을 배웠다. 주위에 나와 같이 어떠한 불편함과 역경 없이 살아온 친구들만 있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센터에서 친구들이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 표현하고 싶은 게 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 간에 어리석은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적어도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어디든 걸어갈 수 있지 않은가. 누가 도와주지 않고도 혼자 밥도 먹을 수 있고 대소변도 가릴 수 있는 내 삶에 감사하게 된 것이다. 또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었는지 반성할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친구들은 몸만 성인이지 마음은 다 어린 아이들이다. 정말 한없이 순수

할 때가 많다. 옆 사람이 울면 바로 일어나서 휴지를 주며 안아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탕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여태까지의 난 주위 사람이 울면 ‘다 커서 왜 울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혼자 차지하기 바빴던 행동들이 후회스러웠다.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선생님 같은 그들보다 내가 나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이다. 만일 근무지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가 아닌 다른 곳 이었으면 이런 생각과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을까? 봉사시간을 채우러 센터에 왔다면 그 짧은 시간에 친구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았을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 가족 - 친구를 넘어서 그들을 가족으로 느끼게 된 계기

사실 그렇게 건강이 좋은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다.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과는 다르게 생활하고, 신경안정제를 먹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이다. 갑자기 경기를 하는 친구나 투석 때문에 두 팔뚝이 모두 멍투성이에 울그락 불그락 한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한 번은 혈당 검사를 위해 B씨 손을 잡고 병원을 간 적이 있었다. 혈당이 너무 높아 체혈침이 아닌 주사기로 피를 뽑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무서워하는 B씨를 겨우 진정시키고 주사기로 체혈 할 수 있었다. 그 때, 중간에 B씨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코 끝이 붉게 되신 B씨의 어머니를 보았다. 마음이 찡했다. B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옛날에 어머니가 수술하셨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감정들을 느꼈

었다. 말로는 형용하기 힘들지만 알 수 없는 무거운 무언가가 몸 안에서 퍼지는 느낌이었다. 반대로 친구들도 내가 아플 때 걱정해주고 공감해주기도 한다.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책상에 엎드려 선잠을 자고 있을 때, 베개를 가져다준 C씨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OO씨 저 오늘 잠을 못자서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화이팅”하며 하이파이브해주는 D씨 등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들이 많다.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과 나는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고, 같이 밥을 먹고, 활동을 통해 같이 웃고 떠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가족’이란 단어 외에는 따로 알맞은 단어가 없다. 앞으로 더 나은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단순히 사회복지무원의 신분으로 내 일 이니까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다가가고 싶다. 내일도 친구들과 활기차게 활동하려면 일찍 자야하기 때문에 글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다.



숲을 이루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풀



김 상 훈 | 부산광역시교육청

▼ 중요하지 않기에 더 중요한 것을 알다

사회복무를 하며 자괴감과 무기력함을 느꼈다. 하루라도 빨리 복무가 끝나길 바랐다. 그러던 중에 한 학생과의 만남으로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

괴롭기만 하던 시간들이 조금은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지금 나는 다시는 겪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여전히 괴롭고 고민이 많은 시간들이지만,
그렇기에 만날 수 있었던 인연이 있었다.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 시간들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건 좀 심한데……, 4급이야.”

갑작스런 결과에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게 된 것에 기뻐해야 할까? 몸이 좋지 않다는 것에 슬퍼해야 할까? 복잡한 마음이었다. 무엇보다 친구들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했는데, 혼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스물일곱, 입대를 하기엔 꽤 늦은 나이였다. 다른 동기들처럼 임용에 합격 후, 교직 생활을 하다 비슷한 시기에 입대를 하려 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부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힘든 군대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섰다. 사회복무를 이따금씩 자괴감과 무기력함도 느꼈다.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기대와 신뢰를 떠올리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잃은 것은 많은데, 얻은 것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열등감만 커져갔다. 주변 사람들은 ‘부럽다.’, ‘배가 불렀네.’란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세상과 동떨어져 홀로 남겨진 느낌에 괴로워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대안교육지원센터란 곳에 배치되었다. 주로 하는 일은 장학사 업무 보조였지만, 학교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그 밖의 업무도 맡을 수 있었다.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특별교육’이었다. 특별교육은 학교의 선도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의 심의에서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내게 중학생과 고등학생

이라는 대상은 낯설기만 했다. 무엇보다 흔히 말하는 ‘문제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기에 거부감마저 들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육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인솔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무엇 하나 다른 것이 없었고, 학생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 또한 변함이 없었다. 시곗바늘이 움직이듯 당연한 듯이, 물 흐르듯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학생에 대한 애정이나, 인솔하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은 없었다. 전반적인 업무 보조였기에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학생들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다. ‘교육’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으러 온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했다. ‘문제아’, ‘불량학생’이란 선입견이 그것을 더욱 부추겼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앞에 서서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엄연히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주었다. 정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새 하나 둘씩 모여들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투정도 부렸다. 언젠가 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

‘선생님은 항상 곁에 있어주어서 정말 좋아요.’

특별교육으로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흡연 및 음주, 과별점, 지도 불응 등의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을 만났다. 내게 ‘항상 곁에 있어주어서 정말 좋아요.’라고 말을 했던 학생은 과별점으로 특별교육을 받았던 학생이다. 흡연과 음주로도 별점을 받았지만, 지각과 무단결석이 주된 원인이었다. 학생은 특별교육이 있던 첫날에도 지각을 했다.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수업에 참여보냈다. 단 한 마디만 했다.

“한 번 더 지각하면 미 이수니까 늦지 말고 와.”

학생은 멋쩍게 웃으며 ‘네.’라고 대답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때엔 그러지 않았다. 학생이 웃으며 말해서일까? 괜스레 다가가 ‘선생님도 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며 말을 건넸다. 몇 마디를 나누다 학생이 말했다.

“내일은 제 시간에 올게요. 방긋 웃는 모습으로요.”

다음날, ‘선생님, 약속 지켰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학생을 반겨 주었다. 그리고 ‘역시 웃는 모습이 좋죠? 내일도 웃으면서 인사할게요.’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로 시작으로 그 학생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졸업 후의 미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던 사이 다른 학생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어 선생님과 학생이라기보다, 친구처럼 말을 섞게 되었다.

“선생님은 주량이 얼마예요?”

예전 같았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이다. 선입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보았기에 업무 외의 대화에는 대꾸조차 안 했다. 애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관계도 갖지 않았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형 또는 오빠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장난도 치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학생들과 보낸 시간들은 조금씩 나를 바꿔갔다. 물론 학생들의 태도의 변화도 있었고, 그 변화들은 특별교육에서도 나타났다. 여전히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 거렸지만, 다른 기수의 학생들과 달리 활기찬 모습으로 항상 웃고 있었다. 수업을 위해 들어오는 선생님들도 ‘이번 기수의 아이들은 뭔가 다르네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작은 변화일 뿐이었다. 단 한 가지,

선생님과 학생이 말을 섞은 것뿐이었다. 다만 평범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던 선생님이, 앞이 아니라 뒤에서 바라보던 선생님이 학생들 사이에 들어간 것이 다를 뿐이었다.

‘곁에 있어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학생의 곁에 있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아닐 때, 앞에 서지 않을 때 비로소 곁에 있게 된 것이었다.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바라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방향에서 다시 보며 생각할 수 있었다.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때에, 학생들을 가장 나를 필요로 해주었다. 더 스스럼없이 다가와 주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들 한다. 하나에 얽매어 좁게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겠지만, 나는 반대로 말하고 싶다. 숲도, 나무도 아닌 더 아래에 있는 풀을 보라고 하고 싶다. 울창한 숲은 나무가 있기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 나무조차 땅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땅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이 풀이다.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퍼져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난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풀들이 있기 때문에 숲은 더욱 쪽빛을 띤다.

거리를 걷다보면 여기저기 볼 수 있는 것이 풀이다. 화단이나 숲에는 풀들이 모여 있지만, 거리에는 길모퉁이나 돌 사이에 홀로 피어있기도 하다. 어찌 보면 정말 보기 싫다. 가지런히 정돈된 도로에 불쑥 튀어나와 있기 때문이다.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두면 제멋대로 자라 거리를 어지럽히기도 한다. 특별교육을 오는 학생은 웬지 그런 풀과 같다고 생각했다.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자라며, 주변 사람들로

부터 좋게 여겨지지 못한다. 하지만 그 역시 풀이다. 지천에 널려있는 풀과 다를 바 없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 조금, 아주 조금만 손을 빌려주면 여느 풀과 다름없이 무리지어 자라날 것이다.

‘사람이 사는 마을 / 가장 낮은 곳으로’

안도현 시인의 《우리가 눈발이라면》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 그곳에서야 보이지 않던 것들도 비로소 보이게 되었다. 사회복무를 하며 자괴감을 가지고, 무기력함에 괴로워했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집해제가 되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평생토록 절대로 꺾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다시는 서지 못할 위치에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물론 좋지 못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 또한 다시 꺾지 못할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할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것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학생은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출석일수가 모자라 졸업하기 힘들었던 학생이지만, 그 이후로 꼬박꼬박 등교하여 무사히 졸업을 하였다.

“선생님, 졸업하면 술 한 잔 사주세요.”

“무사히 졸업해서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면 사줄게.”

지나가다 한 말이 약속이 되었다. 교육을 이수하고 반년이 되어갈 즈음, 학생으로부터 정말로 연락이 왔다. ‘곧 군대를 갈 것 같다.’, ‘얼마 전에 여자 친구랑 헤어졌다.’, ‘큰아버지를 도와 거제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는 등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스쳐가는 일이라도 나에게서는 하나의 인연이 되었다. 무사히 졸업하고, 잊지 않고 연락을 준 학생에게 고마움

도 있었지만, 보람과 같은 뿌듯함이 컸다.

곧 있으면 복무를 시작한지 1년이 된다. ‘많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 다르다. 부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원치 않았고, 갑작스레 결정된 사회복무였지만 그렇기에 갖게 된 변화의 기회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준 것이 가장 좋았다.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숲을 ‘학교’ 또는 ‘교실’, 거창하게 말해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나무는 ‘선생님’, 그리고 풀은 ‘학생’이라고 본다. 나무가 썩어버리면 숲 역시 썩어버린다. 아름다운 숲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숲을 아름답게 하는 나무들은 주변에는 풀이 있다. 풀이 자라지 않는 곳에 나무 역시 자라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풀이다. 아무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나무를 더 돋보이게, 숲을 더 푸르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었다.

울창한 숲 속에 우거진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존재한다.

남은 1년,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것이다. 조금 더 배워가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내가 기대된다.

20초의 기억

- 전화한통으로 시작된 생각과 태도의 변화 -



오 종 희 | 진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

▶ 오만의 시작, 1초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이 아스팔트 위를 점령하고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회색빛 세상을 걷는 모습을 매일 같이 작은 두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바쁜 걸음으로 걷고 화려한 자동차를 타고 경적을 울리는 날을 기다리며 나의 지식을 숫자로 표현한 성적표와 능력의 개수를 알려주는 자격증에 매달리며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보니 어느새 냉기로 채워진 가슴은 다른 사람을 받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머리는 지성과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상대를 분석하고 파악하려고만 하였다. 냉기와 독기 오기로만 가득한 나에게는 세상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열심히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한기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야한다는 불안감에 매일 스스로를 다그치며 자기중심적으로만 살게 되었다. 그렇게 세상을 오만 하는 시간은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 패배감을 느끼기 충분한 시간, 5초

22세의 겨울, 사회복무가 예정되어있어 정신없던 대학생활에 심표를 찍으며 훈련소 입소를 기다리며 나의 미래를 꿈꾸는 날들이었다. 성적은 점차 오르고 있었고 마음에 사람을 담지 않으니 인간관계로 고민할 것도 없었고 타인에게 시기, 질투,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그때의 나는 스스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저마다 각기 다른 위치에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술 한 잔에 농담을 던지며 해픈 웃음을 짓는 날이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자지러지듯 웃게 되고 얼굴만 보아도 행복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술은 이미 우리 모두를 집어삼킨 뒤였고 하나 둘 눈에 초점이 흐릿해지던 찰나에 친구 놈 하나가 공익근무를 하게 된 나를 비꼬기 시작했다. 나의 표정이 일그러짐과 동시에 정적이 찾아왔고 얼굴이 상기되어버린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검은 하늘아래 축 늘어진 나의 어깨는 나의 기분을 대신 말해주었고 투덜투덜 집으로 향했다. 그 먼 거리를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때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패배감이다. 뒤늦게 정신을 차려 취업준비에 밤을 새며 노력했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매질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가 사회복무요원 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충격은 상당했다. 친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시간은 단 5초에 불과한데 나는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에 회의감을 느끼며 패배감을 느끼게 되었다.

▼ 영망이 되어버린 시간, 7초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마무리하고 훈련소를 다녀온 뒤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다. 지독한 겨울, 마음이 시리고 불안해서 복무하는 2년은 스스로에게 집중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자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매일 아침 전화기 너머로 민원인들의 짜증과 불만을 듣고 있노라면 나의 상태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었고 어느새 나도 전화기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한숨을 쉬게 되고 어디론가 숨고 싶었다. 마음속으로 이를 악물고 욕도 해보고 짜증도 내어보고 체념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차갑기만 하였고 그들의 불만조차 나에게는 불만이 되었다. 무거운 전화기를 들고 있는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통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사업소를 가득 매우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시끄럽게 울려대는 전화기는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전화기를 들었고 최대한 빠르게 전화를 끊겠다는 마음을 먹고 입을 때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르게 화부터 내는 민원인들과는 다르게 낮은 목소리와 어눌한 발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말했다. 말을 더듬기도 하고 느려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몇 번이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되물어보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신

민원인들의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민원도 밀린 채 나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였다. 그들의 짜증난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전화를 열른 끊어야 될 것 같았지만 나를 믿고 전화로 천천히 이야기해주시는 민원인에게 죄송해서라도 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날은 엉망으로 끝이 났다. 전화민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였고 카드납부 민원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에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모든게 엉망이었다. 위로 삼아 노래를 들으려 이어폰을 귀에 꼽고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스스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자만했던 지난날, 패배감을 느꼈던 날, 노력했던 날도 나는 단한번이라도 잘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고 그때의 방식, 태도, 나의 생각은 최상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그렇게 하루가 엉망으로 마무리되었고 나의 지난날도 엉망이 되었다. 노래는 아직 전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 딱! 10초만

그렇게 매일을 엉망으로 만들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었다. 스스로의 시간을 부정하게 된 그날 이후부터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꼈고 어떤 어려운 그 무엇도 해낼 것 같던 마음은 어느새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린 뒤였다.

그러던 중 참새가 지저귀고 푸른 나뭇잎이 빛을 내는 날이었다. 어느 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을 시작하고 어제와 같은 시간에 컴퓨터를 키고 주변정리를 하고 지극히 평범한 업무를 하며 오전을 보냈고 그와 다르지

않는 오후를 보낼 거라는 생각에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때 사업소 문을 열고 평범한 할아버지 한분이 들어오시며 공익 근무요원이 어디 있냐고 찾았고,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원인께서 나의 전화 응대가 맘에 들지 않아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뒷문으로 도망갈까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다. 할아버님은 어느새 책상 앞에 서서 손에 땀이 고 오신 사탕을 나의 손에 쥐어 주셨고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하셨다. “고..고맙다는...마..말을 하고...싶었어..요” 정확하지 않고 느린 말속에 고맙다고 말씀 해주시는 할아버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 보았고 사탕을 건 나의 손이 어찌나도 작아보였는지 부끄러워 할아버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렇게 할아버님께서는 전화를 끝까지 들어주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연신 나의 손을 쥐고 흔드셨다.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할아버님의 눈빛과 따듯하게 잡아준 손,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를 말씀해주시는 말들이 나의 마음을 울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렇게 웃으시는 얼굴로 다시 아드님의 차에 오르시고는 손을 흔들며 내게 인사를 해주셨다. “항상 건강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웃던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펄펄 울었다. 그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잘하고 있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었고 나조차도 스스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잘하는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한 나에게는 그 어떤 언변가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창피해하는 나는 화장실 두 번째 칸에 앉아 딱 10초만 울자고 앉아 10분을 펄펄 울었다.

▼ 변화하는 시간, 15초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1주일은 얼굴이 부어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고 얼어붙었던 마음과 독기로 가득 찼던 생각에 따듯한 온기로 가득 찼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다시 웃음을 찾게 되었다. 약한 모습보이지 말라고 스스로를 매질하기만 했던 시간에 용서라는 연고를 바르고 악착같이 독기만 가득 차 구멍 뚫린 마음에 여유라는 반창고를 붙였다. 자신을 용서하고 잘하고 있다는 여유를 가지니 힘겹기만 하던 하루하루가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고, 짜증나던 전화벨소리는 이제야 아름다운 노래였다 는걸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종희야, 오늘 하루도 잘해낼 거야! 언제나 잘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니까!”라고 몇 번을 외치고 잠들기 전에도 거울을 보며 “이 세상에 너만큼 아름다운사람이 있을까?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어!”라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사무실 컴퓨터 배경화면에도 똑같이 문구를 넣어 매번 보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아직은 부끄러워서 말하면서도 혼자 피식거리고 컴퓨터 배경화면을 누가 볼까 숨기기 바쁘다. 하지만 스쳐지나가는 15초는 나를 변화시키는 바람이 되었고 그 바람은 나의 하루를 만들어주었다.

▼ 기적의 시간, 2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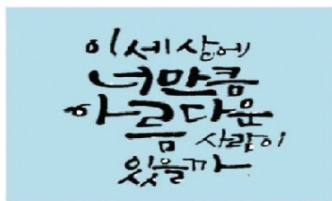
변화의 바람에 몸을 맡기고 비로소 세상이 색색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지금의 나는 전화로도 웃음을 전할 수 있고 나의 말 한마디로 진주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무하고 있다. 왜냐하면 할아버님의 말 한마디 덕분에 나의 삶이 바뀐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할아버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복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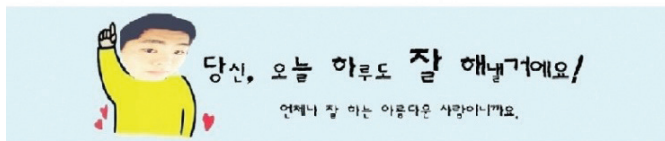
할아버님의 전화를 받기까지 20초의 시간이 이후 나에게 어떠한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에게는 기적의 바람이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이라 놀리던 친구들과 주변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 앞으로 펼쳐질 레이스는 100m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에 그들이 내가 출발점이 뒤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오래 달릴 수 있는 힘을 나는 사회복무를 통해서 얻고 있기 때문이다.

| 직접 만든 컴퓨터 배경화면 |



성훈을 좋아하는 정훈씨 오종희가 전하는 희망 메세지 ~ 📧



Vision project 출판사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회복무요원이다



이 승 빈 | 부산금정소방서

20살 나는 징병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을 받고 부끄러웠다. 주변 친구들과, 남들과는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게 부끄럽고 싫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공익으로 불리던 보충역들을 군대도 안가고 편하게 놀기만 하고 문제도 많다고 생각하고 나또한 그러하였다. 2년이란 시간을 남들과 같이 국방의 의무로 보내지만 군대와는 달리 합숙을 하지 않고 자유시간이 많기에 그저 편하고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사실 나도 부끄러웠고 현역을 가지 못한 것이 속상하였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떳떳하지 못했고 숨겨 왔었다.

입대를 준비하다보니 사회복지무원으로서 복무 할 수 있는 분야 기관이 정말 다양하였다. 그중 소방서가 눈에 들어 왔었다. 사회복지무원으로서 환자구호 업무를 보조하는데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이왕에 2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되니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의 전공과는 관련 없는 분야였지만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훈련소에 입대하여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소방서에 첫 출근을 하였다. 생각 보다 많은 사회복지원들이 소방서에서 보조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낯설기만한 그곳에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훈련하신 반장님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급 현장 활동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열심히 배우고 연습한 뒤 119 안전센터 구급출동을 보조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었기에 퇴근 후에 인터넷에서 다양한 활동 영상들을 보면서 소방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했었다. 오랜 경험과 많은 훈련으로 현장에서 멋지게 일하는 소방대원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들과 같이 한다는 것이 설렘이었다.

긴장 반 설렘 반 첫 현장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 보니 비 응급 환자이면서 택시비를 아끼기 위한 사람부터 술에 취한 채 비협조적인 분들까지 비 응급 출동들이 대부분이었다. 솔직히 회의감이 들었었다 왜 저런 사소한 환자들까지 출동을 나가야되지? 라는 생각이 많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마주치고 나서 왜 항상 많은 장비를 챙기고 응급처치 공부와 훈련을 하고 현장까지 신속한 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10번 아니 100번의 출동 중 혹시 모를 단 한건의 정말 위급한 응급상황에서
실수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어린 아기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할 때 그 아이의
약하게 뛰는 심장박동을 보면서 응급처치 보조를 하며 병원이송을 한
적이 있다. 30분 넘게 흔들리는 차안에서 아기에게 숨을 불어넣고 심장을
계속 뛰게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소생을 시킬 수 없었다.
아기의 어머님께 다가가 이야길 하는 반장님을,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어머님을 보며 너무 아쉬웠고 안타까웠으며 어린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 후 내가 그 현장에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점검하여 다음 위급한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게
연습을 하였다.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현장에서 최대
한 소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록 보조역할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후회가 없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친구와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는 소리에 가보니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구급출동을 다니던 나에겐 자주
보고 익숙한 모습이라 침착하게 상처를 확인 후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며 주변사람들에게 119신고를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친구가 평소 편하게 놀면서 군 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먼저
다가가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을 하였다.
나도 모르게 복무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 갈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나 보다. 그리고 누군가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상황이라면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최근에 부족했던 소방인력들이 많이 보충되어 사회복지요원이 보조 인력으로 많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행정업무와 현장활동 중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또다시 현장 활동을 선택 했다. 많은 환자들을 마주 하다보면 한번씩 진심어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큰 보람을 느끼기에 이왕 시작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119안전센터를 돌면서 복무를 계속하고 있다. 사실 현장 활동을 고집한 탓에 근무지도 2번이나 옮기고 가끔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덕에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많은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1년간 복무하다 보니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로 소생에 기여하면 받는 ‘하트세이버’ 인증서도 감사하게도 2번이나 받았다.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동안 끝까지 열심히 해서 많은 응급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계속 할 것이다.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중이거나 출신인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지 못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인식 탓에 위축되곤 한다. 남들과 같이 2년이란 시간을 보내지만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편하게 복무를 하기에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회복지요원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만 비판한다. 하지만 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길 기대하기 전에 내가,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한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1년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이제는 사회복무요원임을 숨기려고 하지않고 남들에게 당당히 말하게 되었고 나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그저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게 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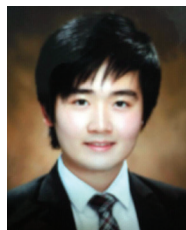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고 각자 어딜 가서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무 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나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다양한 직무, 어느 직무든 보람찬 줄 수 있다



홍 성 협 | 충북대학교 재무과

▼ 어느 직책이든, 마음가짐 하나로 업무와 인식에 변화를!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행하기 전, 주위의 친구 혹은 후배들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듣고 꽤 보람찬 일일 한다는 이야기를 접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일반행정을 하였던 사회복무요원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걱정도 들었었습니다. 행정직은 말대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인데, 과연 얼마나 보람찬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북대학교 출신인 저는 운이 좋게 충북대학교 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북대학교에서 총학생회, 대의원회 등 많은 시간을 학생회 활동을 하며

지내왔기에 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일들을 알고 있어 일을 처리함에 있어 그 누구보다 능수능란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도, 부서의 어느 심부름이라도 학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저에게는 단지, 기존의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느낌이 컸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저희 능수능란한 일처리 덕에 매우 기뻐하심은 물론, 믿을 수 있는 사회복지요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뭔가 보람찬 일은 적었습니다. 대개 제가 맡는 주민원처리는 등록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신입생들의 등록금 납부 안내, 그리고 재학생들의 등록금 납부에 대한 안내와 서류작업 및 은행 업무를 주로 합니다. 결국 제가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안내’ 뿐이었고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며, 더욱이 뭔가를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재무과에서의 성실한 업무는 물론, 교내의 모든 직원들과 마주했을지 모르는 분이라도 인사를 꼬박꼬박하며 사회복지요원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 제가 오가는 1~4층의 선생님(교직원)들은 저를 모르는 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아주머니께도 항상 인사를 건네며 간혹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으며 또한 사회복지요원이 아니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재무과 사회복지요원은 대인관계가 매우 좋고,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른 부서 선생님께서 식사나 술 한잔 하자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부서 뿐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대해 주시니, 모든 업무를 더욱이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보람차지 않다고 느꼈던 민원들을 더욱이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응대를 하니 학생들도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기본에 충실하며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했을 뿐인데, 그 작은 생각이 업무생활과 마음가짐을 바꾸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근무지에 오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일을 맡았을 시 더욱이 열심히 하였고, 한번은 부서 팀장님께서 PPT 제작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대학시절 배웠던 기술로 원하시는 내용을 깔끔히 담아 도와드렸고, 결과적으로 팀장님께서 성공적인 발표를 하시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재무과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재무과의 큰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더 큰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올바른 마음가짐(긍정·능동), 더 큰 역할을 해낸다!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고 저에게 큰일을 맡긴다는 것은 기쁘고 뿌듯한 일입니다. 긍정, 능동적인 마음가짐으로 복무시간동안의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뿌듯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졸업식 전날 어느 한 선배의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졸업에 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는 학생에게는 일괄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졸업식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저에게 학사관리 권한은 없지만, 등록금 내역관리 권한이 있어 선배의 학번을 통하여 등록금 고지서 내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곳에 학적의 상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요건을 갖춘 선배는 졸업예정이 아닌, 수료예정으로 기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분명 졸업시험 통과자 혹은 졸업 논문 제출자의 명단에서 실수로 빠진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다급히 해당학과에 연락조치를 취하고 학사과의 문의를 통하여 졸업 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처리가 되어, 다음날 졸업식에서 학위를 받고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선배는 청주에 소방관으로 재직 중이며 마음 편히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람찬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을 하지 못하였다면, 인생의 계획에 있어 차질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의 근무지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학사 쪽의 일이며 원래대로라면 학사과에 문의하여 처리해보라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등록금 고지서에서도 학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매우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고, 졸업식에 참여 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졸업식에 참여를 못하고 학위를 받지 못했다면 한학기가 지나서야 졸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무 초반에 가졌던 기분을 충실히 하며 더욱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사회복지요원은 보다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사회복지요원은 많은 복무기관과 그에 따른 많은 직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더욱 어렵고, 어떠한 것이 더욱 편하며, 어떠한 것이 더욱 보람찬 직인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직을 맡고 있던 자신 스스로가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나에 따라 근무지의 분위기와 근무시간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자신의 근무 만족도는 자동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2년이란 기간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닌 만큼, 만족하는 복무생활을 한다면 그 기간은 인생에 있어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기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보이는 시야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2년이란 시간, 긍정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후회 없을 뿐 아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 파이팅!

내 나이 스물셋, 중학교에 다니다

- 특수학급 장애학생활동지원 체험 수기 -



강 현 구 |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본 수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령을 받아 모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작성한 것입니다.

장애학생활동지원이라는 다소 낯선 분야에서
장애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한 학생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점도 많아 보람된 사회복무요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스물 셋, 다시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 중학교에 다닐 때와는 달리 지금은 더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배움을 주는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아직 가시지 않은 9월 초, 새까매진 얼굴과 짧은 머리의 모습으로 사회복무요원활동 배정을 받기위해 교육청으로 갔다.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친구의 조언으로 교육청으로 배정받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교육청엔 자리가 없었다. 약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제일 가까운 곳으로 지역을 고르고 있던 중 주무관님께서 “상장 받으셨네요? 그럼 특수학급보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지도 않던 특수학급 지원 업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걱정과 격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학교 재학 시절 특수교육과 관련된 일은 힘들거라고 생각했고, 종종 장애학생들이 이유 없이 때린다는 소문도 있어 첫 출근하기 전 불안한 마음을 다독거리며 마음을 추스렸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해주신다니까..’라고 생각하며 출근한 첫날. 특수선생님들께 간단한 교육을 받고 자리에 앉았다. 십여분이나 지났을까 학생들이 한 두명 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하며 들어오는 학생은 어눌한 말투와 고정되지 않은 시선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색했지만 나도 “응, 안녕”하며 미소와 함께 응대해주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나의 만남의 시작이었다.

첫날의 설렘과 걱정도 잠시, 조금 시간을 보내니 ‘얼른 이렇게 2년을 보내서 전역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고 선생님께서 주신 장애학생 문제행동 관련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학생들을 만나도 형식적이고 사무적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입을 여셨다. “선생님 태준이 수업 지원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이라는 말에 설레었지만 귀찮은 마음이 더 컸다. ‘난 단순히 활동 보조 업무인데 수업 지원이라니...’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태준이 옆에 앉았다. 태준이는 지적1급 학생으로 한쪽 눈으로 날보고 한쪽 눈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든 정말 다른데, 무엇을 알려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고, 눈앞에 퍼즐이 보여 태준이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태준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퍼즐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2분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보인 “쿵!쿵!쿵!” 소리와 함께 책상 위에 주먹을 내리치기 시작한 태준이. 당황한 나머지 “선생님! 어떻게 해요?”라고 소리쳤다. 선생님께서는 태준이의 장애상태와 태준이와 잘 지내려면 이해심과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이해심과 천천히!를 생각하며 태준이에게 다시 다가갔다. 애써 노력하려고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는거야.”라며 알려주려는데 갑자기 손을 입에 넣더니 나에게 침을 던지며 팔을 잡고 할퀴었다. 그 순간의 당혹스러움과 불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로 인해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혼낼 수는 없었다.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나 머릿속은 매우 복잡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기에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과연 이 일을 2년 동안 잘 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못한다고 이야기할까?라며 잠시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의보다는 국가의 부름이라는 타의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었지만,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려는 나의 마음을

생각하니 그건 나 스스로에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것도 경험이니깐 열심히 해서 좋은 경험으로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내가 먼저 천천히 퍼즐을 맞추고 그 모습을 따라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반복적으로 퍼즐을 맞추도록 하였다.

태준이에게 퍼즐을 주고 난 뒤 2주 정도 되었을 쯤 ‘내가 전역할 때 쯤이면, 태준이가 퍼즐을 스스로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업무를 하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책상에 앉아 퍼즐을 맞추고 있던 태준이. 나는 놀람을 금치 못하고 “선생님! 태준이 좀 보세요. 퍼즐을 맞췄어요. 태준이가요!”라고 말했다. 선생님도 약간의 놀라시며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셨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 개도 맞추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맞추다니! 기적과 같은 순간에 놀람과 흥분은 가라앉지 않고 입으로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말만 맴돌았다. 그런 내 모습을 보던 선생님께서는 나와 태준이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해주셨다. ‘나도 장애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선생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2년이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면서 사회에 있을 때와는 달리 해보지 못한 경험도 해보고 자기계발도 하면서 전역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회복지무원들도 2년이라는 시간을 장애학생 활동 지원도 하고 꾸준히 자기계발시간을 가지면서 향후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고, 진로를 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직업으로 바꾸어 취업한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해요.

나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줄게요.”라고 말씀해주셨다. 처음 적응하기 힘든 나의 마음을 단비처럼 적셔주신 선생님의 말씀이 참 감사하고,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장애학생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라는 생각에 첫날 선생님께 받았던 책을 다시 열어 보았다. 신기하게도 그 책은 2주 동안 태준이와 지내면서 접했던 문제 행동들에 대한 설명과 대처 방안이 제시되어 있었다. 태준이가 그런 행동을 보인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단순히 그런 행동들이 나에 대한 감정표현인줄로만 생각했는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태준이의 상황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앞섰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책을 좀 더 읽었으면 태준이의 마음을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책을 읽으며 궁금한 점은 선생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과 함께 태준이를 지원하니 태준이의 수업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눈에 띄게 알 수 있었다.

한 학기가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수영수업이 개설되어 장애학생들의 수영수업도 지원하게 되었다. ‘수영장’이라는 색다른 장소와 수영에는 썬병인 내가 수영수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런 걱정 속에서 시작된 수영 수업. 내 생각과는 달리 학생 중에는 수영을 나보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처음인 학생도 있었다. 처음 수영수업을 받는 진호는 물이 무섭다며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완강한 거부로 물에 발도 담그지

못하는 진호. 그런 진호의 손을 잡고 무섭지 않다고 달래주며 천천히 들어가보라고 설득했더니 한 시간쯤 지난 후에 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진호 용감한데? 봐봐 용기내면 할 수 있잖아. 잘 했어! 물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수영은 성공이다!”라고 말해주었다. 수영전담 강사님께서 물속에 들어온 진호의 손을 잡고 물속에서 걷는 활동부터 시작하여 물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하셨다.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진호와 함께 물과 친해지기 위해 물속에서 걷기, 물장난 치기, 헬퍼를 허리에 두르고 물 속에서 점프하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놀았다. 그렇게 진호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나조차도 물이 무섭고 수영이 겁이 났었는데 물속에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 진호도 물과 친해지고, 킥판을 잡고 발장구를 치거나 헬퍼를 하고 발장구 치는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또한 진호가 수영을 배우는 것을 지원하고 보면서 어깨너머로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수영연습을 했다. 진호가 물속에서 즐겁게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나 또한 수영실력이 조금씩 향상되어가고 있음을 느끼자 수영수업이 너무 즐거웠다. 내가 좀 더 잘해야 진호에게도 수영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고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하기로 했다. 수영수업에 참여한 지 두어 달 된 지금, 소위 맥주 병이었던 내가 자유형과 배영, 접영이라는 영법을 익혔고 요즘은 진호에게 자유형 팔돌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나와 진호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진호는 신체적으로 근육이 굳은 상태의 몸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배우는 데 있어 매우 어려운 학생이었다. 그런 학생이 점차 연습과 반복을 통해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알려주었던 것이다.

덕산중학교 장애학생활동 지원으로 근무한 지 약 10개월. 위의 일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 준비를 위한 제과제빵, 바리스타, 도예교육,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동아리활동까지. 이 많은 활동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의심으로 시작한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활동.

9개월이 지난 지금 그 의문과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장애학생들을 만나기 전 가지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선입견들이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 눈빛과 태도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되는 상처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약 1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며, 복무기간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내 모습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젠 약 1년 2개월 정도 남은 복무기간이 벌써부터 아쉽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준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준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멘토로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신 특수학급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 사회복지요원



- 나와 우리의 특별한 사회복지 이야기 -

권 익 현 | 한국철도공사대구본부(포항역)

나는 공익요원이다. 아니, 2013년 부로 공익요원은 사회복지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니 정식 명칭은 사회복지요원이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명칭이 입에 더 착 달라붙고 남들이 알아듣게 설명하기에도 편하다. 친구들이나 지인들, 어른들에게도 열에 아홉 번은 “사회복지요원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공익입니다. 하하.” 하고 설명한다. 그때 마다 친구들에게는 질투 섞인 야유를, 어른들에게는 어딘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스런 시선을 받은 한다.

처음 사회복지를 할 근무지를 선택할 때는 걱정이 되었다.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근무지인 KTX 포항역의 복무 분야가 안전·재난지원이었다. 안전·재난지원이란 어감에 철도 사고가 나면 그 현장을 수습하는 일을 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고 직원분들을 업무를 보조해 드리는 일을 하며 복무를 하고 있다. 직원분들도 사회복지요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잘 대해 주셔서, 사회복지요원들도 기분 좋게 고객들을 안내하고 직원분들의 업무를 도와드린다.

이제 내가 할 이야기들은 이러한 복무환경 속에서 겪은 일들이다. 나만의 특별한 사회복지요원 경험, 또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나누려 한다.

▶ 나의 특별한 선생님

개인적으로 코레일 역에서 사회복지요원이 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 시각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해 움직임이 힘든 분들을 각각의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로 그 분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복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서툴렀던 그 때는 하나하나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휠체어 리프트를 기차에 대는 것도 신경이 쓰였고, 휠체어를 몰고 경사 진 곳을 갈 때 손잡이를 놓치진 않을지 걱정됐고, 시각장애인분들을 옆에서 인도할 때는 그 분들이 벽에 부딪칠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역시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 슬슬 경험이 쌓여가자 그 분들을 안내하는 것이 편해지고, 부담이 덜 되었다.

그날도 퇴근 전 마지막 열차 시간대에 시각장애인 한 분 있다고 출발역에서 연락이 왔다. 그 때까지 안내했던 시각장애인분들은 모두 KTX를 이용했지만 그 분은 무궁화호를 이용했다. 처음으로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기 위해 타는 곳으로 나가 그 승객을 보고 조금 놀랐다. 그때까지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을 안내했지만 그 승객은 나와 나이 차이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옷도 세련되고 멋있게 입어 안내인인 나만 없었으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일 것 같았다. 조금의 호기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안내를 하면 될지를 질문하자 역으로 질문이 왔다. 포항에 온 것이 처음인데 한 사거리에 있는 어느 안마소로 가려하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통 시각장애인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열차 시간에 맞춰 데리러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질문을 받자 복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교통편에 미숙했던 나는 당황하며 포항역의 관광안내소에 질문을 했고 한 시내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는 정확한 답변을 얻게 되었다. 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분은 원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지만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해 두 눈이 실명 되었다고 했다. 나이를 들어보니 나보다 서너 살 많은 형이었고 지금은 대학을 다니며 안마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술을 배우며 다니는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취직을 돈을 벌 생각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취직에 필요한 정보도 본인이 알아보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다.

짧은 시간 속, 짧은 대화에도 그 형은 매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리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현재 그 형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런 형과는 반대로, 나는 평소에도 느긋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로 부모님의 걱정을 샀었다. 사회복무를 하면서도 그저 출퇴근만 제때 하고 집에 가서는 마음껏 쉬는,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비록 몸이 좋지 않아 사회복무를 하고 있지만, 그 형에 비하면 큰 장애물도 아니었다.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인가 깨달은 나는 이것저것 목표가 생겨 여러 가지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통해 공인영어시험에서 목표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고, 현재는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비즈니스 중국어, 운전 면허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아직 얻은 결과는 많지 않지만 소집해제가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공인 시험의 점수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짧은 만남이 준 긍정적이고 큰 변화다.

몇 번 씩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낮이 익은 고객들도 있지만, 그런 고객들과 달리 그 날 이후로 그 형을 보지 못했다. 혹여나 소집해제가 되기 전에 그 형을 다시 한 번 보게 된다면, 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반갑게 인사하고 싶다. 그 날 짧은 만남으로 큰 교훈을 줘 고맙다고, 그 교훈으로 많은 것을 얻어 간다고.

▶ 인사하지 못한 선물

앞서 기차를 자주 이용해 여러 번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여 익숙한 고객이 있다고 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노부부가 그렇다. 할아버지의 거동이 불편하셔서 할머니께서 부축을 하시고 포항역으로 오시면

막내였던 내가 휠체어로 모시고 가 열차에 태워 드렸다. 대구에서 오실 때는 열차를 기다리다가 다시 휠체어로 시내버스를 타는 곳까지 모셔다 드렸다. 이 노부부는 거의 매주 월요일 아침에 KTX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시고 저녁 즈음에 무궁화를 타고 오셨다.

매주 월요일마다 모셔다 드리게 되면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안부도 여쭙게 되었다. 이것저것 궁금한 점도 많았지만 혹시라도 질문이 무례할까봐 여쭙지 못한 질문도 많았다. 조금 알게 된 바로는 할아버지께서 머리에 혹 같은 것이 생겨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고 후유증으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시기 위해 포항에서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가셨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끝나면 포항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이었다. 내가 도우미를 해드릴 때마다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해 주시고 한참 어린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 해 주시니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을 한 나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 더욱 신경 써서 휠체어 도우미를 해 드렸다. 자주 오시니 월요일에 그 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것이 일과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언제부터인지 월요일에 그 노부부가 보이시지 않으셨다. 처음에는 무슨 일 있으신가, 치료가 다 끝나셨나 하는 궁금증이 따라왔지만 몇 주 뒤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어느 월요일에 휠체어 서비스 요청이 있어 휠체어를 들고 나가보니 그 노부부가 서 계셨다. 오랜만에 뵈는 것이 반가워 인사를 드리고 열차까지 모셔 드렸다. 예전처럼 밝은 모습

으로 인사를 해 주시는 모습이 잘 지내신 것 같아서 조금 안도했다. 항상 이용하시던 열차를 그날도 이용한다고 하셨다. 열차를 타시는 것까진 별 다른 것이 없었다. 그날 오후가 되어 무궁화호를 타는 곳으로 모시러 갔고 휠체어에 앉으신 후 여쭙었다. “오늘도 시내버스 타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면 되죠?” 그러자 할머니는 오늘은 할머니가 차를 몰고 왔으니 먼저 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역 앞으로 가지고 오겠다. 천천히 할아버지를 모시고 역 앞으로 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머니는 먼저 출발하시고 나는 처음으로 할아버지만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안보이시니 불안하신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나로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저 할아버지께서 안심하실 수 있게 할머니는 먼저 차를 가지러 가셨다고 말씀 드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내가 몰고 있는 휠체어에서 갑자기 일어서시려고 하셨다. 나는 깜짝 놀라 휠체어 모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일어나시면 위험하다고, 앉아 있으시면 할머니께 모셔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차가 다니는 곳으로 갔다. 하지만 할머니와 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할아버지께서는 계속하여 일어나려고 하시며 더욱 큰 목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나에게 하고 계셨다. 그러다 심지어는 다른 열차를 타고 오신 승객들에게도 샷대질을 하시며 소리를 치시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그 분들에게 대신 사과를 드리며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히려 노력하며 할머니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시질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상황에 대해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왜 먼저 가서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할아버지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지’ 등등의 생각이 드는 순간 휴대폰으로 후임에게 전화가 왔다. 그 후임은 할머니 또한 나와 할아버지를 못 찾으셔서 대표창구로 오신 후 혹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지 물어보셨다고 말했다. 그렇게 연락이 된 후 겨우 만나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가져오신 소형 트럭에 태워드린 후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할머니께서 내 손을 잡으시더니 손가방 안에서 대구에서 사 오신 소보로빵 하나를 내 손에 꼭 쥐어 주시는 것이었다. “우리 도와 줄 때마다 너무 고마워서 오늘 빵 하나 사왔어요. 맛있게 먹어요.” 이러한 말씀을 듣자 그 순간 짜증이 사라지고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대구에서 빵 까지 사오셨지만 나는 그 짧은 시간을 못 참아 짜증이 나 있던 것이 부끄러웠다. 그렇게 순간 멍해진 나를 앞에 두고 노부부의 트럭은 출발해 포항역을 떠나고 있었다.

이분들 역시도 이 날을 이후로 한 번도 월요일에 포항역에 오서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신 적이 없다. 가끔씩 이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잘 계신지, 할아버지의 몸 상태는 좋아지셨는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다음번에 뵈 땀 꼭 인사드리고 싶다. “건강하시죠? 그 때 주신 빵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2015년 기준으로 사회복지무요원은 50,000여명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사회복지 경험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은 나밖에

하지 못한 것들이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회복지무원들이 특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업무는 그들이 아니면 아무도 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50,000여명의 사회복지무원들에게 한마디 건네고 싶다.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회복지무원들이니.”



마음먹는 대로



김 건 호 | 대구도시철도공사 3고객센터(제4관리역)

사회복무 전 봉사활동 한번 한 적 없는 나태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던 나의 삶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의식이 없는 할머니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도시철도공사에서 경험한 일들로 인해 책임감과 긍정의 힘을 알게 되었고,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발전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다.

나는 복무생활 시작 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들 중 하나였다. 지루한 강의를 듣고 하루 수업이 모두 끝나면 놀기 바쁜,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잠들며, 학업과 음주를 병행하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 당시 나는 나름의 청춘을 즐긴다는 변명 아래 내일의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지냈다. 그렇게 나름대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었고, 추억거리도 많이 만들었지만 웬지 모를 가슴 속 공허한 기분이 많이 들었었다. 그렇게 나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던 중 사회복무생활을 시작하려 훈련소에 들어갔다.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배치된 나의 근무지는 사회복지무원들 사이에서 꽤나 힘들다고 알려진 지하철역이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것이 나의 일. 실툼 없이 바쁘고, 수많은 승객들을 상상했지만, 막상 배치 받은 역은 가장 승객이 없는 역 중 하나였다. 순간 복무생활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일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 책임감

승강장은 나의 주된 근무지이다. 승객이 없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근무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졌으며 그래야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나태한 마음으로 지내던 나에게는 근무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길게 느껴졌다. 길고 넓은 이 곳에서, 상상했던 것처럼 많은 승객들로 활기찬 분위기가 아닌 고요하며 20명이 채 되지 승객들을 지켜보는 것은 지루한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근무시간이 빨리 지나갈까, 퇴근하면 무엇을 할까 등의 잡생각과 각종 공상으로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 도중 할머니 한 분이 열차에서 내리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시는 일이 발생했다. 급히 뛰어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니 숨은 쉬고 계시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상의를 벗어 입혀드린 후 편한 자세로 눕혀드렸다. 119를 부르고 할머니를 업어 따뜻한 휴식공간으로 모신 후 대원들을 기다렸다. 곧이어 119대원들이 도착하고 응급조치 후 할머니는 의식을 차리셨다.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으시겠냐는 구급대원의 말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하시며 끝내 거절하고 갈 길을 가시려했다. 걱정이 되어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복귀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할머니께서 다시 역으로 나를 찾아 오셨다. 당시에 너무 놀라서 고마움을 전하지 못하여 꼭 전하고 싶다고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하시며 두 손을 꼭 잡으시며 가방 속에서 사탕 한줌 쥐어 주시고는 수차례 감사의 말을 남기고 가셨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감사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 속이 뭉클해지며 부끄러움이 찾아왔다. 그간 시간 보낼 궁리만 하고, 사람이 많지도 않는데 ‘왜 꼭 근무를 서야 하는가’라며 귀찮아 하고 불만이 있었던 나에게 커다란 부끄러움을 느꼈다. ‘필요하지도 않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태하게 근무했다면 큰 일이 발생 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그 동안의 나 자신에 대해 반성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자극을 받고 어떤 일이던 맡은 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긍정의 힘

2015년 3월 나에겐 보통 사회복지요원들에겐 잘 없는 근무지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현재 대구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하늘열차’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하여 역을 옮겨가게 된 것이다. 몇 개월간 정든 역을 뒤로 하고 그렇게 나는 3호선에 배치되어 새로운 복무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개통과 동시에 대구의 명소로 자리 잡은 3호선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한적한 역에서 근무했던 나는 꽤나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

었다. 3호선이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 넘도록 같은 말을 반복하며 안내를 하니 이내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하루는 참다 못해 부모님께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에 부모님께서서는 그런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고 마음가짐을 달리하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충고해 주셨다. 나의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웃는 얼굴로 친절히 대하면 승객들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내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나는 마음가짐을 달리하여 실천에 옮겨 보았다. 매일같이 보는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해 보인다면 달려가 도움을 드렸다. 그리고 변화는 곧이어 일어났다. 오늘도 수고한다는 승객들의 한 마디에 힘이 났고, 보람을 느끼며 긍정의 힘을 느끼기 시작 한 것이다. 또한 간간히 직원들이나 복무요원 사이에서도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도 듣게 되었다. 칭찬은 고래도 웃게 한다더니 다소 강해 보이던 내 인상은 부드럽게 바뀌어 가고 있었다.

▼ 복무요원들에게

나의 사회복무기간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복무 생활 중 가장 큰 깨달음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단 것이다. 몇몇 사회복무요원들은 “지겹다.”,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등 이런 얘기들을 입에 달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는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분명히 해결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쉽고 편한 길만 찾다보면 나태해지기 마련이고 결국 나태함은 자기 자신을

삶아 먹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자기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자세를 가진다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행복,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실제로 나는 복무생활 전 봉사활동 한 번 한 적도 없고 나태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경험한 일들로 인해 책임감과 긍정의 힘을 알게 되었고, 이는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켰다. 이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 하나가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며 긍정적인 사람, 타인에게 힘이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 준 것이다.

혹여나 이 전의 나와 같은 복무요원들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마음가짐을 달리 해 보아라. 바뀔 것이다. 어떻게?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으로.



열을 주고, 찬을 얻은 나의 사회복무요원생활



- 작은 사랑! 눈을 뜨고 찾지 말고 마음을 열고 찾아보자! -

김 호 진 |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진명학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멀리 가서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2년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성심성의껏 베풀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배우며 나를 성장시킨
나의 사회복무요원 생활의 이야기! 안동진명학교에서 시작되었다.

▼ 소중한 인연의 시작

매일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을 반복하던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온다!

2015년 6월 15일, 나는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복지무
요원 근무를 하기 위해 안동진명학교에 왔다. 교문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을 때 마다 2년이란 긴 시간이 주는 부담감에 정신은 아득해지고
이제 시작이라는 좌절감에 발은 무거워졌다. 그래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에 도착한 나는 담당 선생님께 사회복지
요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 요령을 배웠다. 특히 담당 선생님께
서는 ‘아동학대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강조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나도 사람인데 학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훌륭한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나에게 학대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동진
명학교에 온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복무에 임하기로
다짐했다.

사회복지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켜야할 내용들을 교육받은 후, 초등
부에 배정받은 나는 초등부 건물로 갔다. 교실에서 활짝 웃으시며 나를
반겨주던 선생님,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환경판, 천방지축 친구들이 떠올라 그리웠던 초등학교 시절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에 잠겨있는 나를 아이들은
서슴없이 반겨주었다. 한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안아달라고 하고, 다른
아이는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사회복지무요원 선생님이에요?”
“오늘 나하고 놀자요!”라고 하면서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밝혀 주었다. 나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나를 반겨 준 귀여운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돕고 내 동생처럼 생각하며 복무에 임하기로 다짐했다.

사회복무요원 생활의 첫날, 나는 두 남자 아이의 학습 보조와 학교 생활보조를 맡게 되었다. 처음이라 그런지 설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 한 남자 학생이 옆에서 박수를 치며 나에게 제스처를 취했다. 이론밖에 몰랐던 나는 직접 표현을 하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는 처음 봤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다. 그 때 옆에서 다른 남학생이 “선생님 나랑 놀자요”라고 말하며 온갖 퍼즐, 장난감, 동화책, 교과서를 가지고 왔다. 동시에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두 아이 때문에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누구부터, 뭐부터 해줘야 할지 생각을 할 틈조차 없었다. 결국 나는 두 아이를 같이 앉혀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작한지 5분도 되지 않아 한 아이가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 달라고 한다. 나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열심히 읽어주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내가 읽어주는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선생님 다른 거 하고 놀자요!’라고 말하며 나에게 또 다른 장난감을 가져왔다. 나는 두 아이와 놀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작은 손길

어느 날, 학생이 나에게 ‘선생님, 석○는 어제 입었던 옷이에요.’라고 놀림조로 말했다. 확실히 그 학생의 옷은 자주 바뀌지 않았지만 나는 ‘아이가 옷을 깨끗이 입어서 집에서 안 갈아 입혔구나!’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도 석○의 옷은 바뀌지 않았다. 그것이 계속 신경 쓰였던 나는 석○에게 ‘석○야 다른 옷은 없어요?’ 라고 하니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없어요?”라며 나한테 다시 묻는 것 같은 말로 되받아 친다. 감정표현을 못해도 감정은 느끼는 우리 아이들……. 그동안 정도 많이 들어서 나에게는 하나같이 동생같고 귀여운 아이들인데 같은 옷을 계속 입고 그것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당하는 석○이가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집에서 사회복지무요원 급여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힘든 복무의 대가로 나라에서 주는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놀림 받는 석○의 모습을 떠올리며 석○에게 옷을 한 벌 사주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퇴근 후, 나는 시내로 향했다. 처음 들어가 보는 Kids 옷집을 돌아다니며 석○가 마음에 들어할만한 옷이 어떤것인지 몰라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적당한 가격의 옷을 두 벌 구입했다. 분명 내 월급으로는 부담이지만 ‘석○가 이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떳떳해질 수만 있다면……. 이쯤이야! 차라리 내가 털 사먹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다음 날, 다른 학생들이 오기 전에 석○에게 ‘석○야, 이 옷 입어봐’라며 옷을 줬다. 석○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건넨 옷을 주섬 주섬 입는다. 석○는 옷을 다 입고 장난기가 가득한 얼굴로 날 보며 웃으며 ‘옷 샀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석○를 꼭 안아주며 상처 받지 않도록 ‘석○가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샀어요~’라고 말해주었다. 새 옷을 입고 좋아하며 웃고 있는 석○를 보니, 괜히 내가 가슴이 펴지고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 다른 학생들이 반에 다 모여 있을 때 나는

아이들에게 “애들아! 석○ 옷이 바뀌었어!” 라고 하며 아이들에게 석○의 옷에 대한 관심을 끌었다. 다른 아이들이 석○를 보며 ‘우와~ 어디서 샀어?’, ‘옷 멋지다.’ 라고 하며 석○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서로를 한 번 더 봐주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내가 어째서 석○에게 옷을 사주고 아이들과 더 친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지 생각해보니 단순히 아이에 대한 감정이 앞섰다 보기 보다는 그동안 아이들로부터 배운 사랑이 앞섰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이들로부터 배운 사랑이란 아껴주고, 나눌 줄 알며,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아이들로 인해

새로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한 것이라 생각한다.

▼ 나에게 있어서 사회복지요원이란..

주위에서 흔히 말한다. ‘사회복지요원이 뭐 하는 것이 있냐?’, ‘사회복지요원해서 남는 게 뭐냐?’라고 말이다. 나 역시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런 말을 들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직장인?, 불편한 곳이 있는 성인? 모두 아니다. 우리도 사회에 나와서 국민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복무에 임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이다. 처음에는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요원 근무를 통해 사회생활을 배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근무나 배움이 아닌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한 사람의 행복을 도모해 줄 수 있

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사회복지무요원은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충분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무요원은 마음을 다해 생각하며, 온힘을 다해 행동하고,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여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패기밖에 없었던 사회복지무요원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느끼고 경험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남은 사회복지무요원 생활도 앞으로의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더욱 값진 경험이 될 것을 소망한다. 그리고 소집해제 되는 그날까지 내가 아이들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더 소중한 추억과 사랑을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어려운걸 자꾸 해냅니다. 제가

- 사회복지요원 송신 -



한 니 엘 | 풍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단결!!! 사회 복무 요원 송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풍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요원 한니엘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제가”라는 대사를 아십니까? 이 대사는 최근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대사로 사회복지요원을 시작하고 제게 자주 와닿는 대사입니다. 그 대사가 왜 제게 와닿는지 잠깐, 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의 두려움이 있는데 저는 남자라면 부러워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자리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나온 애들은 군대 나왔다고 말 못해. 어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편한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저는 사회 복무 요원이 자랑스롭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기관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배정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대학전공이 사회복지과여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년만 버티자!’라며 24개월을 지내고 전역하려했으나 3가지의 사건으로 인해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저는 사회복무를 하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애인 이용시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장애인들과 함께 한 경험이 없어 장애인을 대하는데 있어 너무나도 생소하고 두려워 선뜻 다가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센터 내 이용자들은 어려워하는 제 생각이 무색하게 너무나 큰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먼저 한 명씩 다가와 제게 인사를 해줌으로써 제 마음속 어색함과 두려움

들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대화를 통해 이용자들 개개인의 특성들에 대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용자와 저와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도 어울리며 걱정했던 것보다 더 수월하게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복무요원으로써 대충 버티다가 전역하자.’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준 한 이용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처음 그 이용자를 봤을 때 ‘아, 새로운 이용자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후 그 이용자의 어머니께서 센터에 방문하시면서 얼굴을 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라고 계속 생각하던 중에 ‘아! 슈퍼 아주머니!’하고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 이용자의 어머니는 평소 교통카드 충전하기 위해 들렸던 슈퍼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슈퍼를 이용했지만 주인 아주머니의 아들을 본 적은 없었기에 바로 못 알아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때 잠깐 ‘세상은 좁고, 광주는 더 좁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 잠깐 그 이용자의 대해 설명을 하자면 그 이용자는 자폐성장애 1급입니다.

특수학교를 막 졸업한 이용자로 자기주장이 강하며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으로 어떻게든 본인 마음에 들게끔 하려고 하는 이용자였습니다. 덩치도 크며 뛰어 다니는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좋아하며 선 맞춰 걷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화장실만 보이면 가서 세수하기를 좋아했으며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것만 몰두하고 집착하는 여러 특징과 성격을 가진 이용자였습니다. 또한 초코파이를 정말 좋아하다 못해 사랑했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용자에 대한 얘기였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오후 제가 복무하고 있는 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노래교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노래를 배우는데 그 날도 어김없이 노래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했던 그 이용자는 노래교실이 진행되는 넓은 강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노래교실을 저희 센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와서 함께 이용을 하기에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뛰어다니다 다른 기관 이용자와 부딪히는 등)때문에 그 이용자를 자리에 앉혀야 했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자리에 앉히려했다가 맞는대거나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목처럼 어렵지만 해내야 하는 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이용자에게 다가갔고 많이 흥분된 상태를 진정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마음이 그 이용자에게 닿았는지 진정을 하고 앉아서 노래 부를 때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함께 일어나 춤을 출 때 추는 등 강사 진행에 따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계속 여기서 복무하는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다시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언제인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기관 프로그램 중 화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태권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태권도 프로그램을 참여하러 장애인 체육시설을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얘기하는 동안 그 이용자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용자를 찾기 위해 강당을 돌아다니고 화장실을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순간 무서움이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그 이용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찾으러 다녔지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서는 찾을 수 없을 거 같아 기관 내 남자 선생님과 함께 찾으러 다녔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고 태권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물 옆 건물로 갔을까 하는 생각에 옆 건물로 가보았습니다.

옆 건물로 들어서자 보이는 건 의자에 앉아 웃으며 놀고 있는 그 이용자의 모습.....

그 모습을 보자 걱정했던 제 마음이 이상하게 화로 바뀌면서 저도 모르게 그 이용자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했던 제 마음을 알고 잡은 거였을까요? 화가 났던 제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지며 함께 이용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는 ‘다른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깐 얼른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라고 말했더니 그 이용자는 맑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일은 마무리 되었고 함께 태권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용자들의 돌발 행동과 상황 속에서 적응하고 익숙

해진 줄 알았던 저에게 다시 한 번 긴장을 하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월 어느 날, 한창 숲이 울창할 때였습니다. 센터 프로그램 중 수요일 오전 숲 체험을 위해 무등산을 갔었습니다. 무등산 내 1187번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는 원효사에 센터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갔습니다. 이용자와 함께 파릇파릇한 녹색 빛이 어우러진 숲의 장관을 보고 숲의 맑은 공기덕분인지 저를 포함한 이용자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이용자도 말입니다. 그러던 중 저의 불찰로 그 이용자를 손에서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고 발에 불이 나게 뛰어 그 이용자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모습에서 달랐던 점은 저번 처럼 당황하지 않고 그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그 이용자는 앞서 말했듯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효사 계단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없었습니다. 생각과 다르자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남자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 함께 찾기 시작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울창하고 푸르다고 생각했던 무등산이 넓고넓은 미로와 같은 무등산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더 열심히 이용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효사 안으로 들어가 찾아보기도 했고 차로 돌아가 찾아봤으나 이용자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를 찾는 동안 땀으로 샤워를 한 저는 얼굴이라도 씻고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그 이용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화장실 안을 살살이 찾았지만 이용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이럴수가.....

여자화장실에서 그 이용자는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하면서 이 이용자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그저 자만과 교만이 있던걸 깨달았습니다. 한 순간의 제 자만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라는 생각은 나만의 착각임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 미안한 마음에 저는 정말 그 이용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마음이 통했는지 그 이용자도 제 말을 잘 따라주고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개인사정으로 입소한지 2달 뒤에 퇴소를 하였습니다.

퇴소 하던 날 그 이용자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머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 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일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용자에게 마지막인데 선생님들께 인사하고 가라던 어머님의 말을 듣지 않고 뒤돌아 가던 그 이용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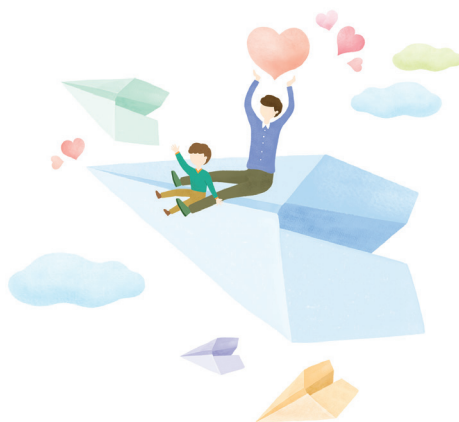
그 이용자와 함께하는 2달 동안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긍정적 에너지로 헌신적인 열정이 없던 저에게
우울 할 땐 유머로 웃음을 주고 내가 힘이 들더라도
이용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를 배웠습니다.

굳이 내가 먼저 양보해야해? 라고 생각을 하던 제게 양보와 배려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가르쳐주는 시간이었고 지금도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무원으로써 자긍심과 앞으로 전역했을 때 사회복지사란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용자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어갈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써 마음가짐 등 앞으로 배울 것이 많음에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어디든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회복지무원이 되어 전역하겠습니다.

사회복지무원 송신.



복무지 밖에서 찾은 자부심

- 자부심을 찾게 되니, 자존감을 갖게 되었다 -



임 정 섭 |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배울초등학교)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장교의 꿈을 이루지 못해

스스로 사회복무요원인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주말 기차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과의 일화에서

놀랍게도 내 신분의 자부심을 깨달았고 이후 삶의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

▶ 4급 판정, 바뀐 미래

지난, 2015년 7월 국방의 의무를 시작하기엔 다른 이들에 비해 조금 늦은 나이인 23살, 저는 생전 처음 받은 소집통지서를 말없이, 한참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무공훈장을 받으신 군 간부 출신의

할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을 이을 장교가 나와야 한다며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의 아버지들은 각각 방위, 면제, 현역병사로 복무하셨고, 저희 사촌형 역시 현역병사로 복무하셨습니다. 저는 자연 스레 초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R.O.T.C에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후에 대학교에서 대기과학과에 진학한 저는 공군에 지원하여 기상 장교로 복무하겠다는 당차고 야무진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다친 어깨가 문제가 되어 스무 살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가족들과 저는 그 꿈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4급 판정을 받은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 당시엔 제가 생각한 군복무의 방향과 많이 달라졌기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대학동기들이 군대를 갈 때도 차일피일 미루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나 훈련소를 다녀왔고 저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배울 초등학교에 행정지원 담당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무시, 숨기고 싶다

사실 제가 직접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회복지무원에 대한 인식은 부끄러운 것이었으며, 자부심을 가지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떤 지인 들은 제가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똥방위’라는 등의 비하 발언을 하며 무시했고, 몇몇 여자동기들은 ‘나중에 사회복지

요원 출신이란 것을 알면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된다.’
는 등의 무시를 은연중에 보여 기분이 나빴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처음 학교에 배정받고 복무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 못했으며,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24개월이 최대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
습니다.

▶ 하나의 사건, 마음속의 번뇌, 갈등

그러던 중 제 모든 태도와 마음가짐을 한번에 뒤엎는 사건이 있었습
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4월 16일 토요일 오후, 저는 오랜만에 여자
친구도 보고 학교친구들도 만나기 위해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
니다. 오랜만에 내려가는 길이라 마음도 설레었고 창밖에 펼쳐지는 익숙
하면서도 새로운 풍경들도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 앞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앞좌석에 앉아있는 어떤 남성이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무음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잠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속으로 ‘혹시 딸을 멀리서 찍고
있는 아버지는 아닐까?’라고 생각되어 확인을 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
보려 했습니다. 심증으로는 모르는 사이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다고 생각
했으나, 혹여 딸을 찍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는 생각에, ‘제발 아는 척을 했으면 좋겠다. 제발 기차를 내릴 때 아버지!
하며 같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며 속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성은 6번 정도의 촬영을 하고 인터넷에 그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계속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차는 부산에 도착했고 저는 미리 나가 그 다음의 일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랐던 방향과는 달리 그 두 사람은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수백 번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맞서며 싸웠습니다. ‘저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는 마음과 ‘내 일이 아니니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낫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리를 돌고 심장은 더욱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에게 이 일을 알렸다가 혹여나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의를 일으켰다 하여 큰 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냥 지나갈까?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굳게 먹게 한 것은 ‘난 사회복지원이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나서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 여자친구, 어머니 또 우리학교의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범죄여부와 상관없이 이 여성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며 그 것이 성추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면 최소한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니까 말입니다.

▶ 이름의 의미, 교육의 실천

병무청 소양교육 일주일간 과정에서 ‘사회복지요원’이라는 명칭의

의미에 대해 배웠습니다. 현역 군인들은 군대에 복무하여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복무하며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에,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의무가 있다. 이것이 곧 사회복무요원이란 이름의 의미이니 자부심을 갖고 일하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당시에 교육 받았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며 넘겼지만,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말씀이 뇌리를 스쳤고, 오히려 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내 몸을 사리며 남 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먼저 나서고 더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되는 게 옳은 것이구나!’라고 결심한 뒤 행동에 옮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여성분에게 말을 걸어 “저, 혹시 저 남성분을 아십니까?” 여쭙며 기차에서 남성이 사진을 찍던 정황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성분께서 순간 온몸을 떠시며 공포에 빠져 있었고, 그 남성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오히려 “이거 남의 휴대폰을 보여 달라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아니오?”라며 저희에게 큰소리로 따졌습니다. 저 역시 법에 관한 상식이 많지 않고 또 남성이 더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라 남성에게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되시면 경찰관을 불러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묻자 그 남성이 제 팔을 치며 달아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었지만 당황도 잠시, 빠른 속도로 쫓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남성은 도망을 치기위해 저를 밀치고 휴대폰 사진을 지우기에 우선 휴대폰을 확보하며 계속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제가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에 곤란해 하던 중

다시 생각난 것이 훈련소와 병무청 소양교육당시에 구급법 시간에 배운 것이었습니다. 인명을 살리는 순간은 아니었지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바로 특정인을 지목하여 신고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성을 잡고 있는 동시에 앞에 계신 아주머니 두 분을 지목하여 “앞에 계신 모자 쓴 아주머니, 철도 경찰을 불러주시고 분홍 잠바를 입은 아주머니는 역무원을 불러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곧이어 빠르게 출동해주신 철도경찰 분들에게 안내를 받아 서에 갔습니다. 아쉬운건지 다행인건지 그분이 촬영한 사진들은 특정신체부위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사진을 찍었기에 여성분이 원하는 처벌은 불가하여 삭제와 사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하였습니다.

▶ 새로 배운 뿌듯함의 기적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그 남성을 경찰관에게 넘기는걸 지켜보고 계시던 시민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고 대견하다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피해 여성분이 몇 번이나 제게 고맙다고 말해 주셨을 때 안심과 동시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나올 때 철도경찰 분께서 ‘좋은 일한 거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한 거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제 행동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로 제 주변 친구들과 여자친구 역시 저를 굉장히 멋있다고 치켜세워줬으며, 부모님도 굉장히 대견스럽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만약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았다면, 정의가 실현되는데 일조했다는 뿌듯함과 사명감을 느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일 생각하듯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을 그 짧은 시간동안 들었던 사회복지부요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 덕분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회를 지키는 일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사회에 기여해야한다.’라는 생각이
그때 나의 행동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단순히 사명감과 패기만으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부요원 소양교육 구급법 시간에 배운 신고요령을 익혔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신속히 대처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교육들을 받지 못했다면 긴 시간 동안 역내에서 씨름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장담 못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부요원이었기에,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기에 내 삶의 마음가짐을 바꾼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변화한 마음, 변화한 삶의 질

이전의 저는 사회복지부요원으로서 나를 대할 때 자부심도 없었으며, 장교지원도 못해봤다는 생각에 올 초에 임관하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후의 제 마음의 변화는 매우 큼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학교에서도 미소보단 무표정으로 있던 일이 더 많았던 저는 이제 미소도 많이 짓고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장애인 고용사업으로 오신 분들께 먼저 커피도 권하고 항상 저를 가르쳐주시는 주사님과 즐겁게 일하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병원, 모임 등 외부에서 직업을 물어볼 때 무시를 당할까봐 휴학생이라 얼버무리곤 했는데 이젠 항상 당당하게 사회복지무원이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고생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무료하다는 핑계로 퇴근하면 친구를 만나거나 잠을 자던 제가 자신감을 갖고 나니 매일 운동을 하고, 복학준비를 위해 퇴근 후에는 도서관을 찾아 영어와 전공 관련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은 복무기관 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외부에서 발생한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이후, 복무기관 밖에서도 사회복지무원이란 생각을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은 이들이 경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을 깎아드립니다

- 발톱 깎기로 웃음을 전해드린 이야기 -



정 근 욱 | 참사랑노인요양원

[사례 : 목욕을 마치고 탕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발톱이 너무 흐트러져서 깨끗하게 하려 발톱 깎기를 시작.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잘못 깎으면 어떡하지’하시며 걱정하셨는데, “어르신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깎아드렸더니 다음 혹은 다 다음번 횟수부터 우려하시던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먼저 요청을 해주심. 깎은 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 하셨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보호자분들도 무중으로 흐트러진 발톱이 깨끗해짐을 보고 좋아하심. 또한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어르신들과의 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계기가 됨]

“아이고 깨끗해졌네, 그냥. 어쩔 그리 감쪽같이 잘라내지? 고마워라...”

“어르신 오늘 호강하시네요. 그 두꺼운 걸 떨어내시니 얼마나 가벼우세요...”

“내가 한번 깎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던데 어떻게 하셨대요? 대단하시네..” 오늘도 한건 했다. 오늘도 난 감사하게도 어르신들,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았다. 뭘 했기에 이런 말들을 들었을까? 바로 발톱을 깎아 드린 것이다.

나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위치한 ‘참사랑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벌써 온지도 1년하고도 4개월째다. 학교를 떠난 뒤 이만큼 오래 일터에 다녀본 게 처음이다. 처음 적응기 때 나는 업무를 몸에 익히느라 쓰지 않던 근육들을 쓰고, 여러 어르신들과 직원 분들께 인사드리고, 어르신 성함을 외우고, 그 속의 일과 흐름을 익히느라 작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웬지 모르게 항상 바빴던 것 같다.

그렇게 적응해 나가던 어느 날 목욕을 진행할 때, 어르신들의 손발톱의 비대함을 보게 되었다. 울퉁불퉁 솟아난 민낯의 손톱 발톱들, 엄청 개성 넘치게 생겼는데, 그들을 발견한 순간부터 친할머니의 손발톱 관리자(?)였던 나는 뭔가 ‘후벼 파내고 싶다’, ‘깎고 싶다’,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염원을 쌓아갔다. 그렇게 점점 더 여러 어르신들의 발가락을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상태여서 어르신 모두의 깨끗한 발을 상상하며 강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바로 실행하지는 못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친 할머니의 것과 같은 일반 발톱이 아닌 좀 누리끼리하게 변색이 되고 일반 발톱 깎기로는 깎기 어려울 것 같은 두꺼운 무좀 발톱을 두고, ‘하다가 잘못되면 어찌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깎아드리는지 관찰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 선생님 한분이 장갑을 낀 채 니퍼를 가지고, 바닥에는 깎여진 발톱 녀석들을 받을 쓰레기통을 두고, 발을 붙잡고, 그 험상궂은 발톱에 집중하면서 신중하게 조금씩 깎고 계시는 모습을 봤다. 그걸 보고는 속으로 ‘아 저걸 저렇게 하는구나, 저 정도면 나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저 일은 선생님들께서는 노안으로 인해 자세히 안보여서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럼 발톱 깎는 일도 하나의 봉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여느 날과 같이 시간에 따른 일과를 진행한 뒤, 틈틈이 찾아오는 쉬는 시간에 장갑을 끼고 니퍼와 손톱 깎기를 들고, 쓰레받기를 바닥에 대고 침상에 누워계시는 한 어르신께 시도를 했다. 그 때가 첫 시작이었다.

처음 깎으려고 어르신들께 다가설 때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왔어?”, “할머니 양말 벗어 보세요.”, “양말은 왜?”, “발톱 깎아드릴까 해서요!”, “험상궂어서 잘 깎이지도 않는데...”, “괜찮아요, 한번 벗어 보세요.”, “그러” 이런 대화를 하며 다가섰다. 그리고 최대한 집중하면서도 ‘할머니 아프시면 말씀하세요.’라며 안심시켜 드리는 말을 종종 건넸다.

그러자 차츰차츰 횡수를 더해 갈수록 어르신들은 어느 때나 찾아가도 마음 편하게 맡겨 주셨다. 이제 내 자리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럼 발톱은 어떻게 깎게 될까? 발톱을 깎는 과정은 이렇다 먼저 일회용 장갑, 손톱깎이, 쓰레받기를 준비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발톱을 깎으러 왔는데 혹시 제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어르신께 묻는다.(의사표현이 없으신 분들은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발톱 좀 깎아드려도 될까요? 하고 대신 묻는다.) 그리고나서 쓰레받기를 바닥에 두고 편한 자세로 휠체어에 앉아 계시거나, 침상에 누워계시는 어르신의 발톱을 깎는다. 이때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깎으려하면 잘못 깎아서 피가 날수도 있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깎아드려야겠다’ 마음먹고 조금씩 깎으면 된다. 그 후 뒤처리를 하면 끝이 난다.

그럼 첫 시작 때부터 잘 했을까? 아니 그럴 리가. 처음엔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 깔끔하게 깎아 내겠다는 마음이 그만 피를 부르고 만 것이다. 또한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일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조금만 참으세요!’ 하며 힘을 더해서 진행해버렸다. 물론 살점이 한 덩어리 떨어져 나가도록 잘라낸 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누워계시거나 발을 잘 이용하지 않으셔서 발이 굳어지는 바람에 각도에 따라 잘라내야 할 때 그만 살을 집게 된 것이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느낌이 온다. 자동반사다. 강한 떨림이 느껴진다. 그럴 때면 재빨리 휴지를 뜯어 지압에 나선다. (내 실수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르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명 무좀 발톱인 경우는 강도가 엄청 세거나, 이미 폭 끓거나 썩어서 통 채로 들려진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만 갓 벗겨졌을 땐 약간 만 눌러도 아프다. 그렇지만 그렇게 깎아내면 깔끔해지고, 양말을 신고 벗거나, 무좀이 걸리지 않은 발톱도 그래도 조금은 더 오래 걸리지 않게 되시겠거니 해서 깎았다, 깎다보니 이제는 아프지 않게 시간을 두고 조금씩 깎는 요령을 터득했다. 즉 오늘 다 깎아 내겠다는, 오늘 다해치우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발톱 깎기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기억은 바로 욕을 잘 하시는 어르신께 잘 한다고 인정받았을 때다. 나는 이 어르신이 칭찬하신 경우를 그간의 복무기간동안 한번도 못 봤다. 편마비가 와서 몸도 잘 못 움직이시기에 그로 인한 성냄이 많으신 어르신으로 보여져서, 늘 같은 방 어르신들을 깎아드리면서도 이 어르신은 하지 말까하고 생각도 해봤다. 그래도 해보니 정확히 세 번째 깎아드릴 때부터는 편히 맡겨 주신다. 잘 한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내가 정말 도움을 드리고 있구나 하는 자존감이 많이 생겨났다. 또한 어르신들이 기뻐하실 때에는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면서 ‘허투루 시간을 보낸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또 “깨끗하네.” “고마워.” 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시는 것이 또한 기억에 남는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은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적고 싶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다. 가족 외의 타인과는 굳이 내 생각을 내비치거나 주장하기를 꺼려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꿈꾸던 꿈 많은 어른이(어린이 + 어른)였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체가 변화하는 건 안전하게 천천히 조금씩 이란 걸 배우게 되었다.

발톱 깎기를 통해서도 어르신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고, 나도 무언가 도움이 되었다는 자존감을
많이 찾게 되었고, 칭찬 덕분에 성격이 더 밝고 활기차졌다.

어르신들은 아실까 정작 나는 발톱을 깎는 도움은 드리지만, 도움은 내가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덕분에 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었음을. 그래서 나는 발톱 깎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남은 시간에 손톱깎이를 들고 어르신들을 찾아가 보시라. 손끝, 발끝으로 전하고 받는 그 시간들은 덮어두었던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정음 향기로 피어나다
2016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발 행 인 병무청장 박 창 명

편 집 인 사회복무국장 조 규 동

발 행 일 2016년 9월

발 행 처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Tel. 042)481-3043 Fax. 042)481-3040
www.mma.go.kr

디자인 및 인쇄 디자인문영 Tel. 042)472-5081

발간등록번호 11-1300000-000143-10